자기를 바로 봅시다

금주의 법구

그대 만약 화를(虛僞)이 되고자 한다면
부처를 죽이는 일이다.
화상(虛相)에 집착해서는
그 이치에 도달할 수 없다.
-남악 회양스님-

현대불교

佛事 전념 30年
불교미술전시관
석탑(浮)석의 모든 것
책임 상담해 드립니다.
02)733-4800 -http://www.Buddha.co.kr 신흥사 청동대불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pia.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4년(서기 2000년) 3월 8일 수요일(주간) 제261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인터넷 영어는 이제 특정국가의 언어라기 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 전세계 홈페이지의 78%가 영어로 되어 있고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96%가 영어로 되어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영어는 20세기의 자동차와 전화 TV 등과 같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수단이 되었다.

인터넷시대 막차라도 타자

사이버 불국토 만들자

한국불교계는 이미 영어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현실이다. 21세기 인류정신문화의 대안이 선(禪)이라는 것이 세계사조임에도 정작 한국 선을 제대로 전파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의 떡이며 궤지 못한 구슬처럼 그 출중한 빛을 발하지 못하는 원인은 바로 영어장벽에 있다. 또한 외국 관광객들이 반드시 찾는 불교성지들도 언어불통으로 인해 추가된 감동을 주지 못한 채 그냥 조형물로만 바라보고 돌아가게 한다.

이같은 현실은 인터넷시대에도 또다시 답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교관련 홈페이지에서 부분적이나마 영어서비스를 하는 사이트는 불과 열 손가락에 꼽을 정도이다.

'영어를 배우자' 인터넷시대 화두

불교 홈페이지에 영어서비스를 필수로 해야한다는 것이 해외포교에 앞장섰던 국제포교사들의 간절한 바람이다. 나아가 각 종단 총무원이 중심이 되어 행정력으로라도 산하단체 사찰 등의 홈페이지 제작시 영어의무화라는 제도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될 때 해외 네티즌들이 제대로 한국불교를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불자들도 자연스레 영어 불교용어를 익히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전문인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교육이 필수적이다. 인터넷 시대, 스님을 비롯한 교계 지도층은 "어떻게 하면 불교의 고유한 문화를 보존하면서 동시에 세계문명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위영란 기자(yryui@buddhapia.com)

FM 101.9MHz
BBS 불교방송 후원회
문의전화 : (02)705-5560~1
후원회ARS 전화 : (02)700-0108 외환은행 185-13-03929-3
은행지로 번호 : 8003478번 국민은행 827-25-0020-943 농 협 069-01-238223
예금주 : 불교방송

62년이후 모든 징계자 대상

조계종 "대사면 추진"

총무원 '종헌 개정안' 종회 제출키로

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징계자 모두가 대상자에 포함되는 대사면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총무원(원장 정대)은 2월 29일 종무회를 열고 사면과 관련, 종헌 및 승려법 개정안, 통도사 총림 재지정 및 직영사찰(문수사 해남사 관룡사) 해제 건의안을 중앙종회에 제출키로 했다.

총무원이 마련한 종헌 개정안은 부칙 1개조를 추가해 사면 관련 조항 3개항을 신설한 것으로, △62년 이후 징계자 중 참회 자숙하는 자를 대상으로 △멸빈자의 사면을 제외한 종헌 제128조의 규정을 적용치 않으며 △멸빈자는 사면 후 공직취임 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지난 해 10월 제정, 공포된 해종행위징계자 특별법에 의해 행해진 징계의 경감 결정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무원은 이같은 종헌개정안과 징계의 사면, 경감, 복권의 개념과 시행 절차를 구체화한 승려법 개정안, 통도사 총림 재지정 및 통도사 말사인 문수사 해남사 관룡사 등 3개 사찰의 직영사찰 해제 건의안을 4일 종회사무처에 접수했다.

총무원에서 종헌개정안을 제출하면 중앙종회는 법제분과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토록 하며, 특위 심의를 거쳐 종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종헌은 종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된다. 종회는 14일부터 5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종헌개정안 마련은 사면을 통해 종단화합을 이루려는 집행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종헌 개정 이후 별도로 구성되는 사면위원회 또는 호법부에서 사면을 심사키 위한 구체적인 실무작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총무원의 종헌 개정 움직임에 대해 98년 종단사태로 멸빈의 징계를 받은 한 스님의 측근은 "현 총무원의 화합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종회에서의 종헌 개정 여부를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관련기사 3면〉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온겨레손잡기운동에 동참한 정대스님, 김수환 추기경, 강원룡 목사 등 7대 종교지도자들이 손을 맞잡고 화해와 평화를 기원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봉선사 조실

운경스님 입적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이자 봉선사 조실인 운경당(雲鏡堂) 기홍(基弘) 대종사(大宗師)가 2월 27일 주석처인 봉선사(奉先寺) 다경실(茶經室)에서 세수 96세, 법랍 76세로 입적했다. 운경스님의 영결 및 다비식은 2일 봉선사에서 원로회의 의장 탄성, 원로의원 석주·종산스님, 교육원장 일면, 중앙종회의장 법등스님과 입창열 경기도지사, 김양희 남양주시장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봉행됐다. 〈관련기사 2면〉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온겨레 손잡기 "화해-평화 기원"

종교인 333인 "통일과 나눔의 새세상" 선언

불교 원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 등 7대 종교의 종교인들과 시민 학생들은 1일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전주 수원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온겨레손잡기운동본부(상임공동본부장 정대 종단협의회장) 주최로 열린 손잡기 운동에 참석해 손에 손을 잡는 인간띠를 만들었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광장에서 열린 중앙행사에는 각 종교 대표 등 1천여명이 참석했으며, 식전공연에 이어 조정근 원불교 교정원장의 경과보고, 정대스님의 인사말,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 축사, 김대중 대통령의 축하메시지 대독(최창규 성균관장), 김수환 추기경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선언문' 낭독, 김용옥 천도교 교령의 '화해와 평화의 날' 선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대스님은 인사말에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용서와 화해의 악수를 청하고 과거를 청산하는 것만이 평화의 세상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천명했다. 종교인 333인은 '화해와 평화를 위한 선언문'을 통해 "독립과 자주를 선언했던 3·1정신을 계승해 화합과 평화, 나눔의 새세상을 이룩하겠다"고 선언했다.

부산 전주 청주 등에서도 지역별 행사와 함께 인간띠잇기를 펼쳤다. 손잡기운동본부는 이날 행사에 17천여명이 참가해 1백40여㎞ 구간에서 인간띠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종단협 상임이사 체제로

대의원총회 정관개정 "종단참여 확대"

종단협의회(회장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 운영이 회장단 중심에서 상임이사 체제로 전환된다.

종단협의회는 3일 서울 부암동 하림각에서 3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현행 6명으로 되어있는 상임이사를 11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관을 개정했다. 개정된 정관에 따라 이날 총회에서는 정대, 인곡 태고종 총무원장, 운덕 천태종 총무원장, 성초 진각종 통리원장, 홍파 관음종 총무원장 등 기존의 상임이사 5명 외에 새 상임이사 6명과 3명의 감사선임을 회장단에 위임했다. 종단협의회는 정관 개정 및 새 임원의 승인을 문화관광부에 요청키로 했다.

종단협의회가 상시 의사결정 구조를 일종의 집단지도체제인 상임이사 체제로 바꿈에 따라 군소종단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부 종단에서는 종단협의회 운영이 몇 개 종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불만을 표시해 왔다.

종단협의회는 또 개정 정관에 △회비 6개월 이상 미납 혼단에 대한 징계 조항을 신설하고 △사무총장은 이사회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면토록 했다.

정성운 기자

대각종등 3개종단 종단협 가입 보류

종단협의회 신규가입종단 심의위원회는 2일 회의를 열어 신규가입 심사기준을 정하고 가입신청한 대각종 불이종 정토종 등 3개 종단의 가입을 보류하기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심사기준을 △총본산이 명확하고 사찰 수 50개 이상 △창종 후 3년이 경과한 종단 △기존 회원 종단과의 불화가 없을 것 △종단대표(종정, 총무원장)의 전종이적(轉宗移籍) 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 입회 불가 등 7개항으로 확정했다.

삼의위원장 홍파스님은 3일 총회 보고를 통해 "정토종은 창종 후 3년 미경과, 대고종과의 사찰 문제 미해결, 불이종은 창종 후 3년 미경과, 대각종은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이번 총회에 가입 동의안을 상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현대불교 지사 모집합니다

불법홍포의 주역! 현대불교신문이 지사장을 모집합니다.

불교언론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현대불교는 생활 불교의 지혜와 고급 정보를 담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불교는 전국 광역시와 도 단위로 지사·지국을 운영단위 전국적으로 연결되는 조직망을 내륙에 구축하고자 합니다.

해당 지역의 독자확보와 광고영업의 사업 활동권을 갖게 되며, 불법의 포교사로 좋은 신문을 만든는 데 큰 힘을 보태게 됩니다. 각 지역의 체계적인 구독확장과 광고수주를 위해 시·도 단위로 전국 지사를 개설하고, 늘 정진하는 자세로 현대불교와 함께 일할 참신하고 역량 있는 지사장을 모집합니다.

1. 대상지역
 - 인천·경기, 대전·충청, 대구·경북, 전남·전북, 울산·경남, 강원도

2. 지사의 사업활동 내용
 - 해당지역 내 독점 구독확장 및 광고수주
 - 본사 주최 수익 사업활동 수행
 - 지역 내 취재활동 지원 및 기사 제보

3. 구비서류 및 제출기한
 - 구비서류 : 자필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사업활동계획서, 추천서, 주민등록등본
 - 제출기한 : 2000년 3월 17일
 - 제출방법 : 우편(17일 도착분 유효) 또는 직접 방문 접수

4. 제 출 처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문의전화 : 02)737-0090, 02)737-8881, 팩스 : 02)737-0697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사찰등(燈) 장엄불사 -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팔모주름등 (핑크)





팔모주름등(빨강)


팔모주름등(연두)



팔모주름등(노랑)


팔모조립등


팔모주름등 보관형태


육각등


조립팔모등



원통등


차결이등

찬덕의 연잎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특허 제 122168호 찬덕 비단 연잎으로
사찰에서 완성되는 공단등을 보급합니다.

연등 전문 제조업체인 찬덕 연등에서 스님들께
파격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공단등 연잎으로 신도들의
불심을 모아 연등 불사를 할 수 있는 길을 펼쳐 드립니다.

〈납품형태〉 ■ 비단 연잎 ■ 등통 + 비단 연잎

공단(비단) 연잎등 완성과정



⊙ 팔모주름등 특징
- 물에 젖지 않으며 견고함을 자랑합니다.
- 사용후 접은 상태에서 간편하게 보관이 되므로 운반, 보관이 간편합니다.
- 선명한 색상 오색으로 이어진 야간 점등 후 모습은 한국전통등 으로써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 종이 팔각등과 혼돈하지 마십시오.

디자인 : 대구 여래기획
전화 053)426-3395~6

찬덕 연등제작사 대표 김 기 찬 합장
☎ 0347)792-6288, 794-4055 / FAX 0347)792-6288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선원총람' 드디어 출간

1100년 선원역사 집대성…선맥도 체계화

실상사 선원 개원(828년)이래 1100년만에 선원 최초 종합자료인 〈선원총람〉이 발간됐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도원)가 2년간의 작업 끝에 집대성한 〈선원총람〉에는 근·현대 한국불교 선풍이 결사를 통해 이뤄졌다는 사실을 밝히고, 선맥도 태고 보우스님을 연원으로 만공스님에 이르기까지 체계화시켰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일본불교의 영향으로 불교의 계율이 파괴되고 선이 몰락하는 상황에서 선풍을 지키고 부처님 법대로 살고자 했던 해인사 정혜결사, 봉암사결사, 망월사 만일결사 내용등도 정리해 놓아 현재 조계종 종풍형성의 뿌리가 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선원총람〉의 발간은 선종을 표방하는 종단임에도 불구하고 선원에 대한 정리된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1100여년만에 종합자료를 처음으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조계종의 전통과 정체성 확립, 승풍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선원총람〉의 내용을 보면 경허 만공 이래 우리나라 선원의 가풍이 108참회였다는 것과 장좌불와와 묵언, 법거량, 철저한 규칙, 대중공양 등이 대중화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금산사 서래선원, 대승사 대승선원등 옛선원 45곳, 비구선원 43곳, 비구니선원 32곳, 국외 및 국제선원 5곳, 구산선문 9곳, 결제해제법어, 선원연표, 선사비문, 법맥도표, 140여 선원의 모습, 선사들의 생활모습 사진자료, 오도송 전법게 안거기록, 선사행장, 시기별 정진대중수와 현황이 도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이와함께 선원개관과 관련하여 '선원의 성립배경(지관스님)' '선원의 역사(성본스님)' '선원의 위상과 역할(종범스님)' '한국불교선맥전승사(김인수)' '선원의 운영현황과 개선방향(원융스님)'에 대한 논문 5편이 실렸다.

불학연구소장 도원스님은 "선원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지만 불립문자를 표방하는 선원의 자취를 찾기가 힘들었다. 근대 선원에 대한 기록조차 초창기를 제외하고는 없었다"며 "〈선원총람〉 편찬으로 선풍이 진작되기를 바라며 이번 작업을 계기로 더욱 자료를 발굴해 보다 짜임새있는 제2의 〈선원총람〉을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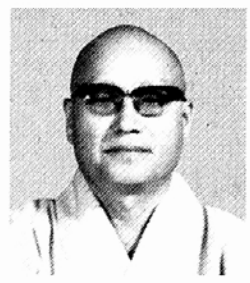
한편 조계종 교육원은 14일 오후 1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선원총람(1640페이지)〉 고불식및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출가절에 읽는 '큰스님 편지'

발굴화제 한암스님과 탄허스님 첫 서신 '공개'

오는 13일(음력 2월8일)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29세에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불문에 귀의한 출가절. 서산스님은 〈선가구감〉에서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랴"며 출가의 위대함과 출가자의 본분을 밝혀 놓았다. 지금 교계는 초발심으로의 회귀와 수행풍토 진작이라는 자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 때에 맞춰 유·불·선을 갖춘 대강백 탄허스님이 20세 때(1932년) 출가의 뜻을 품고 당시 선과 교를 겸해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던 스승 한암스님(1876~1951)에게 띄운 첫 편지와, 이를 받고 제자에게 출가정신을 담은 답을 보낸 한암스님의 첫 서신을 최초로 공개한다.


◇한암스님


◇탄허스님

서신에는 발심해 출가를 향한 젊은 탄허스님의 간절한 구도 의지와 갈등 고민이 역력하게 드러나 있으며, 스승 한암스님의 따뜻하고 거룩한 가르침이 알알이 배어있다. 아쉽게도 친필 서신은 탄허스님 생존 당시 시자였던 희태스님이 다른 많은 서신들과 함께 별도로 보관해오던 중, 한 객스님이 가져가 보존이 되지 않고 있다. 이 내용은 탄허스님의 제자로, 스님이 직접 강의한 내용을 기록으로 보존해온 서우담씨(도서출판 교림 대표)가 제공했다. 위영란 기자 (yryui@buddhapia.com)

☞ 한자원문 부다피아(www.buddhapia.com)에 있습니다.

제자(탄허)가 은사(한암)스님에게

속생(俗生)은 글을 올리나이다. 거룩하신 모습을 뵙지 못하고 당돌하게 글을 올리게 되어 참으로 황공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저희가 구구하게 우러러 생각하옴은 잠시도 쉬지 아니하여 다만, 마음과 꿈이 오가면서도 따를 길이 없나이다. 엎드려 생각하오니 존후께서 만복하시오며 도를 닦아 이루시는데 조용하고 정숙하여 날마다 바다가 넓고 하늘이 높은 기상이 있으시옵니까? 흠모하고 부러워하여 무척 거룩하게 생각하나이다.

속생은 본디 정읍에 태어나 천한 출신으로 호서에 흘러온지가 지금 4년이 되었고 나이는 지금 20세로서 근기가 옅고 배움이 낮아서 도를 들어도 믿지 아니하고 도를 믿는 것도 돈독하지 못하여 구슬을 가지고도 구슬을 잃어버리거나 나귀를 타고서 나귀를 찾는 허물이 많고, 쇠를 은으로 여기고 벽돌을 갈아 거울을 만들려는 병폐가 있사오니 참으로 한심하옵나이다.

더구나 집안의 누(累)와 외부의 사정으로 인욕(人欲)이 날로 커져 귀는 소리에 끌려가고 눈은 빛깔에 어두워져서 마치 산의 나무와 풀이 도끼와 같은 연장으로 토벌을 당하고 또 소와 염소에게 뜯어 먹히는 꼴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비와 이슬이 적셔주어도 싹이 자랄 수 없게 된 것 같사오니 그밖에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시경〉에서 "마음에 근심됨이 때묻는 옷과 같다"는 말이 바로 속생을 두고 한 말 같습니다. 제 신변을 돌아보면 그와 같이 가련하여 마침내 어떤 놈과 같이 되었사오니 어떻게 푸른 산과 흰 폭포수에서 때와 먼지를 깨끗하게 씻고 마음과 생각을 씻어 청정하게 하여 삼청계 이대궁에서 맑은 복을 길이 받겠나이까.

어찌 집하(執下)께서는 그러한 맑은 복이 있으시어 입산 수도하시며 헌신짝 벗듯이 속세를 잊으셨나이까. 그 뒤를 비록 따라가려고 하나 따를 수가 없나이다. 명년 봄을 기하여 나아가 뵈올 계획이오나 속세 인연을 끝내지 못하고 길도 또한 멀고머니 꼭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돌아보건대 제 기질이 나약하고 심지가 굳지 못하여 좋은 발자취를 따라가지 못하오나 오직 바라는 바는 다행히 장자의 가르침을 얻어서 그 허물을 적게 하는 것뿐이옵니다. 그러나 사람됨이 그와 같사오니 군자께서 잘 보살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집하께서 버리시지 않고 가르쳐 주신다면 속생의 지극한 소원은 이루게 되리라고 봅니다.

1932년 8월14일

은사(한암)스님이 제자(탄허)에게

보내온 글을 자세히 읽어보니 만족하게 도에 향하는 정성을 보겠노라. 장년의 호걸스러운 기운이 넘쳐 업을 지음에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도 모를 때에 능히 장부의 뜻을 세워 위없는 도를 배우고저 하니 숙세에 심은 선근이 깊지 않으면 어찌 능히 이와 같으리오. 축하하고 축하하노라.

그러나 도란 본래 천진이라 방소가 없어서 실로 가히 배울 수 없음이라, 만일 도를 배운다는 생각이 있다면 분득 도를 미(迷)함이 되나니 다만 그 사람의 한 생각 진실됨을 요함이니라. 또한 누가 도를 모르리오마는 알면서도 실천을 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멀어지게 되나니라.

예전에 백낙천이 조과선사에게 도를 물으니 사가 이르기를 "모든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하니까 천이 이르되 "그런 말은 세 살 먹은 애기라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스승이 이르되 "세살 먹은 애기라도 비록 말은 할 수 있지만, 팔십먹은 노인이라도 실천하기는 어렵다"하니 이 말이 비록 얕고 가까운 것 같으나 그러나 개중에는 깊고도 오묘한 도리가 있으니 깊고 오묘함이 원래로 얕고 가까움을 여의지 않고 이루어지나니라.

반드시 시끄럽다고 고요한 곳을 구하거나 속됨을 버리고 참됨을 향하지 말지니라. 매양 고요함은 시끄러운데서 구하고 참됨은 속됨속에 찾는다. 구하고 찾는 것이 가히 구하고 찾음 없는데 도달하면 시끄러움이 시끄러운 것이 아니요, 고요함이 고요한 것이 아니며 속됨이 속된 것이 아니요, 참됨도 참된 것이 아니니라. 부르면 꺾어지고 고함지르면 끊어지느니라. 이러한 시절을 무어라고 말해야 하는가. 이것이 이른바 한 사람이 헛됨을 전함에 만 사람들이 진실을 전함이니라. 그러나 간절히 바라노니 잘못 알지 말지어다. 한 번 웃노라.

봉선사 불사-수행 '한평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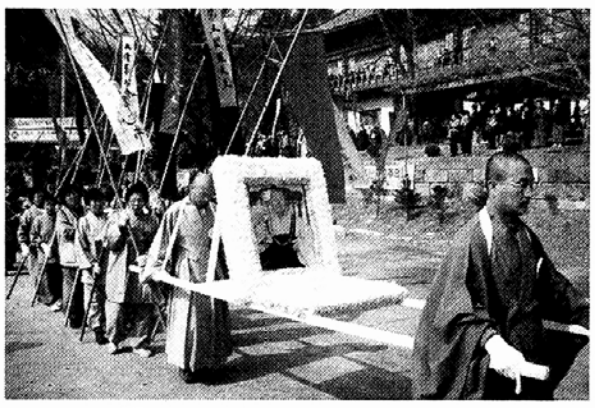
운경당 기홍스님 행장

2월 27일 봉선사에서 입적한 운경당(雲鏡堂) 기홍(基弘) 대종사(大宗師)는 1905년 충남 서산에서 출생했으며 1925년 봉선사에서 찬우(讚雨)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29년 해인사에서 용성(龍城)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계했다.

이후 해인사 김용사 유점사 강원서 수학하고, 대승사 수덕사 표훈사 유점사 등 선원에서 50안거를 성만한 스님은 수행을 본분으로 삼는 출가장부의 일생을 몸소 보여주셨다.

1948년 자재암 주지(대덕법계 품수), 1940년 흥룡사 주지, 조계종 경기교구 총무국장을 역임한 스님은 1968년 봉선사 총무국장, 중앙교무원 평의원, 1994~97년 봉선사 주지, 1995년 봉선사 문장, 원로회의 의원, 봉선사 조실 등의 소임을 맡았다.

스님은 일제치하에서 국권의 회복을 위해 조선민족해방당을 지원하다가 투옥되어 옥고를 치렀으며, 해방이후에는 운허스님을 도와 등국학원을 설립하는데 앞장섰다. 또한 6·25동란으로 폐허가 된 봉선사의 재건을 위해 탁발을 사양하지 않고 의정부포교당과 봉화정사를 일으켜 조계종 제25교구 본사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특히 봉선사 주지 소임을 맡을 당시에 능엄학림을 설립, 교종본산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2일 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거행된 영결식을 마친 후 다비장으로 향하는 운경스님의 법구.

운경스님은 "허깨비세상 구십년을(幻海九十年) 되돌아보니 우습구나(回頭事堪笑) 오늘 아침 몽땅 털어버리니(今朝撒手盡) 대천세계에 한빛이로다(大千光)"는 열반게(涅槃偈)를 남겼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2007년까지 포교공동체 건설"

조계종 포교사단 '비전2000' 발표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기병)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 포교 조직에 바탕한 비전 2000을 발표하고 정법포교사 양성, 불교적 가치의 사회적 실천, 자발적 참여에 의한 깨끗한 포교공동체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포교사단은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07년까지 4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주된 내용은 팀활동 확대, 포교지침서 개발, 전문포교사체제 구축, 지역포교사단 회관 건립으로 압축된다. 포교사단은 특히 내년까지 전문포교팀을 현재의 90개에서 150개로 확대해 포교사단에 가입하지 않은 포교사들을 포교현장으로 끌어들인다는 방침이다.

김기병단장은 "자체회비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매년 2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겠다"며 "포교사들은 불교포교를 위해 몸과 마음, 시간, 자금을 바칠 자세가 충분이 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포교사단은 12일 오전 10시부터 신규포교사 품수식및 포교사단 출범식을 갖는다. 김원우 기자

현 대 만 평 박구원



겨울잠 자고나면…

현대의학은 간경화, 전이된 암 환자들을 왜 효과도 없는 치료 술을 써서 죽음으로 내모는가?

제3의학 의단요법疑團療法은 간경화, 전이된 암 환자 분들을 공개 임상 치료에 초대합니다. 이 공개 임상 치료에 방송사, 언론사, 사회단체, 종합병원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공공단체가 참여하여 치료 사실을 공명정대하게 확인하여 알림으로써 현대의학이 포기한 불치병으로 축어 가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희망과 새 삶을 줍시다.

1. 현대의학의 허구성

(1) 현대의학을 한다는 의사, 약사들은 질병의 증상 자체만을 병으로 보고 그 증상을 제거하면 치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대증요법) 그리하여 질병부위를 잘라내고(수술), 항생제, 항암제 등의 약물을 쏟아 붓고는 최고 최선의 치료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2) 그러나 수술은 신체의 완전성을 근원적으로 파괴하는 행위이므로 완치될 수 없는 부작용이 따르고, 독한 약물은 인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적 면역력(저항력)을 철저히 파괴하여 오히려 환자의 몸을 전체적으로 빨리 죽게 만듭니다.

(3) 전이된 암, 간경화 등의 중병을 수술에 의하여 완치된 환자가 몇 명(또는 몇%)이나 되며, 항암제, 항생제를 가지고 치유된 환자는 또 몇 명 또는 몇%)나 됩니까? 항암제, 항생제를 투여함으로써 생명을 연장시켰다거나 반대로 항암제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환자가 빨리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4) 올바른 처료방법의 판단기준(척도)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또는 거의 대부분의)환자들이 누구나 완치되는 것만이 진정한 척도 일뿐입니다. 그렇치못하고 환자가 사망하는 치료방법은, 그것이 제 아무리 최고 최선의 현대의학에 의한 치료방법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치료자의 자기만족 내지 변명일 뿐 진정한 의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5) 현대의학을 하는 의사 약사들이 암, 간경화 등의 난치병에 대하여 수술과 독한 약물요법만으로 접근하여 의학적으로 최선의 치료를 하였다고하면서 환자를 죽게 만드는 것은, 그들의 무지함을 환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요, 세상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6) 그들은 암, 간경화 등을 난치병 내지 불치병이라고 하나, 그들의 치료방법이 잘못되어 그런것일뿐, 달리 접근하면 그러한 질병들은 만성질환에 불과하지 결코 난치병, 불치병이 아닙니다.

2. 완치를 책임지는 확실한 치료법 – 신의학 의단요법 新醫學 疑團療法

(1) 신의학 의단요법 치료원리 新醫學 疑團療法 治療原理

만성질환이 발병하는 신체적 근본원인은 호르몬 분비의 불균형이므로 그 불균형을 개선하여 주면 질병 자체가 소멸됩니다. 호르몬분비의 불균형이 생기는 원인은 생물적 목적의식 目的意識과 주관적 의식 主觀的意識 사이의 갈등 때문입니다. 유사한 이론으로 양의사분들이 성인병의 발병원인의 하나로 스트레스를 드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2) 신의학 의단요법 新醫學 疑團療法의 치료 대상 및 책임 보장 보상금

현대 의학상 치료 불가능한 병을 앓고 있으면서, 6개월 이상 자력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생존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진 만성질환의 환자로서, 6개월 이상 1년간 정기적으로 월 1회 의단요법疑團療法을 치료받은 환자 10명중 9명 이상 완치를 책임 보장합니다. 만약 치료 후 병원 검사 결과 현저한 호전이나 완치가 아니라는 판정이 나오면 치료비를 돌려 드림은 물론, 덧붙여 치료 지연 보상금 일천만원(1000만원)을 보상합니다.

(3) 신의학 의단요법 新醫學 疑團療法 의 치료 일정과 치료 효과

의단요법疑團療法의 치료 일정은 월 1회 6박7일 또는 3박 4일중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한다. 치료 효과는 누구나 7일 이내에 나타나며 탁월하고 경이로울 뿐 부작용은 조금도(1%) 없으며, 치료의 승패는 3회(2개월)치료로 환자의 치료 결과를 과정 해볼 수 있습니다. 효과의 예로써 간 경화 환자를 예시하면 합병증이 온 비대상성 환자는 정기적으로 투약을 해야 할 것이나 본 의단요법疑團療法은 첫 치료일 부터 투약을 끊게 하나 환자의 현상은 고통이 사라지고 합병증인 식욕부진, 복수, 황달 등등의 증상은 3회(2개월)치료로서 증후를 발견할 수 없으며 전문의사의 검진 결과 증상의 호전으로 이대로만 유지하시면 이제는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라는 소견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치료로서 외형적 현상으로는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완치로 오인을 함이 치료의 가장 큰 장애며 완치하는데 최대의 걸림돌입니다.

(4) 완치된 사람을 소개

종합병원에서 치료 불가 시한부환자라는 확진을 받고 죽음의 문턱에서 본인을 만나 의단요법 치료를 받고 완치된 사람중 10여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00 (女) (290101-2000829) (치매, 파킨스병)
2. 강00 (女) (330426-2268011) (전이된 자궁암말기 환자)
3. 조00 (女) (540308-2822514) (유방암 1cm의 혹)
4. 홍00 (女) (540707-2622129) (말기 간경화 간이식수술 접수))
5. 김00 (男) (800228-1109811) (만성신장병)
6. 황00 (女) (700921-2548011) (신경다발성경화증)
7. 신00 (女) (800308-2823015) (정신장애)
8. 강00 (男) (420310-1820921) (말기간경화, 당뇨 환자)
9. 정00 (男) (460902-1552523) (간경화, 간암 환자)
10. 서00 (男) (610830-1629725) (암 환자)
11. 장00 (女) (601005-2829118) (전이된 유방암 4cm 간에 1~2cm크기의 다수의 혹)

3.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할 차례입니다.

만성질환 치료에 최대의 적은 치료효과도 없는 기존의학지식의 노예가 된 전문 의사 약사라는 사실을 지면을 통하여 환자 분들에게 밝히고자 함이 있으며 치료란 모름지기 완치를 전제로한 치료방법만이 진정한 의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경화, 암 등 난치성 만성질환들은 의단요법疑團療法으로 볼 때는 난치병이 아닙니다. 환자 여러분들은 효과도 없는 기존의학에 자신의 생명의 시간을 착취당함을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길 권하는 바입니다.

http:// www.no3medical.co.kr ☎ 032-3478-119~8 / 011-559-8118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3동 400-3 동우 B/D 405호

新醫學 疑團療法 의단원 대표 理 農

목어

정치꾼의 망발

조선 식민지화는 세도정치로 상징되는 한국인의 차별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적서의 차별, 남녀의 차별, 가문의 차별 그리고 지역 차별 등의 온갖 차별은 '내 편이 남'이라는 좁은 마을 의식과 오랜 쇄국에서 넓은 시야를 잃고 눈앞의 이익을 찾는 퇴영성과 얽혀 있다. 먼 적보다는 가까운 이웃을 미워하는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보수성, 집단 이기주의적인 성향이다.

근대화는 작은 가문이나 지역의 이익보다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국가를 요청한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는 일찍이 국민국가를 형성한 나라가 그렇지 못한 민족을 식민지화하는 시기였다. 한국은 그 공식대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그간의 독재 정권은 지역 차별을 정권의 기반으로 삼아 왔으며, '우리가 남이가'식의 선동으로 타지역을 차별해 왔다.

식민지화, IMF 관리체제는 한결같이 한국인의 병적인 차별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며, 차별주의는 민족 반역자의 길이다.

최근(2월 24일) MBC TV토론에서 전 청와대 비서실장인 김광일씨는 "지역 정서를 존중하는 일이 곧 정치가의 의무"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는 것도 서러운데 마을, 고을마다 분열시키자는 것인가! 실제로 6·25 당시에는 이런 차별 의식이 동족상잔의 비극을 가중시켰었다.

우리는 해마다 3·1절 기념식을 거행하고 노래를 부른다. 그러나 명색이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지역 감정을 부추겨 자신의 입지를 얻고자 날뛴다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분단되어 지역마다 대립이 계속될 것이다. 1923년 동경 지방에 대지진이 발생하자 우리 동포 7000여명은 조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삽과 몽둥이 등으로 학살당했다. 물론 어느 특정 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었다.

최근 일본의 우경화가 두드러지고, 그 중 일부에서는 한국인의 분열적인 경향을 비웃고, 이를 조선 식민지화의 정당성의 근거로 삼고 있다. 우리는 민족분열이 얼마나 심각한 불행을 몰고 왔는지 다시 한번 뼈아프게 각성하고, 민족이 하나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김용운(한양대 명예교수·본지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논설고문 : 고 은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현대불교 www.buddhapia.com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구독료: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비지정 문화재 "서럽다"

관리방치 언제까지

'일반절도'로 분류
공소시효 5년뿐
"문화재법 개정절실"

도난당한 비지정문화재들을 쉽게 되찾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비지정 문화재 도난범에 대한 공소시효와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재 보호법상 국보나 보물 등으로 지정된 문화재는 그 소재가 확인만 되면 언제든지 돌려 받을 수 있지만,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일반 절도'로 분류돼 5년 정도의 공소시효가 지나면 되찾을 방법이 거의 없다.

지난 한해 동안 경북 광흥사, 전북 개암사, 경기 보광사, 충남 정혜사 등 조계종 산하 18개 사찰에서 비지정문화재 60여점을 도난당했다. 이 가운데 회수된 문화재는 2점에 불과하다. 도난당한 문화재의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 규정이 절실하다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례다.

차제에 법개정 전이라도 특례 규정이 마련되면 화랑가나 골동상 등으로 유통되는 불교문화재는 시기차만 있을 뿐 근본적으로 모두 장물임을 상기시킴으로써 성보 매매와 도난을 줄이는 방책의 하나가 될 것이다.

사실상 현행법은 지정 문화재 손상·절취·은닉 등에 처벌규정을 적용하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비지정 성보 도난을 방조하는 법으로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불교계는 비지정 문화재를 훔치는 문화재 사범들의 처벌 규정 마련을 관계 당국에 강력히 요청해 왔다. 지난해 9월경 문화재 보호법 개정이 한창 논의되고 있을 때, 조계종 총무원은 △비지정 문화재 보호를 위한 처벌 강화 △비지정 문화재 손상 은닉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을 문화재청에 요청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 절도법의 표적이 되고 있는 비지정 문화재의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포함되지 않았다. 불교계에서 숙원하고 있는 성보 도난 근절책이 반영되지 않은 채, 수많은 성보문화재의 도난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비지정 문화재를 보호할 수 없는 현행 문화재 보호법은 그야말로 '지정 문화재'에만 해당되는 '보호법'인 셈이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올해 법개정을 재추진해 이를 반영하겠다고 문화재청이 밝혀왔다"며 "법개정 재추진과 관련한 총무원의 입장을 조만간에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난해와 같은 '개악'을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지켜보면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외에도 비지정 문화재의 보호를 위해서는 관계 당국은 문화재 사건을 수사할 전담기관을 신설하고,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문화재 사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인재를 모으고, 조계 종단 차원에서는 성보를 잃고 신고하지 않은 사찰 주지를 엄하게 징계하는 등 다각적인 비지정 성보문화재 보호 방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오종욱 기자 (gobaocu@buddhapia.com)



◇조계종총무원은 청사에 도난 문화재 반환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한편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면대상자 참회 '선결과제'

'조계종 대사면 종헌개정 가능한가'

총무원이 종헌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중앙종회에서의 종헌 개정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종헌 개정은 종회의원 재적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개정 가능성을 속단하기 어렵다.

총무원의 종헌 개정안 제출 이후 종회의원들은 매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종회의원은 "정화회의에서 제기한 종회의원 자격상실확인 소송 등의 재판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태에서의 사면 실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 정화회의에서 총무원과 종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7건에 이른다.

정화회의는 이번 주 중 모임을 갖고 총무원의 종헌 개정안 제출에 대해 의견을 모은다는 방침이어서 사면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무원이 마련한 종헌개정안에 통합종단 이후의 종단 징계자를 사면 대상으로 하되 '참회 자숙하는 자'를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종회 개회 이전에 사면 대상자들의 '화답' 여부가 종헌 개정의 관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종헌 개정안 1.불기 2543년(1999) 10월 12일 제정, 공포된 해종행위조사 특별위원법등에 의한 징계자들에 대한 특별법에 의하여 행해진 징계의 경감 결정은 종헌 제23조, 36조6호, 54조9항, 56조1항10호, 125조, 12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종행위조사특위법 등에 의한 징계자들에 대한 특별법에 의하여 구성된 특별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확정된다.

2.불기 2544년(2000) 종단 화합과 분규 종식을 위하여 불기 2506년(1962) 통합종단 이후의 종단 징계자 중 참회 자숙하는 자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징계의 사면, 경감, 복권은 종헌 제128조의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3.다만, 위 1, 2의 경우에 있어서 멸빈자에 대하여는 다시 승적은 회복할 수 있지만 일체의 공직에 취임하는 복권은 허용하지 아니 한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불성·체험 바탕돼야 이해 정확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❽선어록 제대로 읽기



신규탁
연세대 철학과 부교수

선사들의 대화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이것이 문제다. 필자는 여기에서 하나의 방법을 제안해 본다. 우선 우리들의 일상 대화를 보자. 상대방이 평소에 사용하는 말투나 논리를 알고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보다 정확하게 서로의 의사를 주고받을 수 있다. 선사들의 대화도 마찬가지이다. 선사들이 쓰는 말투와 그들이 대화하는 방법을 미리 알게 되면 그들의 대화가 보다 정확하게 이해된다.

그러면 선사들의 대화에 나타나는 공통된 논법은 무엇인가?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진여연기론에 입각한 불성사상이고, 하나는 당사자의 직접적인 체험의 강조이다.

먼저 진여연기론에 입각한 불성사상을 보자. 모든 사람의 본성은 완전하고 온전하고 완성되었는데, 이런 본성이 번뇌와 욕심에 뒤덮여 제 기능을 못한다. 그런데 번뇌나 욕심은 실체(또는 자성)가 허망하기 때문에, 그 허망함을 자각하여 무심하게 그 본성에 내맡겨 그 본성을 따르면 그것이 깨달은 이의 삶이다. 선사들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선어록을 읽을 때에, 이 논법을 미리 갖아두면 선사들의 대화를 보다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다음으로 당사자의 직접 체험을 보자. 어느 선어록을 보더라도 깨달음이란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그것도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강조한다. "부처가 무엇입니까"라고 묻는 선객의 질문에, "호떡!"이라 대답한 조주선사의 말이 있다. 이 말은 호떡으로 상대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부처 내지는 깨달음의 문제는 남의 입을 통해 설명되는 것이 아니니, 입 닥치라는 호령이다. "서강에 흐르는 강물을 다 마시면 부처가 무엇인지 말해 주겠다"는 말도 역시 이것이다. 내가 대답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남의 설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사자의 직접적인 체험을 강조한다. 이런 대화는 선어록에는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다.

그러나 선어록의 이면에 깔린 논법을 이렇게 정리한 것은 어디까지나 필자의 독서 체험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독자 여러분들은 단지 필자의 체험을 참조할 뿐이지, 절대로 그냥 믿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체험만이 진실할 뿐이다. 부처의 체험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체험을 언어나 문자로 표현하여, 그 표현과 체험이 일치하는가를 늘 관조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자신의 수행이 제대로 되는지를 항상 검토해야 한다. 성철스님께서 평소 말씀하시던 동정일여, 오매일여, 몽중일여가 되는지를 스스로 점검하여, 자신의 화두수행을 점검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자, 그러면 지난 번 신문(259호)에서 선어록에는 속어나 구어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답은 이렇다. 탄광에서 석탄을 캐기 위해서는 여러 장비가 필요하듯, 선어록 읽는 데도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

선어록이 중세중국어로 기록되어 있는 문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선어록의 해석도 이런 언어의 역사성 속에서 진행해야 한다. 아무리 특수성이 강한 선어록이라도 중국 문헌의 흐름 속에서 나온 것이다. 선어록만의 독특한 언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선어록도 역시 당시의 언어 습관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 한 마디로 말해서 중국어를 잘 읽을 줄 알아야 한다.

필독 도서로 다음을 권한다. 太田辰夫씨의 〈中國語歷史文法〉(江南書院, 1957년 초판, 朋友書店, 1981년 재판), 〈中國歷代口語文〉(太田辰夫, 朋友書店, 1957년, 1982년 개정), 〈中國語史通考〉(太田辰夫, 白帝社, 1988년).

다음은 모르는 낱말 뜻을 찾기 위한 사전이 필요하다. 〈韓漢大字典〉(이상은 감수, 민중서관)과 〈中韓辭典〉(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을 우선 찾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더 정확한 것을 보기 위해서는 〈佩文韻府〉 및 〈經典釋詞〉의 성과에 힘입은 〈大漢和辭典〉(諸橋轍次, 大修館書店)이 좋다. 이와 더불어 최근 대륙에서 심혈을 기울여 간행한 〈漢語大詞典〉(상해출판사, 전 11권)과 〈漢語大字典〉(사천사서출판사 호북사서출판사, 전8권)이 아주 좋다.

그 다음에는 불교 사전이 있다. 교리에 관한 용어는 〈불교사전〉(이운허, 동국역경원)과 〈佛教語大辭典〉(中村元, 東京書籍), 〈佛敎辭典〉(中村 元의, 岩波書店)이 좋다. 선에 관한 것으로는 〈禪學大辭典〉(駒澤大學), 〈禪學辭典〉(일지,이철교,신규탁 공저, 불지사)이 있다.

구어와 속어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선 필요한 공구서는, 〈禪語辭典〉(古賀英彦, 思文閣出版), 〈禪宗著作詞語匯釋〉(袁賓, 강소고적출판사), 〈宋元語言詞典〉(龍潛庵, 상해사서출판사)이 있겠고, 신규탁의 〈중국선서의 번역을 위한 문헌학적 접근(2)〉'백련불교논집, 제2집'이 있다.

스님께서 직접 만든 새천년의 향

釋氏香方 五分香·生氣香

스님께서 직접 만든 새천년의 향

연말연시 특별 선물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향은 佛法僧 三寶에 올리는 최고의 공양으로 최고의 경지인 해탈을 뜻합니다.

특히 오분향은 『大般若經 卷四十九』에 나타나 있듯이 계향(戒香), 정향(定香), 혜향(慧香), 해탈향(解脫香),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을 말하며, 계향(戒香)은 계를 잘 지켜 나가는 향기, 정향(定香)은 선정으로써 탐진치 삼독을 벗어나 적정에 드는 향기, 혜향(慧香)은 명상력을 통한 지혜의 향기, 해탈향(解脫香)은 지혜의 통찰력인 慧를 통해 얻어지는 절대자유의 향기,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은 해탈을 통한 구별력과 사리판단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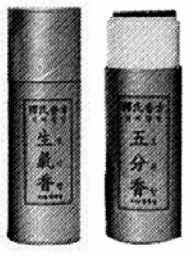
「華嚴經」 普賢行願品에 향의 열가지 효능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1. 정신적인 에너지를 충전시켜 준다.
2. 몸을 깨끗하게 해 준다
3. 몸의 따뜻하고 시원함을 조절해 준다.
4. 수명을 연장시켜 준다.
5. 얼굴빛을 돋보이게 해 준다.
6. 정신을 상쾌하게 해 준다.
7. 눈과 귀를 신선하게 해 준다.
8. 건강에 도움을 준다.
9. 사랑스러움을 북돋워 준다.
10. 품위를 높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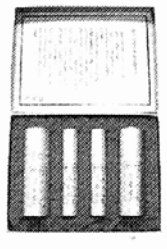
『華嚴經』 선재행선품 제4권 30에 선재동자는 五分香을 찾아나서는데 龍藏이란 향이 있으니 중생이 그 향기를 맡으면, 번뇌가 침노하지 못하고 이레 동안 기쁜 마음이 가득하고 몸과 뜻이 쾌락하며 편안한 생각이 나며, 모든 병이 소멸되고 여러 가지 번뇌와 근심걱정이 없어져서 마음이 깨끗하여진다. 그리고 계향·정향·혜향·해탈향을 얻어 해탈해지며 향을 얻어 삼막 삼보리를 얻을 것이라고 하였다.
오분향은 거룩한 향으로서 항상 중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육근청정하고 복덕이 구족하는 인연을 지어줍니다.

석씨향방은 순수한 한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
- 효능: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게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지신·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요마·귀신·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生氣香 …
- 효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 당뇨·중풍·폐·간·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관불의식, 관욕의식 (목욕 재개향) 있습니다.

♣오분향과 생기향을 만든 동기

향을 사루어 부처님께 공양올려 염불 수행 20년이라 그간에 이름모를 각가지 향을 접하였는데, 향을 피울때마다 머리가 아프고 눈이 맵고 기침이 나고 목이 따갑고 기관지 등에 이상이 생겨 매우 괴로워서 향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외국 향을 많이 사용함으로 엄청난 외화 낭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제자 소납은 우리 몸에 해롭지 않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향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여러 경전을 통하여 향 만드는 법을 알아서 연구하기 10여년 일생 소원이었던 부처님 최고 공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공 화학물질이 전혀 들지 않고 순수한 천연재료로만 만들었습니다.
향을 사랑하는 향기로운 여러분, 이제 안심하시고 향을 가까이 하십시오. 확 달라질 새천년의 향!
여기 우리 문화와 전통을 살리며 향을 전문으로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인정해준 석씨향방의 오분향과 생기향을 사용해 보십시오. 옛 선인들께서 왜 향을 가까이 했는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 불자님들, 삼보님께 그리고 존경하는 분께 향을 선물하세요.
가장 큰 공덕이 되실 것입니다.
위 상품 판매수익금중 일부는 삼화불교대학 교육기금으로 쓰여집니다.
※ 향꽂이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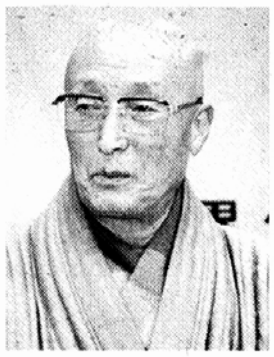
공급자: 석씨향방
판매처: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삼화불교대학內 혜인선원 사업부
원장 석가산 스님
전화번호: (02)3446-8148, (02)3446-5889
계좌번호: 국민은행 059-24-0341-970
농 협 071-02-257470
예 금 주: 김정순

※ 전화주문도 가능함 ※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

"지구촌 폭력·전쟁 사라졌으면…"

인류평화기원비 세우는 여래종 인왕 종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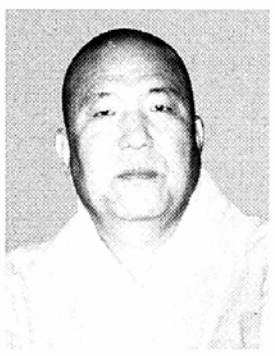
세계인류의 평화와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세계인류평화기원대비(大碑)' 제막식이 30일 정오에 충북 옥천 대약사사에서 거행된다. 대승불교 여래종 종정이며 세계불교승왕청 대표인 석인왕스님이 건립하는 이 비는 폭 120cm, 높이 240cm로 '靈鷲山峰竪和碑/三界導師臨是座/南北統一達歷歷/人類平和必到來(영취산 상봉에 인류평화비 세우니/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네/ 남북통일은 분명히 달성될 것이며/ 세계 인류평화가 반드시 도래하리라)' 라는 내용이 새겨진다.

"인류역사를 돌이켜보면 갈등과 싸움으로 점철돼 왔고 새 천년인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선 온갖 폭력과 살육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중생제도와 대중교화를 위해 이같은 현실을 깊이 통찰하고 온인류의 지상과제인 인류평화의 성취를 위해 일심단결 굳은 의지와 실천적 불사의 일환으로 세계인류평화기원대비를 세우고 자비보살수계대법회를 함께 봉행하고자 합니다."모든 불자들과 한마음으로 평화기원비를 건립한다는 인왕스님은 앞으로 남북통일이 될 때까지 인류평화와 통일에 대한 간절한 기원이 들어간 비를 더 건립하겠다고 원력을 밝힌다.

이번 제막식 및 수계대법회는 한국불교 조계종 종정 정암스님이 대회장을, 전국신도단체협 감용직 회장이 봉행위원장으로 법회를 주관하며 교계 지도자들과 신도 등 3천여명이 동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02)837-2003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제주불교 역사교육장 만들터"

법화사지 학술대회 연 시몽스님



"법화사는 해상왕 장보고가 뭍에서부터 170㎞ 떨어진 제주도에 창건한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법화사의 존재는 제주도가 단순히 말만 길렀던 곳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곳이란 걸 증명해 주지요. 그래서 신해양시대를 맞아 국제 자유도시가 건설되는 제주도로 볼 때 법화사지의 복원은 큰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2월 26일 제주 그랜드호텔에서 법화사복원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제2회 법화사지 학술대회'를 개최한 법화사 주지 시몽스님은 2004년까지 극락전과 선원, 문루 등 13개 동의 당우를 복원해 제주 불교의 역사교육장으로 만들겠다고 법화사지 복원 계획을 밝혔다.

20년전 시몽스님이 법화사에 처음 왔을때는 요사채를 제외하고는 건물이라곤 찾아 볼 수 없는 잡초만이 무성한 벌판이었다.

"처음에는 농사나 지으면서 신도들의 도움없이 자급자족하며 수행정진에만 전념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생활하다 보니 점점 역사의 격동기에 처할 때마다 중심부에 있던 법화사의 역사적 규명만이 제주 불교의 위상을 높이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82년부터 본격적인 복원 작업에 착수한 스님은 올해 법화사지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와 서귀포시로부터 10억원을 지원 받았으며 내년에도 20억원의 예산을 신청해 놓고 있다.

"빠르면 2~3년 안에 불자들이 제주도에 와서 법화사의 원형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시몽스님은 "2002년도에 발굴된 사적을 중심으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일주문

비룡스님 49재 봉행



현해 월정사 주지는 16일 제주 천왕사에서 지난 1월 28일 입적한 조실 비룡스님의 49재를 봉행한다.

보육원에 내의·음료 전달



자우 금강사 주지는 2월28일 관음회원들과 함께 경기도 시흥 혜명보육원을 방문, 원생들에게 내의, 양말, 떡과 음료수 등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아산 사암련 회장에 선출



만성 아산 수암사 주지는 최근 열린 아산불교사암연합회 정기 총회에서 제5대 회장에 선출됐다.

불교 교양대학 개설

초격 서울 강남구 광명선원 원장스님은 8일부터 7월4일까지 4개월간 매주 수·금요일 오전 11시~12시30분 불교교양대학을 개설해 운영한다. (02)584-1108



성동경찰서 경승실 개원



상덕 정수암 주지는 14일 오전 9시 성동경찰서 5층 강당에서 경승실 개원법회를 거행한다.

'반야심경' 출판기념회



정병조 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은 11일 오후 1시 서울 롯데호텔 36층 벨르뷰실에서 '깨달음의 열쇠 〈반야심경〉' 출판기념회를 연다.

'문명전환기의 통일' 특강

박노해 시인은 10일 저녁 7시 30분 정토회관 3층 강당에서 '문명의 전환기에서 바라본 통일'에 대해 강의한다. (02) 587-8996

공군참모총장 불자 이억수 대장



이억수(57, 공사 14기)공군참모차장은 3일 대장으로 진급함과 동시에 박춘택 공군참모총장 후임으로 제26대 공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

F-5를 주기종으로 한 3천621시간 비행기록 보유자이자 최정예 조종사로 구성된 블랙이글팀에 선발된 베테랑으로 정보, 작전, 전략 전반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독실한 불교신자로 부인 남계순(南桂順,55)씨와의 사이에 2남.

청소년수련시설 협회장 추대



선진규 전국신도회장은 2월26일 한국일보사 송현클럽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자 협회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재추대됐다.

동산반야회 사무처장에

임선학씨는 지난 1일 동산반야회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임씨는 최근까지 서울시 사무관으로 근무하다 명예퇴직했다.



'자비의 쌀' 보시

3·1절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종로에서 펼쳐진 '사랑의 좀도리운동'에 조계사 신도들이 발우를 들고 동참했다.

조계사 스님과 신도 200여명은 지난 1일 대웅전 앞에 설치된 자비의 쌀독에 모아진 쌀을 발우에 나눠담고 조계사를 출발, 종로2가까지 행진해 YMCA 건물앞에 설치된 '사랑의 좀도리 나누기 독'에 쌀을 보시했다.

이날 행진에는 어린이와 80이 넘는 보살들도 발우를 들고 동참해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통일 불교수화 교재 절실"

대학에 '수화바람' 일으키는 강주수씨



'불교수화(手話)'하면 교계에서 첫손가락에 꼽히는 사람 강주수씨(45). 그를 아는 농아인들은 그를 만날 때마다 오른손 새끼 손가락을 펴 위로 올린다. '누나' 혹은 '언니'라는 뜻이다. 농아인들의 이런 표현은 그가 20년을 한결같이 그들을 지켜왔음을 웅변으로 말해준다.

그런 강씨가 최근 부산지역 대학가에 수화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96년 동서대학에서 '수화와 생활' 강좌를 맡아오다 올해부터는 춘해대학과 만해대학에서 개설한 수화강좌를 잇달아 맡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학 강좌를 맡으면서 강씨에게는 또다른 고민이 생겼다. 불교수화를 마음껏 가르칠 수 없어서다. 통일된 안(案)이 없는 불교수화를 학생들에게 강의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교재로 선택은 못했지만 부분적으로 불교수화에 대한 언급은 꼭 할 생각입니다. 지금 교계에서는 잘못 쓰여지고 있는 수화가 많은데, 이것은 농아인의 정서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자 농아인들이 불교를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통일된 불교수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한명우 기자



승가원 소년가장 에버랜드 초청행사

승가원(이사장 현성)은 2월25일 서울 성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소년소녀 가장 90명을 대상으로 용인 에버랜드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성북구청을 비롯해 진각복지회, 길음·월곡·정릉복지관과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등이 후원했으며, 참가 장애인 및 소년소녀 가장은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불국사 영산회 무료급식소에 성금

경주 불국사 영산회(회장 김춘자) 회원 60명은 2월29일 조계사를 방문하고, 조계종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에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영산회 회장 김춘자씨는 "아직도 끼니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회원들이 뜻을 모으게 됐다"고 말했다.



대구신행련 박운식 회장 취임

대구불교신행단체연합회는 2월 27일 오후 3시 영남불교대학 관음사에서 제2대 회장단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초대 유상종 회장에 이어 박운식씨(거사림회 부회장)가 2대회장에 취임했다. 박운식 회장은 "탄탄한 신행단체연합회를 꾸려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국토사회연 '어린이한자' 출판회

불국토사회연구소(소장 혜총)는 2월26일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어린이한자〉 출판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고문 정관스님,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회장 덕진스님, 불국토사회연구소장 혜총 스님을 비롯 어린이법회 지도교사 2백여명이 동참했다.

불교방송 자비의 전화 진행자 혜거스님의 불교교리강좌 개강

◎ 강의일시 :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3개월간
◎ 교육장소 : 금강선원
◎ 개강일시 : 2000년 3월 8일(수) 오전 10:30
◎ 회 비 : 3개월에 6만원(교재비 별도)

불교방송 자비의 전화 진행자 혜거스님의 『능엄경』강좌 개강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오후 1:30 4개월간
◎ 교육장소 : 금강선원
◎ 개강일시 : 2000년 3월 7일(화) 오후 1:30
◎ 회 비 : 4개월에 10만원(교재비 포함)

☎ 02) 445-8484
서울 강남구 개포동 5단지 186-3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선원

公 告

제3기 정기 중앙 종회 소집 통보

본종 제3회 중앙 정기종회를 종헌 제27조 및 종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중앙 정기종회를 소집하오니 종회의원 스님들께서는 무루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양력 2000년 3월 16일 (음력 2월 11일 목요일 10시 30분)
■ 장 소 : 무량종 총무원 : 무량정사
서울시 종로구 홍지동 76-2 ☎ 02) 3216-1600

〈 안 건 〉
1. 종정 추대건 (宗正 推戴件)
2. 종헌 종법 개정건 (宗憲 宗法 改正件)
3. 2000년도 추가 예산 심의건

2000년 3월 2일

대한불교 무량종 중앙종회 의장 정혜안

"거사회 활로는 사회봉사"

수원포교당 토론회서 제기

"친목 · 교리공부 한계 벗어나 환경운동 등 대승사상 실천"



◇수원포교당 거사회 토론회에서 진철회 회장(수원포교당거사회)은 "거사불자들의 참된 신행심 고취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성신도에 비해 소수인 거사회의 활동이 단순한 친목 · 교리공부에서 한걸음 나아가 자원봉사 환경운동 등 대사회적인 측면에까지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교신자의 대다수를 이루는 여성신도들 틈바구니에서 간신히 맥을 이어오는 거사들의 활동은 어떠해야 할지 역할과 방향을 모색해 보는 토론회가 마련돼 주목을 끌었다.

수원포교당 거사회가 창립 13주년을 맞아 개최한 '수원포교당 거사회 창립 13주년 · 선남자 창간 1주년 기념 거사회발전토론회'에서 권중서 포교부장(수원포교당 거사회)은 "수원포교당 거사회는 13년 간의 활동 경험을 토대로 자체적인 교리공부와 신행에만 활동을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대사회적인 봉사를 통해 부처님 말씀을 널리 알리는 일에 주력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행활동 뿐만 아니라 불교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대사회적인 측면으로 눈을 돌림으로써 거사불자들의 운신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하게 친목을 도모하고 교리 공부를 해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자원봉사와 환경운동 등도 실행대상으로 다가왔다. 여성불자들에 비해 거사불자들은 신행조직 및 활동, 자원봉사 등에 취약한 면모를 보여왔다. 그러나 수원포교당 거사회와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등 창립한지 10년 이상되는 거사회들이 하나 둘 늘어나면서 거사회의 활동이 대사회적인 봉사 등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매주 이뤄지는 법회의 실용성 문제도 제기됐다. 수원포교당 거사회의 둘째넷째주 경전강좌의 경우 2~3년 간 지속돼 지루함을 느껴, 현행 강좌의 진행속도를 높여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하는 등 성취감을 주어야 한다는 것. 이같은 문제점은 수원포교당 거사회만 가진 문제는 아니다. 유홍근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총무는 "난해한 교리강좌보다는 불교적인 사회봉사활동 등과 같은 좀더 생활불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좀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법회가 꾸려져야 거사회의 재원조달방법 고찰, 거사회원 모집 및 관리 방안의 개혁 등도 뒤따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거사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법회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신행법요집이다. 기존의 법요집들이 사찰마다 다른 형식을 취하고 거사회의 경우 초청법사스님에 따라 달라지는 등 혼란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최소한 한 모임에서는 한가지 방식을 정착시켜 법회운영의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선각스님(수원포교당 도감)은 자기성찰을 통한 자각과 그에 따른 증득된 과정, 실천을 통한 신행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불교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논산훈련소 훈련장병 1천5백명 수계법회

불교 어머니회 주최

불교어머니회(회장 김반야성)는 2월27일 논산훈련소 법당에서 장병 3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육군훈련소 훈련장병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서는 자광스님(용인선원)을 계사로 장병 1천5백명이 오계 수지를 다짐하고 수계를 받았다. 계첩은 포켓용으로 제작된 수계증으로 지급되는데 수계 후 일주일 안에 훈련소로 보내고 퇴소한 장병들은 집으로 보내준다.

불교어머니회는 앞으로 군장병 포교를 활성화해 수계를 받는 불자 확대에 노력하고 내실있는 포교활동을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군포교가 대사회적으로는 가정에서의 종교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것이란게 불교어머니회의 활동 목표이다. 017-205-9292

일터에서 쓰는 마음의 편지



조 양 자
〈예담 꽃꽂이중앙회장〉

부처님전에 꽃을 올리기 전 먼저 삼배를 올린다. 이 꽃으로 불전을 장엄함으로써 부처님의 성전이 더욱 밝고 경건하며 성스러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꽃꽂이가 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또한 이 꽃으로 장엄됨으로써 부처님께 올리는 스님과 불자들의 기도가 더욱 원만하고 환희심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들어있다.

불교와 꽃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룸비니에서 꽃에 둘러싸여 탄생하셨고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실 때는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사라쌍수에서 때아닌 꽃이 피어 만개했다가 후두둑 떨어져 부처님을 덮었다고 한다. 설법하실 때마다 하늘에서는 꽃비(花雨)가 내렸다. '영화미소' 라는 말을 대할 때마다 수많은 대중들이 모여있는 영산회상에서 부처님께서 한송이 연꽃을 들어보이는 모습, 다들 어리둥절해 하는데 마하가섭 존자만이 홀로 미소를 짓는 장면이 마치 영화처럼 떠오른다.



부처님께 올리는 여섯가지 공양물중 으뜸이 꽃공양이다. 불교전성기에 생화를 따라 곱고 아름다운 꽃으로 꽃공양을 한다면 꽃는 사람은 꽃으면서 즐겁고, 보는 사람은 보면서 기쁨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으니 꽃공양이 얼마나 큰 공덕인가.

불전공화는 상단(영산회상단)은 상단에 맞게 중후하고 화려하게, 신중단은 중단대로의 크기와 모양을 갖추고, 하단(영가단)은 그윽하게 마음이 가 닿는 모습 그대로 단아하고 깨끗하게 가려서 꽂는 것이 여법한 꽃공양이다. 이와같이 불전공화는 이론과 실기가 여법하게 겸할 수 있어야만 이 완전하게 된다. 꽃은 화려하고 많이 꽂아야만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때와 장소에 맞게 꽂는다면 보다 더 절제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장소에 따라서는 한 두 송이만 꽂아도 아름다울 수 있다. 불자들이 배우고자 하는 적극성과 함께 발전하고자 하는 마음가짐만 있다면 내 능력이 닿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다.

나에게서 꽃꽂이를 배운 사람들이 각각 절에 가 법당을 아름답게 장엄해 놓으면 아름답게 꽃공양 올려진 부처님전에 참배온 사람들이 더욱 부처님의 법력과 가피를 느껴 참회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이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것이다.

아름다움의 대명사 꽃, 꽃을 보고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아름답게 하고 꽃처럼 향기를 지닌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다. 아무리 겉모양을 화려하고 비싼 것으로 치장해도 내면이 아름답지 못하면 그 본색이 곧 드러난다. 만날수록 빛나는 마음다움과 은은한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부처님의 길을 따르는 불자들이 앞장서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사회를 밝고 향기롭게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꽃공양 통해 마음의 평화를…"

공양하던 것이 꽃꽂이의 근원이 됐다고 한다.

꽃꽂이회를 이끌면서 부처님전에 꽃공양을 올리고 싶어도 그 방법을 찾지 못하는 불자들을 도와주고, 크고 작은 모든 사찰의 법당에 꽃공양이 여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불전공화(佛前供花)할 장학생을 모집하여 무료로 가르친 것이 이제 4기를 맞는다. 일주일에 하루를 할애하여 내가 보시할 수 있는 방법인 꽃예술을, 원력이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회향하고픈 마음에서 꽃꽂이를 가르치기에 그들이 잘 배워서 여법하게 불전을 장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소극적인 방법인 나만의 기도에서 보다 나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외면 내지는 방관하고 있지나 않은지 불자들은 반성해 볼 일이다. 나 하나의 힘보다는 두 사람이, 두사람 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의 힘이 같이 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법당은 언제나 꽃으로 환하게 꾸며질 수 있고, 그 꽃을 보는 사람들의 신심을 더욱 고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절기 따라 재일(탄생, 성도, 열반, 우란분절 등)

글꼴 평이하게…크기 자유롭게

홈페이지 만들기 ⑤

작업한 문서 'test1'을 불러온다. '환영' 글자의 크기를 바꿔보자. 우선 환영을 블록으로 설정한다.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하면 블록이 설정된다. 서식도구막대에 있는 '글꼴 바꾸기' 목록 버튼을 눌러 원하는 글꼴을 선택한다.〈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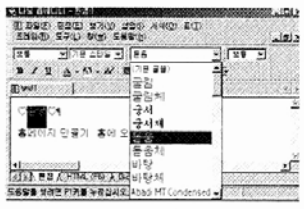
'환영'의 글꼴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아래 문단도 블록 설정한 후 글꼴을 바꾼다.

예쁜 글꼴로 꾸미고 싶다면 윈도우 제어판의 글꼴에서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다. 글꼴 파일은 인터넷이나 PC통신에서 구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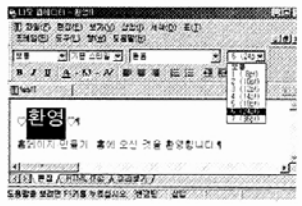
이번엔 글자크기를 조절해 보자. '환영'을 블록설정하고 서식도구막대에 있는 글자크기바꾸기 목록 버튼을 눌러 '6(24pt)'를 선택한다. 글자가 커진 것을 알 수 있다.〈그림2〉

글자크기를 표시하는 PT는 포인트(point)의 약자이다. 24PT는 글자크기가 24포인트라는 말이다.

다음 문단을 블록 설정한 후 '서식' 메뉴의 '글자' 안의 '크기 늘리기'를 누른다. 블록 안에 글꼴이 한 단계 커져있음을 알 수 있다. 똑같은 방법으로 '크기 줄이기'를 누르면 글꼴이 한단계 작아져 있다. 그러나 웹 상에서 특이한 글꼴은 깨지기 쉬우니 평이한 글꼴을 선택하는 것이 홈페이지를 더 깔끔하게 꾸밀 수 있는 비결이다.



◇그림〈1〉



◇그림〈2〉

수원지역 거사모임 '마하연' 창립

수원지역 내 거사들의 모임인 '마하연'이 1일 경기불교회관(관장 김태제)에서 창립됐다.〈사진〉

30여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창립식을 가진 마하연은 앞으로 4백여명에 달하는 수원을 중심으로한 경기도 지역 거사들을 회원으로 끌어들여 신행활동을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경기불교회관 거사회 마하연(준비위원장 유원근)은 신행과 불교혁신 사회운동을 겸비한 단체로 활동할 계획이다. 빠른 시일 내에 총회를 개최하고 회장단도 결정지을 예정이다. 마하연은 창립 전부터 51사단 군법당 지원을 하는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유원근 준비위원장은 "불교계에는 조로현상이 심해져서 청년회에서 활동하던 거사들이 30대 초반만 넘기면 활동할 곳이 없었다"며 "이런 거사들이 모이면 불교계의 커다란 힘이 될 것같아 모임을 만들었다"고 창립 취지를 밝혔다. (0331)225-8471 강지연 기자



클릭! 새 홈 페이지

■법화경 수행 교육원-진제암(http://saddharma.com.ne.kr)-법화경 수행안내 및 학인 모집안내, 법화삼부경 교양강좌

■불교미술전시관(http://buddha.co.kr)-불교미술전시관, 30년 전통 불사의 전당, 1978년 4월 개관, 불교인 장애자 기술 교육원 설립, 개관 이래 주최, 주관한 불상 및 공사 다수

■김대규와 임재남의 홈(http://kimandlim.pe.kr)-청소년들의 우리문화의 이해, 특히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사학습을 도우며 서로 교감하는 장.

■강태용의 Buddhism Academy(http://www.educasting.co.kr/db/default.htm)-동국대 불교학과 휴학생인 김태용의 홈페이지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체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이버 불교대학.

■자비의 맘으로(http://cafe.daum.net/ybh5972)-2월13일 개설. 용인 불교 학생회 홈페이지. 학생회에 대해 재밌는 이야기나 관련 자료를 받고 있다.

홈페이지를 개설한 불자님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2)722-4162 jygang@buddhapia.com

心출가 체험정진법회

출가란 중생의 번뇌망상을 끊음이요, 깨달음을 향한 출발이며, 인생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재가불자의 출가는 『心출가』이며, 이는 자신의 내면세계에 대한 혁명이어야 합니다.
『心출가』 동참자는 새벽예불 참석, 오계 지키기, 오후 불식, 발우공양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기 간: 출가재일(음력 2/8)에서 열반재일(음력 2/15)까지 3월 13일(월) ~ 3월 20일(월) ※ 사시에 입재
◆지도법사: 부주지(동일)스님
◆오전반(새벽, 사시정진에 참여), 오후반(새벽, 저녁정진에 참여)
◆동 참 금: 7만원(교재 및 성지순례비 포함)
◆회향일(열반재일)에 봉암사로 성지순례를 갑니다.

정진시간표

새벽의 정진	05:00~05:15 새벽예불
	05:15~05:45 참선
	05:45~06:00 108참회
사시정진	10:00~11:00 『육조단경』강의
	11:00~11:15 108참회
	11:15~11:50 참선
	12:00~12:30 발우공양
저녁정진	08:00~09:00 『육조단경』강의
	09:00~09:05 108참회
	09:20~09:50 참선
	09:50~10:00 자자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정사
(광명시 하안사거리 삼전빌딩 8층)
◐문의 : 893-2700-1
◐http://kkjS.withyou.net
※ 종무소에 근무할 신심있는 분 (애기보살님)을 찾습니다.

신비의 기도처

육지속의 섬 국내유일의 영험도량
금수산 천진사
삼천배 정진 기도 동참안내

일 시
· 매월 2째주 토요일 저녁 8시 - 새벽 5시 (철야정진)

위 치
· 축북 단양 금수산 (단양팔경 구단봉 맞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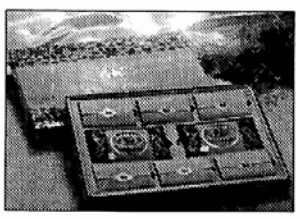
교 통 편
· 서울(동서울) ~ 단양 매시 고속버스 정시운행
· 단양 - 천진사 셔틀버스 운행
※ 참가하실 분은 전화 연락 바랍니다.

문 의 0444) 423-2083
011) 786-9379

※ 4째주 토요일 9시 - 12까지
대다라니 주력기도 합니다.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항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악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 · 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개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목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 ·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사 설

출가정신 회복하자

싯다르타태자의 출가가 없었다면 불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를 미루어 생각할 때 출가재일은 불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출가하는 의미는 무엇이며, 출가하여 스님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부처님의 말씀과 과거 큰 스님들의 말씀을 상기해 보라. 〈사십이장경〉의 제42장에서는 "나는 왕자의 지위를 문틈에 비치는 먼지처럼 보고, 금이나 옥 같은 보배를 깨어진 기왓장처럼 보며, 비단옷을 헌 누더기 같이 보고 삼천 대천 세계는 한 알의 겨자씨 같이 본다. 열반을 조석으로 깨어 있는 것과 같이 보고, 평등을 하나의 참다운 경지로 보며, 교화하는 일은 사철로 푸른 나무와 같이 본다" 라고 하셨다.

경허스님은 〈중노릇 하는 법〉에서 "잘 먹고 잘 입기 위하여 중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되어 살고 죽는 것을 면하고저 하는 것이니 부처되려면 내 몸에 있는 내 마음을 찾아 보아야 한다" 라고 하셨다.

불자들이여! 부처님을 뭘 믿고, 출가는 왜 했는지, 의심하고 탐구해 보자. 출가는 모든 것을 버린다는 의미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출가정신, 경허스님께서 말씀하신 출가의 의미를 부처님의 출가절을 맞아 마음에 되새겨 보자.

현재 우리 승가는 어떤 정신에서 수행하고 교화사업을 펼치고 있는가. 물론 선방에서 피나는 정진을 하거나, 시중에서 포교·복지 사업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는 스님들이 있는 반면, 명리에 탐닉하여 승려로서 품위를 손상, 사회의 빈축을 사고 국민의 원성을 사 그 영향으로 불교 신도가 격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인·천(人天)의 스승이 되어 '삼계(三界)의 대도사(大道師)'가 되실 출가자는 출가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지켜 흐트러진 청정승가의 위상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에 각 종단은 지금부터라도 출가하는 행자, 사미(니) 등의 승가 교육을 엄격한 규율 속에서 철저히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기성 승려는 불종자(佛種子)의 배양을 위해 미래의 교단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재가신도도 청정승가를 존중하고 공양·공경하는 신앙 형태를 정립할 때 한국불교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다.

재가자의 종단참여

열반 전 부처님은 출가인들에게 당신의 장례는 재가자들이 치를 것이니 오직 수행에 전념할 것을 당부하셨다. 이는 사부대중의 구성원들이 각각 어떤 본분을 지니고 있는가를 밝혀 주신 엄한 부촉이다.

물론 시대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부처님의 부촉이 문자 그대로 지켜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 근본 정신만은 사부대중의 구성 원리로 엄하게 지켜져야만 한다. 스님들이 지나치게 세속적인 일에 간여하게 되면 출가 승단의 청정성은 지켜지기 힘들게 마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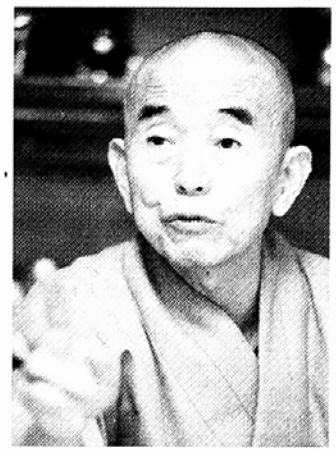
출가 승단의 권위를 위해서도 출가자들에게 계속 오욕의 멍에를 지우는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조계종 종단은 요즈음 재가단체들에서 재가자들의 종단 참여 요구를 어떤 형식으로든 수용할 필요가 있다. 재가자들의 역량을 사찰 운영과 종단 운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틀을 갖추어야 사부대중 각각의 위상이 바로 서며, 출가 승단 본연의 존엄성도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불교가 제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라는 인식으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인 것이다.

한편으로 재가자들은 출가 승단에 대하여, 감 떨어지기를 기대하듯 자신들이 설자리만 요구하는 소극적 태도를 벗어나, 진정한 재가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전향적 자세를 지녀야 한다. 사찰이나 스님께 시주를 바치는 것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생각하는 많은 재가불자들의 의식이 고쳐지지 않으면, 진정으로 재가자들이 역할을 할 자리는 마련되지 않는다. 재가자 나름으로 재원을 모으고, 그것을 공적으로 운영하여 출가 승단의 외호 역할을 다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참다운 불사를 스스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 출가자 못지 않게 재가자들도 부처님의 엄한 부촉을 저버렸다는 반성으로 제자리 찾기 운동을 전개하여, 출가 승단과 함께 불법을 받치는 기둥으로 바로 서야 한다.

문자의 死句 의지한 알음알이 표면적 폐단만 보고 진리왜곡

특별기고 김용옥씨의 '나는 불교를 이렇게 본다'를 반박함

EBS TV '노자와 21세기' 강의를 통해 동양학 열기를 불러일으킨 김용옥씨의 불교관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동국대 역경원 역경위원 변상섭씨가 〈김용옥선생, 그건 아니올시다〉를 통해 김용옥씨의 불교관을 조목조목 짚어 잘못을 지적한 데(본지 260호 7면) 이어 서울봉천동 임제선원장 종성스님이 김씨의 〈나는 불교를 이렇게 본다〉에서 밝힌 불교관을 비판하는 글을 본지에 보내왔다. 종성스님의 글을 게재하며 김용옥씨는 물론 독자들의 의견이 있기를 기대한다. 〈편집자〉



종성스님
임제선원 원장

동양철학을 연구하는 도올 김용욱씨(이하 '씨'로 약칭함)는 그의 저서 〈나는 불교를 이렇게 본다〉에서 우리 불교 집안 문제에 대하여 너무 가혹하리만치 특유의 험구악담과 안하무인격의 언사로 비판을 주저치 않았다. 그러한 비판이 아무리 적절하다고 해도 삼가하는 것이 있어야 할진대, 하물며 지말적(枝末的)·표면적(表面的) 폐단만을 보고서 모르는 진리의 본질까지 외람되게 용훼(容喙)를 불사(不辭)한다는 것은 논지의 정곡(正鵠)을 잃은 씨의 중대한 과오라고 생각한다.

우리 선가(禪家)에서는 만 번 말하여도 만 번 지당해도 한 번 침묵함만 같지 못하다 했으므로 이러한 중대한 문제라도 묵빈대처하는 것이 수행자의 미덕일 것이다. 그러나 북을 두드리니 울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나같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을 외람되게 생각하는 바이다.

김씨의 〈나는 불교를…〉의 내용이 어디까지나 퇴옹(退翁) 성철(性徹) 큰스님의 선법문(禪法門)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략 선교(禪敎)의 차이점을 말하여 간단히 씨의 선(禪)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지적하고자 한다.

씨의 글에 의하면 6·29 선언 이전 시국이 시끄러울 때 퇴옹 성철 큰스님의 불탄 법어가 나오게 되어, 그 법어 내용이 기괴코 모씨를 두둔하는 내용이라고 얼토당토 않은 우김수를 부렸지만 참으로 그런 생트집은 말이 아닌 소리이다.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요.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울긋불긋 아름다운 꽃동산에 앉아서 무엇을 그다지도 슬퍼하는가? 벌나비 춤을 추니 함께 같이 노래하며 춤을 추세!"[이 법어 이전에도 거의 이런 내용으로 국·한문(國·漢文) 법어(法語)가 많이 있다]

인용한 이 법어는 만중생이 공청(共聽)할 직지단제(直指單提)의 격외조사선(格外祖師禪)의 본지풍광(本地風光)이다. 그런데 아주 천박한 알음알이 불교지식으로써 큰스님의 법어가 그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졌느니 어쩌니 하는 말들은 씨의 자신을 위하여 해서는 안 될 말이다. 여기서 씨의 모든 그릇됨과 선을 알지 못하는 허점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무릇 "교가(敎家)의 무애(無碍)의 법(法)이 바야흐로 일미(一味)의 경지에 돌아가나 이 일미의 적(跡)을 떨쳐 없애 버려야 바야흐로 선가(禪家)의 일심법(一心法)에 들어가는 것이니, 그러므로 무진(無盡)한 성해(性海)가 일미(一味)와 상합(相合)하는 것이요, 일미가 서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선(禪)이다." 이렇게 선과 교는 그 견해가 천지현격(天地懸隔)인 것이며, 조사선(祖師禪)의 경지에서는 일체화두(一切話頭)도 지월지(指月指)이며 방(棒)과 할(喝)도 헛개비일 수 있는 것이니 하물며 씨의 여러 가지 횡설수설한 것으로 보면 교가(敎家)의 지해선(知解禪)도 못되는 것이다.

성철스님 격외법문 엉터리 해석과 비방 얼토당토 않은 우김수

큰스님의 이 법어야 말로 참으로 오매일여(寤寐一如)·사중득활(死中得活)의 몇몇 경지를 뒤집어 넘어서 살활(殺活)·명암(明暗)이 무애자재한 입장으로, 다시 말하여 부처도 없고 조사도 없는 무수무증(無修無證)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들이다. 양심이 있고 큰 학자라면 자기가 손댈 수 없는 경지와 분야는 겸손하고 하심하여 모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점잖고 분수를 헤아리는 일인가.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일본의 대 불교학자 우이하꾸주(宇井伯壽)와 나까무라 하지메(中村元)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나까무라 하지메는 그의 저서 〈동양인의 사유방법〉이라는 책에서 선종(禪宗)의 화두(話頭)인 마삼근(麻三斤:삼서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 바가 있다. 자연현상은 모든 것이 절대이어서 부처님도 절대이고 마삼근도 절대이다. 그래서 부처님을 물었는데 마삼근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단언을 해버렸으나, 그 화두는 천만에도 그런 식의 답변으로는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스승 우이하꾸주는 그렇지 않았다. "나는 선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으니 이것이 학자적인 양심이다. 자기는 안 깨쳤으니까, 자기는 문자승(文字僧)이니까 선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만 기록했지 선법문(禪法門)·선리(禪理)에 대해서는 절대로 말도 하지 않고 평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로 말하면 너무도 유명한 인도철학의 권위자요, 심지어는 여러 권의 선종사까지 쓰고 수행도 많이 하여 선에서도 일가견이 있는 분으로 자부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선에는 입을 다문 것이다. 이로 비추어 볼 때에 씨의 큰스님 격외법문에 대한 엉터리 해석과 비방이야말로 얼마나 위험한 수작이라는 것은 불문가지의 일이다. 우선 무엇보다도 우이(宇井)씨의 학자다운 양심과 대가풍(大家風)에 큰절하고 배우기 바란다.

아무리 행방하할(行棒下喝)이 아까웁다 하더라도 씨는 또 두들겨 맞들 수밖에 없다. 황벽(黃檗)의 삼십통방(三十痛棒) 아래서 임제(臨濟)가 나오고, 운문(雲門)은 진존숙(陳尊宿)으로부터 다리가 부러지는 극한적 봉변을 당하는 찰나에 대사(大事)를 일시(一時)에 확연히 밝혔었다. 씨를 위하여 이러한 고조(古祖)들의 득도담(得道談)까지 예시하기는 안할 말로 참으로 아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한 말이니, 이 두들겨 맞고 다리 부러진 소식을 씨는 참으로 배워야 한다.

그러면 선가(禪家)에서 실참실구(實參實究)의 공부과정을 어떻게 거쳐서 구경각(究竟覺)을 성취하는지 대략 말해보기로 한다. 첫째 동정일여(動靜一如)이다. 움직이나 고요하나 간에 간단(間斷)없이 성성(惺惺)한 마음주체가 흩어지지 아니하여 한결같은 경지가 공부의 첫 단계이다. 둘째 몽중일여(夢中一如)이다. 몽중(夢中)에도 마음이 일여(一如)하여 망실(忘失)되지 않는 경지이다. 대종장(大宗匠) 대혜(大慧)같은 이도 처음에는 이런 경지는 망설(妄說)이라 하여 믿지 않았으나, 후일에 다시 공부하여 기필코 성취한 것이다. 셋째, 숙면일여(熟眠一如)이다. 몽중일여(夢中一如)의 경지에서 진일보(進一步)하여 잠이 꽉 들어서 평시의 의식작용이나 꿈까지도 없어져버린 그곳에서 그 소소영영(昭昭靈靈)한 주인공이 어디로 갔는가? 선문(禪門)에서 오매일여(寤寐一如)의 구경(究竟)이란 이 숙면일여(熟眠一如)를 말함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주저앉지 않고서 다시 큰 관문인 사중득활(死中得活), 즉 크게 죽고 다시 크게 살아나서 부처도 없고 조사도 없고 수(修)할 것도 없고 증(證)할 것도 없는 자리라야 진실한 자기(自己) 본래면목(本來面目)을 보는 것이니, 즉 영원히 무명(無明)을 끊고서 견성정각(見性正覺)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지에서라야 조사스님의 화두(話頭)나 격외법문(格外法門)의 낙처(落處)를 올바르게 투정투져(透頂透底)할 수 있고, 여기가 진정한 돈오돈수(頓悟頓修)의 경지인 것이다.

부처님을 위시하여 초조(初祖) 달마(達磨), 육조(六祖) 내지 오가칠종(五家七宗)의 초군정안(超群正眼)들이 오매일여(寤寐一如)와 사중득활(死中得活)의 극심극란(極深極難)한 관문을 투과(透過)하여 돈오돈수(頓悟頓修)의 살불살조(殺佛殺祖) 무수무증(無修無證)의 자리를 철증(徹證)하지 않은 이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러 말도 실참(實參)이 없는 한 쓸데없는 지해사구(知解死句)요 군더더기인 것이다. 지고극심(至高極深)한 선도리(禪道理)란 귀동냥식으로 알면 안되고 반드시 명안종사(明眼宗師)의 지시에 절대 복종해야만 한다. 올바른 공부길을 알아서 방황하거나 씨처럼 망발을 일삼지 않는다는 것이 수도인(修道人)의 좌우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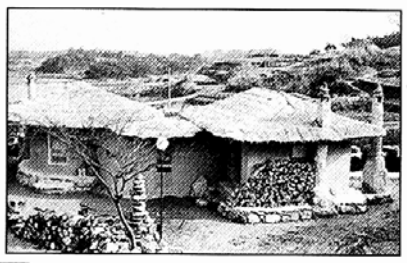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여 세간에서 화려한 이름 석자 날리며 추앙받고, 재주 기운과 언어문자의 사구(死句)에 의지하여 알음알이를 일으키는 그런 씨의 아상(我相)을 가지고는 천 만 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만고에 분명한 자기(自己)의 본면목(本面目)은 깨달을 날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큰스님의 법문(法門)을 대하면 지해(知解)로써 이리저리 시비(是非)를 일으켜 자신의 취향이나 무슨 요즈음의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 하여 엉뚱한 잠꼬대를 일삼지 말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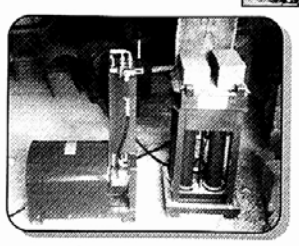
씨의 바로 본분(本分)자리에서 의정(疑情)과 분심(憤心)을 일으켜 지해사량 분별(知解思量分別)을 떠난 활구(活句)를 들고 나갈 때만이 그 낙처(落處)를 바로 아는 날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여 씨 밖에 있는 껍데기 불교를 가지고 "나는 불교를 이렇게 본다"고 시끄럽게 의치기 전에 바로 씨의 마음자리에서 눈을 떠버리면 저절로 한 물건도 볼 것이 없는 참불교를 보게 될 것이다.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 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모델 A: ₩3,800,000
B: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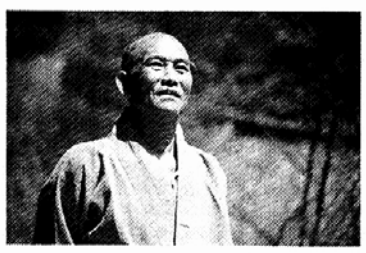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설악산 신흥사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단花화'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옻나무와 소나무의 옻진과 송진을 채취하여 두어달 발효시킨 뒤 마늘, 토종꿀, 감식초, 부추, 대파, 생강의 생즙을 낸 다음 옻진 송진 발효된 것과 잘 혼합하여 검정콩을 액체에 담궜다가 건져내 따뜻한 온돌방에서 10일간 말려내면 30세 이하가 복용하는 초벌용 금단화가 완성되고, 이 과정이 두번, 내지 세번 반복되며 액체에 담그는 횟수에 따라 약효가 달라지는데 40세가 넘는 성인용의 경우 숙성 기간이 족히 2개월을 넘는다는 설명이다. 하면 일반에서도 금단화를 제조하여 먹으면 좋겠지만 옻진이 한 되에 기천만원을 호가하며 그마저도 국산 옻진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여성동아 1월호 인터뷰 내용 중 -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상담문의 ☎ (02)3437-8282 ◑

여래선(위빠사나) 수련 안내

위빠사나를 익힌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확실한 자신을 탐구하는 수행이다.

위빠사나는 간단명료한 수행입니다. 순간순간 고요하고 명료한 깨달음을 통하여 몸과 마음의 진행을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삶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마음의 평정과 평화로 인생의 모든 모습을 관조한다면, 기쁨과 고통, 두려움에 대한 근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위빠사나 수행은 존재와 경험을 종합적으로 확실시 관찰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일일 수행 계획표는 좌선과 행선으로 이루어지며, 법문과 지도스님과의 대화로 이루어집니다. 참석자들은 침묵과 수행 내용에 충실하게 따를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4박5일 수련
- 기 간 : 2000년 3월 7일(화요일, 오후3시) - 11일(토요일, 오후3시까지)
- 동참금 : 60,000원

■6박7일 수련
- 기 간 : 2000년 3월12일(일요일, 오후3시) - 18일(토요일, 오후3시까지)
- 동참금 : 100,000원

■지도스님 : 붓다랏키타 스님

◆◆ 간화선(화두선) 수련안내 ◆◆
- 기 간 : 4박 5일 - 2000. 3. 22.(수요일 오후 3시) ~ 3. 26 (일요일 오후3시)
- 동 참금 : 60.000원
- 지도법사 : 운산

■장 소 : 봉인사 자광전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세면도구, 필기도구, 담마를 체험하겠다는 서원
◐ 보궁도 참배하고 부처님 수행도 하십시오.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송능2리 304번지
문의전화 : 0346)574-5585 FAX : 0346)574-0808
봉인사 한길정진원 합장

영광 불갑사서 삼국시대 유물 나와

"백제불교 도래지 증명기회"

동국대 박물관 조사 대웅전 기단석서 '모죽임' 수법 석재 발견

전남 영광군 불갑사가 백제불교의 도래지일 가능성이 짙어졌다. 지난해 12월 3일부터 5차에 걸쳐 불갑사 정밀 지표조사를 실시한 동국대 박물관(관장 장충식)은 대웅전 기단석 밑부분에서 삼국시대의 탑 부재로 추정되는 석재들을 발견했다.

박물관에 따르면 새롭게 발견된 석재들은 각진 부분을 둥글게 깎아낸 '모죽임' 수법이 완연하다. 이 수법은 삼국시대 석탑의 대표적 양식으로, 기단석의 각진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깎아내는 기법이다. 이에 따라 〈삼국유사〉 등의 문헌에만 의존했던 불갑사의 '도래지' 설이 유구나 유물로도 증명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이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법성포를 통해 영광에 들어온 마라난타가 384년(백제 침류왕 1년) 불갑사를 창건했다. 마라난타는 중국 동진을 거쳐 백제에 들어와 처음으로 불교를 전한 인물이다.

이와 함께 박물관은 이번 지표조사에서 불갑사의 규모가 지금보다 1천여평 정도 더 넓었음을 밝히고, 또 불갑사로부터 2백미터 떨어진 곳에서 고려시대 관청이 들어섰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터 2 곳을 새롭게 발견했다. 이들 건물 터에서는 다량의 청자 파편들이 나왔는데, 인접한 곳에 관청이 있었을 만큼 불갑사의 사격은 대단히 높았을 것으로 박물관은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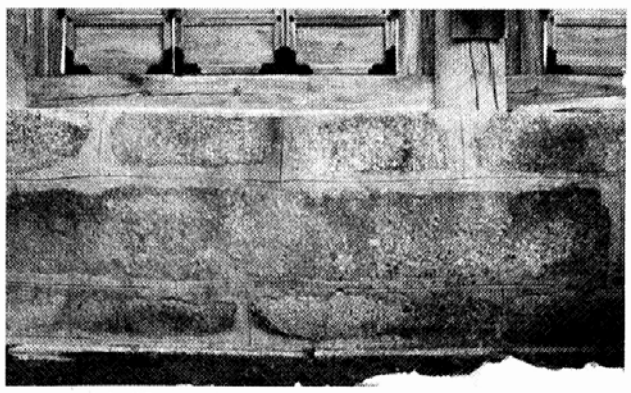
고려 공민왕의 신임을 받았던 진각국사(1270~1355)가 불갑사에 '주석할 당시 전각 100여칸, 승방 70여개 소, 요사 400여칸이나 되었을 정도로 규모가 컸다. 그러나 정유재란 때 크게 피폐해졌고, 현재에는 조선시대 중기 이후의 건축물과 유물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외에도 박물관은 수도암, 불영대, 불해사, 전일암, 증지암 등 정유재란 직후까지 존재했던 불갑사 5대 암자 터를 찾아냈다. 대웅전 내벽에서는 17세기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까치 채색화' 4점을 새롭게 발견했는데, 이 채색화들은 지금까지 신중탱화에 가려져 있었다. 이와 함께 박물관은 당우, 동종, 부도, 현판, 비석 등의 묵서와 명문을 확인·실측했으며, 각종 문헌을 토대로 불갑사 사역 일대에서 유구를 채집하는 등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했다.

동국대 박물관장 장충식 교수는 "이번 지표조사는 불갑사에 대한 문헌상의 기록이 대부분 사실이며, 또 삼국시대의 '모죽임' 수법이 사용된 탑 부재를 발견해 백제불교의 도래지일 가능성이 문헌이 아닌 유물로 밝혀졌다는 게 큰 의의"라고 밝혔다. 불갑사에 대한 지표조사 보고서는 8월경 발간된다.

한편 불갑사 일대에 대한 '백제불교 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영광군은 최근 전남도로부터 개발사업을 승인 받고, 이 일대의 토지 매입을 끝냈다. 이어 영광군은 올해 말까지 진입도로 등 각종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마라난타 동상을 건립할 계획이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불갑사 대웅전 기단석 밑부분에서 발견된 삼국시대 탑 부재. 동국대 박물관장 장충식교수는 정유재란 이후 피폐된 사찰을 다시 세울 때, 주변에 흩어진 석재와 목재를 적극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불교TV '바로보는 동양학' 동양철학 강의 붐 잇는다

흥미 위주에서 탈피, 동양학의 살아 있는 숨결을 진지하게 느낄 수 있는 TV동양학 강좌가 마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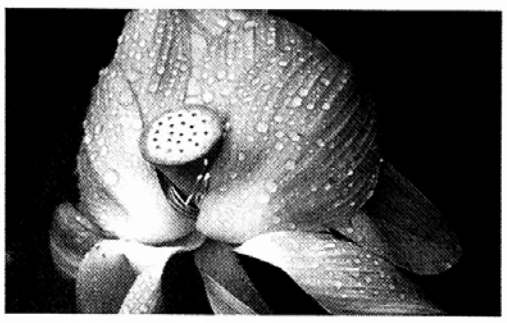
불교TV는 14일부터 6개월간 매주 화요일 오전10시 20분에 유학과 불교 등을 총망라한 동양학 강좌프로그램 '바로보는 동양학'(담당PD 김충현)을 방영한다. '나를 다시하는 동양학'의 저자인 박현씨(43)가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동양학이 21세기에 필요한 이유를 시작으로 동양학이 현대인들의 삶과 수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수한 옛날 이야기식으로 풀어 나간다. 교재없이 주제만 정해 동양과 서양, 인문학과 자연과학 등의 예를 제시해 가며 칠판식 강의로 진행될 이번 프로는 △동양학의 갈래와 역사 △오행론과 근본 요소론 △불교와 도교 △동양학과 정치·경제·사회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광범위한 동양학을 일목 요연하게 선별해 한국학, 유학, 도가, 선가, 오행론 등으로 세분화시켜 짜임새 있게 강의하는 것이 이 프로의 특징.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화면과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삽화 및 도표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진행자 박씨는 "강사의 입담이나 재치로 대중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형식을 과감히 탈피하겠다"며 "강사나 청중, 시청자들 모두가 몸으로 느끼고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진지한 강의를 펼치겠다"고 야심찬 의욕을 보였다. 이번 강의는 매주 목요일 오후7시 전통수행연구회 강의실에서 공개 녹화로 진행되며, 관심있는 이들은 참가도 가능하다. 한편 '바로보는…'는 국내 방송이 끝난 뒤 일본어로 더빙해 일본 동경 북부 스마다가 지역의 케이블TV에 방영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동양학 강좌 프로그램이 안방 시청자들의 채널을 고정시키고 있다.



◇이태영씨는 연꽃을 조각품처럼 조형화·의인화해 카메라에 담아낸다.

蓮의 생로병사 보면서

이태영 '蓮사진전'…19일까지

아름다운 빛깔과 고고한 자태, 진흙에 물들지 않는 품성을 가진 연꽃에 삶의 의미를 부여한 사진전시회가 열린다. 사진작가 이태영(54 고토갤러리 대표)은 14일부터 19일까지 서울 태평로1가 서울갤러리에서 '이태영의 蓮' 사진전을 갖는다. 소년소녀가장돕기를 위해 열리는 이번 전시는 조계종에서 후원한다.

이씨는 '蓮'을 앵글 속에서 의인화해 생로병사를 함축적으로 표현했다. 도르르 말린 잎에서 갓 태어난 잎, 한여름 연못을 메운 초록잎과 붉은 꽃송이, 개구리밥과 물잠자리의 향연은 인생의 봄과 여름을 연상시키고 비바람에 찢긴 잎, 앙상하고 허리 꺾인 겨울 연은 삶의 고적함을 느끼게 한다.

'이태영의 연'은 연꽃에 대한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시각을 넘어 조각품처럼 조형화·의인화함으로써 회화적인 미감 위에 인생에 대한 작가의 관조가 묻어나온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대구, 전북 무안, 전남 강진에서 찍은 홍련과 백련 등 50여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이씨는 연꽃이 피는 6~7월경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나 비개인 직후 혹은 여명이 밝아오는 새벽녘을 택해 작업을 했다고 한다.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이자 신라미술대전 추천작가인 이씨는 4차례의 개인전을 갖고 2권의 사진집을 발간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대구 최초로 사진전문갤러리인 '고토(古土)'를 개관했다.(053)427-5190 (02)2000-9736

이윤호 기자

봉정사 대웅전 최고 목조건물일까

지붕공사중 상량문 담은 대나무통 발견

한달후 판독 가능…건립시기 밝혀질듯

경북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봉정사 대웅전(보물 제 55호)에서 상량문을 담은 대나무통이 지붕 보수공사중 발견되면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이 바뀔지에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길이 21cm 직경 5cm인 대나무통은 2월 23일 대웅전 서까래와 처마 사이에서 발견됐다. 현재 이 통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존처리 중에 있으며, 보존처리가 끝나는 내달 초 순경에나 상량문을 판독할 수 있다는 게 연구소 측의 설명이다.

또 대웅전 내벽에서 반자 등 고려 중·말기 양식으로 추정되는 단청과 목조 구조 등이 8곳에서 발견돼, 상량문의 내용이 더욱 주목된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상량문 판독에 앞서 적외선 촬영과 방사선 탄소연대측정 등의 방식으로 정확한 건축 연도 추정에 나설 예정이다.

학계에서는 지금까지 봉정사 대웅전의 건립 시기를 놓고 '조선 초기' '고려 말기' 등의 엇갈린 주장을 제기해 왔다. 고건축 등 관련 학계에서는 대웅전의 건축 양식을 고려해 '조선 말기'의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신영훈씨 등은 〈봉정사사적기〉와 일부 묵서를 토대로 '고려 말기' 건립설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이강근(경주대·성보보존위원회 전문위원)교수는 "대웅전을 미리 짓는 게 사찰 건립 관행인 만큼 대웅전이 현존 최고의 목조건물인 극락전(국보 제15호)보다 건축연도가 앞설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 이번 보수공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자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종욱 기자

■ '전통기와 민화' 작품화한 귀일스님

"우리문화 세계알리기 한몫"

사찰에 버려진 옛 기와에 그림을 그려넣어 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한 스님이 있다. 안동 봉정사 지조암 귀일스님이 바로 화제의 주인공.

82년 의성 고은사에서 출가한 스님은 그림에 대한 남다른 관심으로 자료를 수집하며 독학으로 그림을 배웠다. 1년전 우연히 사찰 구석에 버려진 기왓장을 발견하고, 기와 그림을 창안해 내 상품화하기에 이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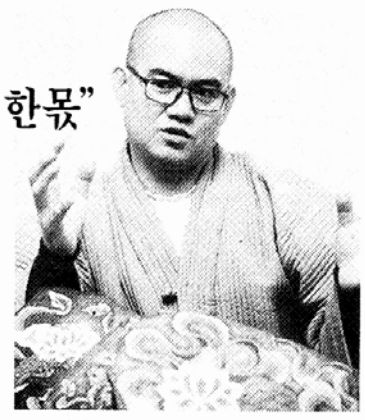
"단순한 관광상품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일반에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기와 그림을 제작했다"는 스님은 일반인과 외국관광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와 뒷면에 한글과 영어, 일어로 그림의 뜻을 적어 놓았다.

"귀면, 칠보문양, 호랑이, 십장생 등 단청물감으로 그려 넣은 100여점의 작품을 완성해 놓았다"는 스님은 "절마다 특색있는 문양들을 기와에 그림으로 옮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장상, 비천상 등 불교상징물들도 조만간 그림으로 표현해 일반인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킬 생각이라고.

벽걸이용, 받침대용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된 스님의 기와 그림은 조만간 서울 경주 제주 등의 유명호텔의 면세점과 토산품점 등지에 선보인다.

스님은 초파일을 전후해 서울 인사동 학고재에서 '와당, 기와 그림전'도 열 계획이다.

이은자 기자



◇귀일스님은 옛 기와에 그림을 그려넣어 문화관광상품으로 재탄생시켰다.

문화 단신

LMB중창단 후원회원 모집

불교음악을 사랑하는 젊은 불자 성악인들의 모임인 혼성중창단 LMB싱어즈가 음악활동을 지원해 줄 후원회원을 기다린다.

후원회원에 가입하면 소식지를 통해 각종 연주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게 되며, LMB싱어즈의 정기연주회 무료관람권도 지급한다. (02)358-4288

중앙박물관 여성문화강좌

국립중앙박물관은 여성들에게 우리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제6기 여성문화강좌를 개설한다.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해 3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는 '전통문화' '현대문화' 등을 주제로 한 강의 및 '현장답사'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중앙박물관 섭외교육과로 수강신청서(현장 배부), 주민등록증, 증명사진 등을 제출해 신청한다. 문의전화 (02)398-5083

신간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김현준 편역
신국판
값 5,000원

기도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취가 달라집니다. 이 책은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예참과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이 책을 펼쳐들고, 각 장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보살의 가피 속에서 틀림없이 업장을 소멸하고 영가천도·소원성취·향상된 삶을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감히 권하옵니다. 이 책에 의지하여 기도를 해보시기를!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Ⅰ. 지장보살, 어떠한 분인가?
· 대원의 본존
· 무한자비와 파지옥의 지장보살
· 현세의 행복과 지장보살
Ⅱ. 지장기도법
· 생활속의 지장기도
· 영가천도기도법
· 종합적인 지장기도

김현준 지음 / 4×6 판 / 값 3,500원

흔히들 지장보살은 영가천도의 보살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장신앙 속에는 영가천도뿐만이 아니라 행복과 깨달음, 성불의 비결까지 간직되어 있습니다.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기도를 비롯하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알기 쉬운 불교서적

관음신앙 · 관음기도법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필독서
4×6판 / 값 3,500원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쉽고 재미있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의 가피와 기도성취를 원한다면 꼭 이 책을 펼쳐 드십시오.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육바라밀 수행법

보시 · 지계 · 인욕 · 정진 · 선정 · 반야바라밀!
4×6판 / 값 3,500원

육바라밀 수행법은 고해의 중생을 피안의 세계로 인도하는 큰 배입니다. 이 여섯 가지 바라밀의 정신을 깨달아 실천하면 누구나 행복과 성불을 보장받게 됩니다.

《육바라밀 수행법》 이 한권의 책으로
행복하고 청정한 삶을 이루는 지름길을 만나십시오.

예불을 통한 불보살의 가피!!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신국판 / 값 5,000원

많은 불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예불문을 외우며 절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예불문 속에 담긴 의미를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약 예불문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불은 물론 삼보의 가피를 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불을 올리는 불자들이 궁금해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것들, 이 책에 모두 담았습니다.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신국판 / 값 7,000원

절에 오래 다닌 불자들조차도 무심히 흘려보냈던 사찰 곳곳에 간직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 …….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찰 초입(初入)의 일주문에서부터 사물(四物), 석등, 탑, 그리고 여러 법당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은 독자들에게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587-6612 · 팩스 : 586-9078

편액과 주련, 그리고 깨침의 세계

대한불교진흥원 '한국사찰의 편액과 주련'

읽기조차 힘든 절집 글씨

뜻 풀이-쓴 까닭 '해설'

우리나라 주요 사찰 200여 곳의 편액과 주련을 총망라한 자료집 〈한국사찰의 편액과 주련〉(대한불교진흥원)이 나왔다. 그동안 사찰의 편액과 주련은 전각의 신앙적 특성과 그 바탕을 이루는 교리의 핵심을 담고 있으면서도 일반 불자들에게는 '그림의 떡' 같은 것이었다. 대부분 일반인으로서는 읽기조차 힘든 한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자료집의 발간으로 인해 그와같은 답답함은 거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편액은 불보살을 모신 전각의 성격을 나타내는 현판이다. 그리고 주련은 전각에 봉안된 불보살의 중심사상을 함축한 시문으로 구성돼 있다. 말하자면 편액과 주련은 사물의 겉과 속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 책은 편액과 주련의 신앙적, 서예적 의미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편액과 주련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 필요성은 이 책에 수록된 홍윤식 교수의 '가람의 구조와 편액의 의미'와 서예가 여초 김응현씨의 '사찰 편액과 주련의 서예적 고찰'이란 논문에 잘 나타나 있다.

편액과 주련의 역사는 오래지 않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의하면 신라 진흥왕 544년 '대왕흥륜사'라 편액했다는 기록 이후부터 보편화됐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편액으로는 공주 마곡사의 '대웅보전'과 강진 백련사 대웅보전 안에 걸려 있는 '만덕산 백련사'다. 고려의 편액 중 가장 오래된 것은 공민왕이 쓴 것으로 보이는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편액이다. 하지만 변죽의 장엄과 서미(書味)로 보아 가장 신빙할 수 있는 절대 연대를 가진 편액은 부석사 무량수전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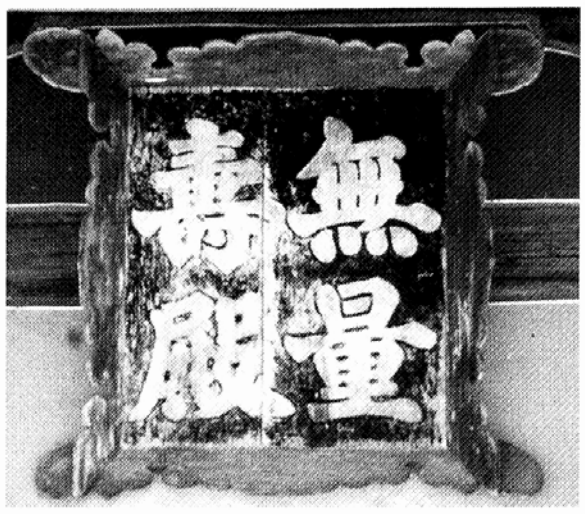
주련의 역사는 편액보다 늦은 조선초기로 본다. 〈삼국유사〉〈삼국사기〉〈고려사〉〈조선왕조실록〉 등의 사서에도 주련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에 대해 학자들은 주련이 원형 또는 배흘림 기둥에 걸기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합천 해인사의 수다라장 입구의 협문에 쓴 것과 남양주시 흥국사 만월보전 주련 등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책에는 특이한 편액과 주련도 소개돼 있어 눈길을 끈다. 가장 큰 편액은 숙종의 어필로 전하는 칠곡 송림사 대웅전 편액(366×160㎝)이며, 편액과 주련을 가장 많이 쓴 선사는 만공스님. 또 편액의 서체는 대부분 해서체로 쓰는 것이 관례이나, 전서(실상사 약사전, 나주 다보사 대웅전 등)나 예서(봉은사 영산전 등), 행초서(용주사 지장전, 강화 보문사 무설혜중전 등)로 쓴 경우도 있다. 서법도 다양하다. 풀잎 등으로 쓴 갈필, 입으로 쓴 구필(예천 용문사 대장전), 손가락으로 쓴 지필(송광사 사액), 등자승이 쓴 동자필(백양사 우화루) 등도 있다.



3년 여의 출판 작업 끝에 출간된 이 책에 실린 편액과 주련은 전통사찰을 중심으로 모두 2000여장의 편액과 300여장의 주련 사진이 수록돼 있다. 불교학, 불교미술, 서예사 등의 관련분야 전문학자들의 고증으로 출간된 이 책 상·하권에는 사찰의 역사와 성보문화재 소개, 편액과 주련의 필자와 서평, 원문해석 등을, 부록에는 본문에 수록하지 못한 주련의 원문과 해석, 주련의 출전 해제, 당우해설, 편액과 주련의 필자 인명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이 돋보이는 이유는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로 번역하고 출전을 밝히고 있을 뿐아니라 여초 김응현, 초청 권창륜, 구당 여운구씨 등 전문 서예학자들이 서예사적 관점에서 글씨평을 달았다는 점이다.



◇공민왕이 쓴 것으로 알려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편액은 고려의 편액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지금까지 불교미술 연구는 불상, 탑파, 탱화, 건축 등에만 집중됐고, 편액과 주련을 성보문화재로 다룬 일은 거의 없었다. 그 한 예가 추사 김정희가 쓴 서울 봉은사의 '판전' 편액만이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는 사실이다. 편액과 주련은 불교학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격의 고증 단서 등 사료적 가치가 높다는 점에서 사찰 장엄의 성보문화재로 그 가치를 다시 인식해야 할 것이다. 값 전3권 30만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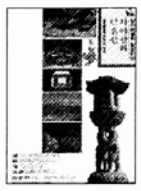
새로나온 책



▲능엄경(거부스님 역주, 수덕사 승가대학)= 수덕사 승가대학에서 〈치문경훈〉, 〈서장〉, 〈도서·절요·선요〉에 이어 강원 교재용으로 편찬한 책. 거부스님이 학인들을 대상으로 〈능엄경〉을 강의한 내용으로 원문 직역에 충실하고 있다. 값 2만5천원.



▲길이 없어도 부처는 있다(혜천스님 지음, 밀알)= 선화로 만나는 〈반야심경〉. 관화가 혜천스님이 〈반야심경〉 260자를 6개의 장으로 나누어 해석하고, 그에 부합하는 선화를 곁들였다. 값 8천원.



▲가야산과 덕유산(한국문화유산답사회 엮음, 돌베개)= 답사여행의 길잡이 열세번째 권으로 가야산과 덕유산 주변 지역의 답사여행 안내서. 가야산 골골이 잊혀진 왕국 가야의 전설이 맺힌 고령, 합천, 거창을 비롯 전주, 완주, 진안 등 5개의 답사여행 코스가 소개돼 있다. 값 9천원.



▲일곱 봉지 속의 지혜(앤서니 드 멜로 지음, 진우기 옮김, 양문)= 글쓴이가 세계 곳곳을 다니며 찾아낸 민담, 잠언, 격언들을 본성, 교육, 권위, 인간관계 등 우리들 누구나 관심 있어 하는 일곱가지 주제로 나누어 정리한 책이다. 값 6천원.



▲21세기 희망은 農에 있다(정경식·안철환 지음, 두레)= 공생과 순환의 농법으로 100여 종의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한 농사꾼의 이야기. 20년 넘게 무농약 유기농사를 지어 온 농부 정경식씨는, 21세기 인류의 희망은 농촌에 있다고 선언한다. 값 8천원.



▲솔아솔아 푸르른 솔아(최선웅 지음, 두리)= 한 장기수의 육필 수기.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는 "현대 민족사의 비극인 분단 상황을 해결해 보고자 젊은 나이에 북쪽으로 갔다온 것은, 오늘을 사는 청년들에게 교훈을 던져 준다"고 평했다. 값 1만원.



▲모든게 인연일세(이현덕 지음, 북앤드)= 98년 입적한 해인사 명진스님의 수행이야기. 재가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명진스님의 수행과 중생교화에 진력했던 수행자의 철저한 삶이 한 권의 책으로 되살아 났다. 값 6천원.



▲한방으로 풀어본 성인병과 노인병 그리고 양생법(김양식 지음, 하남)= 성인병과 노인병에 대한 임상 소견과 처방법, 그리고 예방법을 다루고 있다. 값 1만원.

문화유산 연구 40년 결산

홍윤식 교수 '문화유산의 전통과 향기'



홍윤식 교수(동국대 역사교육학과)가 정년퇴임을 앞두고 40여 년간의 문화유산 연구에서 느낀 감회와 아쉬움 그리고 바탕을 총정리한 책을 발간했다. 홍윤식 교수의 '문화유산관'이라 할 수 있는 〈문화유산의 전통과 향기〉(민족사)는 글쓴이가 문화유산의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다.

'불교문화유산의 전통', '불교문화유산의 향기', '우리문화유산과 중국불교유적' 등 모두 3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불교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쉽게 잊혀지고, 시대 속에 묻혀버리기 쉬운 우리 문화유산을 다시 인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고 있다. 특히 우리 문화유산의 명맥을 이루는 불교문화에 대한 홍교수의 애정은 각별하다. 어느 장에서나 불교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고민의 결실을 만날 수 있다. 불상과 사찰의 전각에서부터 불교조각, 불교미술, 불교음악, 단청 등에 대한 홍교수의 폭넓고 진중한 안목이 바로 그것.

자칫 고루하고 답답하게만 느껴질 수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새로이 문화를 바라보고 이해한다는 시각을 갖게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장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책은 문화유산을 바르게 이해하는 지침서가 될 만하다.

홍윤식교수는 책머리에서 "한반도 구석구석에 살아 숨쉬는 불교문화유산은 옛 선인들과 후손을 연결해 주는 영원한 정신적인 귀의처이다"며 "이 책은 문화유산과 맺어온 솔직한 심정을 적은 것이지만 그 참뜻이 올바르게 이해되어 우리 문화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값 8천5백원.

詩로 다가가는 禪

두송백의 '선과 시' 번역 출간

"각 시편마다 쓸모 없는 문장 없고, 오직 민생의 아픔만을 노래했다." 시인 백거이가 세운 시가창작의 지표인데, 이 같은 경지에 이른 시인은 흔치 않다. 하지만 선승의 게송은 하나같이 쓸모 없는 문장이라곤 찾아보기 힘들다.

역사 속에 빛을 감춘 채 묻혀 있던 선시를 문학의 궤도에 올려놓은 대만 중흥대 두송백의 역작 〈선(禪)과 시(詩)〉가 도서출판 민족사에서 번역 출간됐다. 이 책은 달마스님에서부터 당송대까지의 선승들의 게송들을 토대로 선과 시의 융합관계를 시학적 관점에서 밝히고 있다. 즉 문학을 통한 선으로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셈이다. 글쓴이



두송백은 중국 문학과 사상 그리고 예술에 큰 영향을 미친 선의 정신사적 세계를 밝혀 선시 연구의 기풍을 진작시킨 선구자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일반 독자를 상대로 선과 시의 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렵게 여겨졌던 선시(게송)를 편안하게 감상하면서 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역은이 박완식교수(전주대 한문학과)는 "사상과 예술의 접합이라는 고도의 선문학이 탄탄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한 걸음 앞서는 연구가 과제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값 1만5천원.

김중근 기자

정원신정석교목록1·해심밀경소2

한글대장경 2권 출간

동국대학교 역경원에서 〈정원신정석교목록 1〉과 〈해심밀경소 2〉 등 한글대장경이 2권이 나란히 출간됐다.

〈정원신정석교목록 1〉은 모두 30권으로 당나라 정원 16년(800)에 원조스님이 편찬한 경전목록이다.

이 책은 크게 총록과 별록으로 구성돼 있다. 총록은 특승은지록과 총집군경록으로, 별록은 분승장차수록과 명현성집전록으로 나누어져 있다. 특승은지록은 황제의 승인하에 새로 대장경에 편입된 경전목록으로써 〈개원록〉에 실리지 못한 신역 〈화엄경(40권)〉과 현종 이후의 3대조에 걸쳐 번역된 경·율·론과 〈대불명경〉 등 232권의 장경이 수록되어 있다.

〈해심밀경소 2〉는 6권 분별유가품에서부터 10권 여래성소작사품까지 다루고 있다. 값 각권 1만5천원. 김중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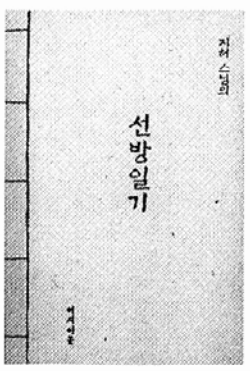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현 각	열 림 원
2	금강경 강해	김 용 옥	통 나 무
3	오두막 편지	법 정	이 레
4	김용옥선생 그건 아니올시다	변 상 섭	시 공 사
5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 타	효 림
6	노자와 21세기(하)	김 용 옥	통 나 무
7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일 타	불교시대사
8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아문
9	지장신앙 지장기도법	김 현 준	효 림
10	종경	원 성	이 레

도서 안내:(02)737-0695

새로나온 책

선방일기

선방에서의 수행 풍토는 물론이고, 당시의 시대상까지 접할 수 있는 값진 글!



이 『선방일기』는 1973년 봄 『신동아』의 논픽션 공모에 당선된 작품으로
'지허知虛'라는 서울대 출신 스님의 선방에서의 일과가 솔직담백하게 담겨 있다.
일반인들로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선방에서의 수행 풍토는 물론이고, 당시의 시대상까지 접할 수 있는 값진 글들이다.
수행자로서의 고뇌와 의지가 곳곳에 스며 있는 이 글은,
새로이 발심하여 출가 수행자의 길에 들어선 이들이나 재가불자, 그리고 불교에서
새로운 세기의 대안을 찾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수행의 거울이 되리라 생각한다.

"걸만 보고 입산했다가 실상을 알고보니 세상에서 느낀 절망보다 더 큰 절망이 절간에 도사리고 있음을 알게 된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그대로 머무느냐, 하산하느냐이다." 선방의 숨은 이면이 때론 잔잔하게 또 더러는 치열하게 그려진다. 북 디자인도 내용에 어울리게 단아하다. — 문화일보(2000. 2. 23.)

'금단의 영역'으로 알려진 선방에서의 일상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은, 70년대 초의 선방 풍속도로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큰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는 선방의 전통을 보여주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 강원일보(2000. 2. 23.)

서울대 출신의 필자가 73년 봄 월간지 『신동아』의 논픽션 부문에 응모해 당선된 글을 예쁜 장정의 포켓북으로 꾸몄다. 일반인들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선방에서의 수행 풍경은 물론 세상을 보는 지혜가 각 장마다 번뜩인다. — 동아일보(2000. 2. 26.)

지허 스님에 따르면 절간에는 피안도 열반도 없다. 정신과 육체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고통이 있을 뿐이다. 선객들은 깨달음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사이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화두에 매달린다. — 한국경제(2000. 2. 26.)

스님들의 수행 공간인 선방은 일반인에게 신비의 장소이다. 그 때문에 산문을 닫아 걸고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해가는 스님들의 모습이 때로 침소봉대돼 전해지곤 한다. 최근 선보인 이 책은 선승들의 선방생활을 진솔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경향신문(2000. 2. 29.)

지허 스님 지음
B6 136쪽
값 5,000원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여시아문에서 펴내는 주머니 속 대장경

101 보르헤스의 불교 강의 (교리·입문)
'20C의 창조자' '환상 문학의 창시자' '사상의 디자이너'라 불리우는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그에게서 전해 듣는 붓다의 가르침, 그 핵심을 모았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알리시아 후라도 공지, 김홍근 편역/ B6 변형 242쪽/ 값 5,500원

102 법수로 배우는 불교 (교리·입문)
불교의 법수는 일반적으로 쓰는 세속의 숫자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경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숫자들…, 그 깨침의 묘리를 묻다.
이재일 지음/ B6 변형 196쪽/ 값 4,500원

201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생활불교)
궁극적인 깨달음을 노래하지만 그것보다 불교에 대한 마음가짐과 기초 수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티베트인들의 정신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다.
초펠 스님 편역 / B6 변형 178쪽/ 값 4,000원

301 참선요지(參禪要旨) (선禪)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게 참선의 요지만을 담았다.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晟) 스님 옮김/ B6 변형 278쪽/ 값 5,500원

302 방편개시(方便開示) (선禪)
깨달음 그 자체보다는 궁극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晟) 스님 옮김/ B6 변형 330쪽/ 값 6,000원

303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선禪)
한글 세대를 위한 선(禪)불교 강의
한형조 지음 / B6 변형 334쪽/ 값 6,000원

401 허공의 딸꾹질 (문학)
조선 시대 선사 44인의 선시 모음집
이종찬 지음/ B6 변형 282쪽/ 값5,000원

501 불성이란 무엇인가 (문화·학술)
모든 중생에겐 불성(佛性)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성불할 수 있을까?
전치수 지음/ B6 변형 196쪽/ 값 4,500원

502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문화·학술)
황폐한 우리의 교육 현장에 던지는 붓다의 음성 '천상천하유아독존'
김종서 지음/ B6 변형 182쪽/ 값 4,500원

•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는 계속 출간됩니다 •

21세기와 역경

1.역경원의 어제와 오늘
2.역경원은 불교학의 견인차
3.디지털시대와 역경
4.역경사업 활성화 과제

'전자 대장경' 불사 서둘러야

고문체 경전 정보가치 줄어
한글대장경 CD롬 작업 필요

디지털은 21세기 모든 사회분야에서 이미 화두가 됐다. 고려대장경연구소의 통합대장경 검색시스템 개발,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 설립 등 교계에도 인터넷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인터넷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팔만대장경 원문은 물론이요, 경판이미지, 해설사전, 고려대장경해제, 색인목록, 한자사전, 불교용어사전, 전산본 다운로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는 한국불교전적 전산화와 불교전자도서관 구축 등 전자불전 관련 제분야의 연구사업을 위해 설립됐다. 지난해 10월에는 '21세기의 불전 전산화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디지털시대에 대비한 교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같은 작업이 지속됨과 동시에 인터넷상에서의 〈한글대장경〉의 활용도 더욱 활발해지게 될 것이다. 역경원의 〈한글대장경〉개정과 CD롬 작업도 이들과의 상호협조 속에 진행될 예정이다. 역경원은 현재 CD롬 작업을 위주로 한 〈한글대장경〉의 개정작업을 위해 정부에 예산지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CD롬 작업전에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올해 안에 〈한글대장경〉이 완간되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1차 번역의 수준이고, 초창기번역본들의 오역를 바로잡아야 하고, 한글화 되었다 하나 여전히 한문투성이인 형식면에서도 수정을 거듭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오류들을 바로잡지 않은채 섣불리 〈한글대장경〉을 그대로 인터넷에 올릴 경우, 사이버공간에서 〈한글대장경〉은 이해하기 힘든 단어들만 나열된 고문체의 경전으로, 정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사장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원전으로서의 역경작업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알맹이로서의 역경원 역할은 디지털시대가 될수록 더욱 중요하다. 〈한글대장경〉의 정본을 확정한 후에 보다 다양한 검색이 가능하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학문적 발전도 이룩할 수 있다. 아무리 첨단 디지털시대라 하더라도 정전으로서의 책의 정신성, 생명성은 컴퓨터가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디지털시대 지식정보화사회에서 불교학 경쟁력의 핵심은 역경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식정보화의 원천이 바로 역경인 까닭이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아무리 급속적인 발전을 거듭한다 해도 역경의 기반이 튼튼하지 않으면 또다시 외국의 불교를 수입할 수 밖에 없고, 그것은 바로 문화적 종속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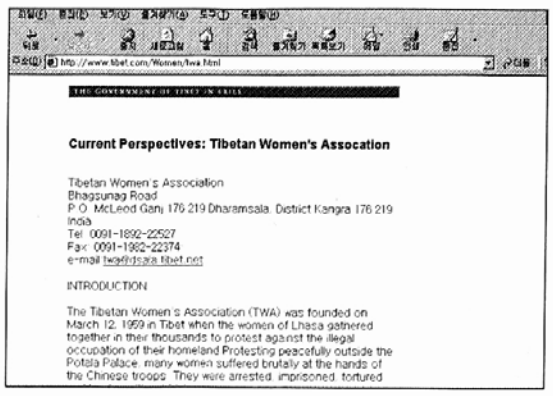
◇21세기에는 인터넷상에서의 〈한글대장경〉활용도 활발해 질 것이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열렸던 전자불전연구소 설립기념 세미나.

따라서 백년 이백년후를 내다보며 지속적인 번역작업을 통해 그 내용을 질적으로 향상 시키고, 불교학 분야의 내실있는 성장을 위해서는 결국 그 내용을 채울 역경의 성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최근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기계번역연구단이 설립한 'AI-트랜스'는 인문학 분야에 불고 있는 디지털열풍을 실감케 한다. 벤처기업 형태로 그려대, 한성대 교수와 대학원생들이 함께 설립한 AI-트랜스는 외국어 번역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인문학의 위기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시도로 존재가치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시대 역경원도 이같은 새로운 마인드에 눈을 떠야 한다.

전자불전연구소장 보광스님은 "한국불전의 정보화는 새로운 지식기반을 구축하고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 내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역경원과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한글대장경〉의 개정과 CD롬화 작업 등 디지털화로의 변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티벳 여성협회

"티벳 고유의 종교·문화 지키자"
중국의 무력점령 항거 여성단체

티벳 여성협회(The Tibetan Women's Association)는 1959년 4월 12일 티벳 라사에서 중국의 티벳에 대한 무력 점령에 항거하기 위해 수천 명의 티벳 여성들이 모인 가운데 결성되었다. 당시 포탈라궁 밖에서 평화적인 항의 시위를 벌이던 수많은 여성들은 중국 군인들에 의해 야만적인 수모를 겪었으며 또한 상당수의 여성들은 재판도 없이 투옥되어 비참하게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그 뒤 1984년 해외에 망명중인 수많은 티벳 여성들에 의해 정식으로 재조직되었으며, 인도 및 네팔 등 해외에 36개 지원·지회를 두고 있다.

여성협회는 티벳 고유의 종교와 문화 그리고 티벳 국민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티벳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모색하고 있다.

1984년 처음으로 세계적인 여성협회 총회가 '다람살라'에서 개최되어 새로운 티벳 여성을 대표하는 단체로 거듭나게 되었다. 여성협회 본부는 현재 '다람살라'에 있는 '맥레오드 간쥐' 지역에 있으며 이곳에서 여성협회가 안고 있는 모든 이슈들에 대한 지침을 내리고, 해외에 있는 모든 지원·지회 사무국에서 하는 일들을 조정하고 투쟁 방향을 설정해 주고 있다.

현재 해외 망명지에서 이미 7곳의 티벳 비구니 스님들의 모임이 결성되어 있는데 이중 3곳이 여성협회로부터 조직관리, 조정기능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다.

여성협회에서는 비구니 스님들의 교육, 복지 부분에 대단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티벳·인도 및 해외 망명지에 있는 티벳 비구니 스님들의 모임과 연대해서 여러모로 도움을 주고 있다. 최근 티벳에서 해외로 망명한 비구니 스님들이 티벳의 정치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며, 또한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숨마저 잃을 위험이 있음에도 티벳의 독립을 위해 성직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때문에 여성협회에서는 보다 열성적으로 그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해외 망명지에서의 그들의 용감성과 결단력을 실현시키는데 경제적 지원과 피난처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여성협회에서는 티벳 비구니 스님들에게 임시로 거처할 곳과 음식 그리고 교육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공헌하고 있다.

1987년 여성협회에서는 티벳 종교와 문화 부분 사업과 관련하여 '티벳 비구니 프로젝트'(The Tibetan Nuns Project)라는 사업단을 발족시켰다. 이 사업은 티벳 비구니 스님들이 티벳 종교와 문화를 학습하는데 필요한 환경조성 뿐만 아니라 의복, 음식, 수행처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는 데서부터 출발하였다. 요즘은 여성협회의 적극적인 도움에 힘입어 티벳 비구니 프로젝트는 해외 망명지에서 티벳 비구니스님 500여명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또한 더 이상 여성협회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단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www.tibet.com/women/twa.html

"종밀스님의 평생화두 '본각진심'"

보조사상硏 발표회
'규봉종밀의 도서연구'

보조사상연구원 주최 제3차 선전연구발표회 '규봉종밀의 〈도서〉연구'가 2월 26일 법련사에서 열렸다.

이날 발표회에서 최병헌 서울대 교수는 '규봉종밀의 선의 분류와 선종사 인식' 발표를 통해 "종밀스님이 고려불교에 미친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종밀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다"고 말했다. 최교수는 "종밀은 수행자로서의 면모보다는 학자로서 중국 선종의 이론적 통합에 그쳤다"면서 "보조스님이 화엄을 선수행에 실천적으로 접목시킨데 비해, 종밀스님은 실천적인 측면이 약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종밀스님이 당대 불교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홍주종에 대한 하택종의 우위성과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일관했던 것은 역사의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서〉의 선사상과 돈점관'을 주제로 발표한 연세대 신규탁교수는 "종밀스님은 본각진심이 무엇인가를 밝히는데 평생을 바쳤다"고 평하고, "본각진심을 인간의 근원으로 인정하고, 이런 입장에서 당시 그가 살던 시대의 유.불.도 삼교를 회통하고, 선교의 일치를 내세웠다"라고 말했다. 신교수는 〈원각경대소〉에 나오는 9대돈점(頓漸)에 대해 설명하고, 종밀스님이 주장하는 수행론은 돈오점수(頓悟漸修)라 강조했다.

'〈도서〉가 한국불교에 미친영향'을 발표한 해주스님은 〈도서〉 한국전래와 각판에 대한 현황을 소개하고, 보조스님의 〈도서〉 수용과 보조선에 대해 발표했다. 스님은 "〈도서〉는 고려중기 보조국사 지눌스님이 즐겨 인용한 이래 한국에서 크게 유통되었다"면서 "지눌스님이 〈도서〉의 교선일치 돈오점수설을 자신의 돈오점수 정혜쌍수의 선사상에 도입하여 중국의 오가칠종 선풍과는 다른 한국선문의 선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또한 지눌스님에 의해 주목된 〈도서〉가 조선시대 강원의 사집과 이력과목으로 선정돼, 교육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선교겸수의 한국선풍과 학풍을 진작시키는데 교와 선을 동등히 다룬 〈도서〉의 사상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은자 기자



◇보조사상연구원 제3차 선전연구발표회가 2월 26일 서울 법련사 불일문화회관에서 열렸다.

한국선학회, 3~12월 발표회 주제 확정

'禪이란 무엇인가' 심층접근

선의 학문적 연구뿐만 아니라 유관학문과의 관계, 정치 경제 사회문제의 선적 해법 모색 등을 위해 결성된 한국선학회가 월례 발표회 주제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학회활동에 돌입한다.

선학회는 3월 월례 발표회에서 '북미주 학계의 선불교 연구 현황'과 '수선사의 현실 참여와 간화선'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4월에는 '견성의 심성론적 해명', '황정견과 강서시파의 선시연구'에 대해, 5월에는 '구자무불성화 간병론', '선과 과학에서의 평등과 차별'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6월에는 '한국 선사상연구와 국사교육', '탈근대성의 인식론적 모델'을, 7월에는 '간화·위빠사나 수행의 연관성', '남방선의 수행법'을 주제로 진행한다. 9월의 주제는 '사명당 유정의 선사상', '벽관에 대한 대혜종고의 비판'이며, 10월에는 '선어록의 언어', '〈원인론〉의 인간관 연구'를, 11월 '선과 경제', '조동오위에 대해', 12월 '근본불교의 지관', '선림승보전에 나타난 선사상'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발표한다.

동국대 교수 종호스님은 "월례발표를 통해 일반인에까지 선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내년부터 21세기의 대안이라 불리우는 선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연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선학회는 18일 오후 1시 30분 동국대 학술문화회관 예술극장서 제1차 월례발표회를 갖는다. 이날 월례발표회에 앞서 창립총회를 열고, 회장단도 선출할 예정이다.

용성스님 입적 60주년 추모 세미나

대각사상연구원은 29일 오후 2시 서울 대각사에서 '백용성 대종사 입적 60주기 추모세미나'를 갖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보광스님(동국대 교수)이 '용성스님의 후반기 생애'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이어 김광식박사가 '용성스님'에 대해, 양은용교수(원광대)가 '소태산과 원불교운동'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김무생교수(위덕대)가 '회당과 진각종 운동'에 대해, 김경집박사가 '일제시대의 혁신불교'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김용한교수(충북대), 도업스님(동국대 교수), 강동구교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 김창수교수(동국대) 등이 참가한다. (02)925-5507

몸을 다스리는(治身)
자/연/건/강/식/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효,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피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치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라야 제가(齊家:집을 다스림)·치국(治國:나라를 다스림)·평천하(平天下:세계를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 [첫째 수(壽:건강과 장수)·둘째 부(富:부와 귀)·셋째 강녕(康寧:편안함)·넷째 유호덕(攸好德:덕을 좋아함)·다섯째 고종명(考終命: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치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 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질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된다.

「불로화정(不老化精)」·「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 등 「치신(治身)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제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불 로 화 정 본 포

불로화정(不老化精)



산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스님이 40여년전 은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염자(검은 깨)와 감식초 외 10여종의 첨가물 [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소화불량·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불리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펴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격	정가 70만원(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분에게 50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구입문의 : 053)655-2227 (011)808-8880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예금주 : 대구여래원

의료법인 태영의료재단
효성양방·한방병원 무료치료안내

천하의 명산 울산 가지산(경남도립공원) 자연공원 안에 의료법인 태영재단은 현재 380억원을 투자하여 9만평의 대지위에 노인복지 시설인 효성노인병원, 양방·한방병원 300병실과 104실의 실버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의료법인의 자금과 불사(佛事) 시주금으로 마련한 4백억을 투자하여 건축허가분 실버타운 300여실을 증축하고 한국목탑(木塔) 형식의 3층 법당(150평규모), 세계 최대규모인 108미터 열반와불(臥佛)상과 10만위(位)의 영골(靈骨)을 모시는 영묘사리탑(靈廟舍利塔), 열반 와불의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효성양방·한방병원 부분전경

정신병신경성 질환, 당뇨병, 중풍(와사풍 포함), 관절염, 위장병,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노인분들이 완치될 때까지(약 1개월안에 치료 가능) 무료로 치료해 드리고자 하오니, 전국의 불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의료법인 효성양방한방병원
이사장 김시연
(이사장 직통) 대구 ☎(053)655-2227 (011)808-8880 병원비서실 ☎(052)254-26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산 8-4

실버타운 전세안내

구분	비고
2인 1실	전세
1인 1실	전세

선착순 104실 / 매월 식대 400,000원(개인부담)

※단 입원실 사용 1개월씩, 식대 각자 부담

온몸으로 실행해야 계향 피어나

혜능스님의 '재가자 위한 계율' 〈9〉

오계상경-3

계상은 계 지키는 다양한 모습
계법대로 생활할 때 '계율청정'

우바새는 범어이다. 세속에 있으면서 삼보를 받들어 섬기는 남자를 말한다. 우바이는 세속에 있으면서 불법을 신앙하는 여자를 말한다. 불교도는 이렇게 출가 2부중(비구 · 비구니)과 재가 2부중(우바새 · 우바이)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4부대중이라 한다. 출가중은 철저한 수행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계승하는 법의 상속자가 되어야 하고, 재가중은 출가중이 수행에 전념하도록 공양과 외호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재가중은 불교 교단의 뿌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교학적인 이론에 그치거나 기복적인 신행에 치우치기보다 계율에 기초한 신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계상(戒相)은 계를 지키는 것으로 표현되는 모양의 여러 가지 차별을 말한다. 5계, 10계, 250계를 받아서 지킬 때 그 낱낱의 계에는 제각기 차별이 있다. 지범(持犯)의 가볍고 무거움 등 각각의 계에 따라 저마다 다른 모양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간절하게 계율을 잘 준수하는 모양을 가리켜 '계상'이라 한다.

중국 율학의 학풍을 확립한 남산율종의 시조인 도선 율사가 지은 『행사초』에서는 계를 네 가지로 나누어 해석하고 있는데, 곧 계법, 계체, 계행, 계상이다. 이것을 율학에서는 '계의 사별(四別)' 또는 '계의 사과(四科)'라 한다.

원조 율사가 『행사초』를 더 알기 쉽도록 풀어놓은 것이 『사분율행사초자지기』이다. 권상1하에 "성인이 교(敎)를 제정하는 것을 계법이라 하고, 계법을 받아 업을 이루는 것을 계체라 하며, 체에 따라 행위를 일으키는 것을 계행이라 하고, 계행을 행함에 차별의 양상이 있는 것을 계상이라 한다." 하였고 권17에는 "만약 계상을 잘 판별하지 못하면 계법, 계체, 계행의 세 가지 가운데 하나도 깨달을 수 없다. 왜냐하면 법에는 다른 법이 없고 곧 상(相)이 법이며, 체에 다른 체가 없고 모든 상이 체이고, 행에 다른 행이 없고 상을 밟아가는 것이 행을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계를 배우는 이는 계상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문에서 깊이 연구하고 살펴야 할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계의 네 가지 분류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계법은 계의 조문, 공능, 작용, 공덕 등을 말한 율법을 가리킨다. 5계, 10계, 구족계 등은 모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법이다.

계체는 구족계를 받을 경우 세 번의 갈마를 할 때(오계의 경우는 삼귀의를 할 때) 법에 의거해 관상을 하며 마음 속에 계법을 받아들이면 곧 계체를 얻게 된다. 계를 받은 후 일단 한 번 생겨난 계체는 조작할 수 없고, 항상 상속하므로 '무작(無作)'이라 하고, 그 모양이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무표(無表)'라고도 한다. 무작 또는 무표라고도 하는 이 계체는 잘못된 일을 막고 악행을 그치게 하는 공능을 가진 계의 본성이고, 또한 계법에 대하여 신념을 가지고 계법을 받들어 지니려고 하는 의지를 말한다.

계행은 계를 받고 난 뒤 계법의 조목에 따라 이를 실천 수행하는 행위의 표현을 말한다. 흔히 불자가 계를 받아서 그 계법대로 올바르게 잘 지키면 '이 사람은 계행이 청정하다'고 말하는데, 이런 경우의 계행은 계를 받아 구체적으로 현실 생활에서 실천하고 행하는 것을 말한다. 경을 읽어서 지혜가 열리면 '경안(經眼)'이 밝아졌다'고 말한다. 그러나 율장을 많이 읽고 보았다해서 '계안(戒眼)이 열렸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계법에 맞는 생활을 할 때 '계행이 청정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계율은 가슴으로 이해하고 온몸으로 실행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계의 덕이 있게 되고 계의 향기가 피어나게 되는 것이다.

계상은 5계, 10계 등의 계법의 조규에 따라 실제로 행할 때에 그 행하는 모양의 여러 가지 차별을 말한다. 즉 어떠한 종류의 범계를 하면 그 범계를 한 모양에 따라 죄가 가볍고 무거운 것과, 참회할 수 있는 것과 참회할 수 없는 것 등의 정황이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모양을 계상이라 한다. 이 계상을 명료하게 알고 있어야 계를 잘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목우자가 『계초심학인문』에서 "오계나 십계 등을 받아서 지범개차를 잘 알아야 한다"한 것도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지금까지 『불설우바새오계상경』 제목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 경은 이렇게 재가불자가 오계를 받아서 지킬 때 각각의 계를 지킴에 있어서 가볍고 무거운 것과 참회가 되는 경우와 허용되지 않는 경우 등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전이다.

〈해인총림 율원장〉

"학문의 틀 넘어 문화로 발전"

세계의 불교학 〈9〉 영국 ④ 〈끝〉

합리적 불교사상 '생활의 나침반'

런던불교학회(Budd hist Society)를 창립했던 험프레이즈(Humphreys. Chrismas · 1901~1983)는 "불교는 좁은 의미로 사용하더라도 철학이자 종교일뿐 아니라 생활의 한 양식이고 존재 방식이다. 그것은 문화 체계이고 가치 체계이며, 정신적 삶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과거 영국불교학계의 연구 풍토가 동양주의(Orientalism)로만 한정하고 타자로 대상화한 것과는 무척 대조적이다. 20세기 이후 영국의 불교학자들은 불교를 '삶의 방식(A Way of Living)'으로 생각하며, 교리 체계에 의한 도그마의 종교로 생각하지 않았던 세대였다. 그들은 불교의 내면에 응집되어 있는 개인적이지만 이성적이고 또 합리적인 법향(法香)을 즐기며 친화감을 키웠다.

불교학을 연구할 수 있는 대학의 학제(學制) 역시 불교학 연구 풍토의 변화를 가속시켰다. 영국의 불교학 연구는 2차 대전 이후 종교 연구(Religious Studies)와 지역 연구(Area Studies) 등으로 확대되었고, 불교학은 두 연구 틀 속에서 다양한 주제를 과제로 삼을 수 있었다. 특히 아시아권 언어 연구의 확장에 따른 불교의 언어학 · 문헌학적 연구는 심화되었다. 또 종교 관련 연구는 세미나리(Seminary)에 귀속된 형태로 시작되었다가 대학의 학과로 확대돼 '종교학과'의 신설로 이어졌으며, 불교학은 종교학의 한 분야로 정착했다. 그리고 불교 관련 과목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교수들이 임명되었는데, 그들은 아시아 전역에 흩어진 다양한 종교들을 포괄적으로 강의할 수 있어야 했다. 예를 들어 지역 연구의 한 분야였던 동양언어학과(Oriental Language)는 종교학 관련 연구 프로젝트에도 참여해, 비교 · 종교학의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은 영국의 불교학계는 산스크리트 · 빨리 · 티벳 · 중국 · 일본 · 한국어 등으로 기록된 경전들을 연구 텍스트로 선택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한편 제임스, 베버, 엘리아데 등 신화 · 철학 · 종교학 등과도 비교 ·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있다. 부단한 자기 성찰을 거치면서 제국주의적 학풍을 벗고 종교적이고 이지적이며 또 인간적인 가치를 서로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불교학풍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상에서 런던불교학회를 방문하면 90년대 이후 불교학계의 반향을 일으킨 연구 논문과 책들의 목록을 연람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주디스(Judith, Law)의 '영국에서의 베트남불교 공통체의 수행과 신심'(1991)=영국의 리드스대학에서 추진했던 '공동체 종교 조사 계획'에 일환으로 발표된 논문. 여기는 영국내 22,000여명의 베트남 난민의 종교적 심성을 포괄적으로 조사 · 연구하고 있다. ▲코신스(Cousins, L. S.)의 '영국의 상좌부 불교(Theravaada Buddhism in England)'(1990)=담마카야 재단이 1990년 태국의 방콕에서 '불교, 2000년을 향하여'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 이 논문에서 코신스는 19세기 이후 영국 지성계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친 상좌부 불교사 정리하는 한편 그 힘의 근원을 추적하고 있다. ▲멜러(Mellor, Philip A.)의 '프로테스탄트 불교-영국불교에 대한 문화적 해석(Protestant Buddhism-Cultural Translation of Bu ddhism in England)'(1991)=영국의 포리스트 상가(Forest Sangha)가 '영국인의 불교 이해'를 주제로 조사 · 분석한 연구 논문. 불교의 문화사적 이해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스콧(Scott, David)의 '현대 영국불교-양상과 방향(Modern British Buddhism: Patterns and Directions)'(1995)=런던대에 개설되어 있는 동양학 관련 연구소인 SOAS에서 마련한 '불교 포럼'에서 발표된 논문. 티벳불교의 까마파, 영국의 승단, 일본불교의 창가학회 등 영국불교계를 이끌고 있는 종파와 단체를 조사 · 연구했다. ▲알몬드(Almond, Philip C.)의 〈영국에서 불교 찾기(The British Discovery of Buddhism)〉(캠브리지 · 1988)=19세기 빅토리아왕조 시대에 활동했던 철학자들이 불교를 어떻게 수용했는지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 '부다필드 축제(Buddhafield Festival)'를 준비하는 영국인 불자들. 이 축제는 영국의 불교단체 FWBO에서 매년 주관하고 있다.

"거친 마음 맑게 밝혀야 자성깨쳐 부처 이룬다"

법회중계

동화사

〈2000년 3월 1일〉



성덕스님 〈동화사 주지〉

'상구보리 하화중생' 서원세워 부지런히 복과 지혜 닦도록

백년동안 쌓은 재물은 하루아침에 허물어지지만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동안 보배가 됩니다. 부처와 조사스님들은 '명심견성성불(明心見性成佛)'이라고 했습니다. 거친 마음을 다스려 맑게 밝히면 자성을 볼 수 있고 자성을 확연히 깨치면 곧 부처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마음 닦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흔히 부처가 다 된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막상 경계에 처하면 살림살이가 다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자기 자신의 일거수 일투족이 옳고 그른지는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자기 식으로 잘못 해석해서 말하면 사도요, 마도가 되니 신앙생활은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훌륭한 선지식을 찾아 법을 묻고 되묻고 점검 받으면서 나아가야 엇길로 빠지지 않는 법입니다.

자장율사께서는 "하루동안 계를 지키며 살다 죽을지언정 계를 파하면서 백년을 살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율이란 '살생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등 금지의 뜻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맑고 밝은 마음으로 진리를 실천하라'는 경책입니다. 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늘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하루 3번 참회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삭발한 스님들만 수행자가 아니라 계를 지키고 진리를 참구해 나가는 자는 모두 수행자입니다.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집착을 버려야합니다. 사람이 재물이나 사랑에 눈이 멀면 부모형제도 보이지 않게 되니 수행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저지른 행위의 결과는 내가 받게된다는 인과응보의 도리를 명심하고 선업도 악업도 놓아야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무조건 사람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좋다고 해서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까닭입니다.

또한 수행자는 모름지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목표가 없는 수행은 나침반이 없는 항해와 같아서 얼마가지 않아 좌초하고 맙니다. 방일하거나 게을러서는 안됩니다.

히말라야 설산에 '한고조'라는 새가 살고 있었는데 이 새는 너무 게을러서 낮에는 실컷 놀기만 하다가 밤만 되면 "아이고 추워라, 추워. 날만 새면 꼭 집을 지어야지"하고 다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새면 날씨가 따뜻하니 노래부르고 놀다가 또다시 추운 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곤경에 처하면 부처님을 찾다가도 형편이 좋아지면 술집이나 도박장을 기웃거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산에서 단난 도적은 쫓아내기 쉬우나 자기 자신의 마음도적은 쫓아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마음도적을 항복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수행자가 복만 쌓고 지혜를 닦지 아니하면 마치 코끼리가 비단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아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옛날 인도에 지혜와 복을 닦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동생은 복을 닦고 형은 지혜를 닦았는데 형은 동생이 불쌍하고 동생은 형이 불쌍해서 서로 복과 덕을 닦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먼저 죽었는데 하루는 형이 길을 가다가 코끼리가 비단옷을 입고 있어 "전생에 무슨 복을 지었을까"하고 혜안으로 보니 바로 자기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법문을 해주니 동생이 뉘우치고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 머리를 담벼락에 부딪혀 죽어버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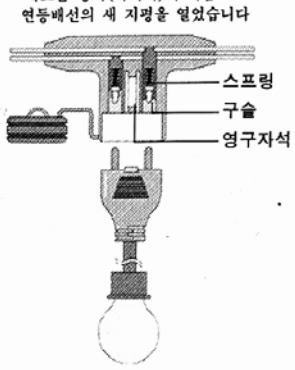
이와 같이 중생구제를 제대로 하려면 복덕(福德)과 지혜를 동시에 닦아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큰 서원을 세운 다음에는 복덕과 지혜를 함께 닦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리=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연등 배선의 혁신

연등배선의 혁신

새로운 방식(자석식)의 제품으로
연등배선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 일체형도 생산합니다.

완전하게 제작에서 「시공」까지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규격
· 법당용 - 30cm, 40cm, 50cm
· 외부용 - 1M, 1.5M, 2M, 3M

※ 주문시 간격을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용도 · 사찰 연등용

특징
1. 불자 기업으로서 卍 표시를 하였습니다.
2. 자석의 특성을 살려 배선의 설치 및 수거가 용이 합니다.
3. 영구자석을 사용하였으므로 자력이 강합니다.(자력2.5Kg)
4. 접촉불량이 없으며 감전의 위험이 없습니다.
5. 한국 · 일본 동시 특허 출원
6. 기존의 제품과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자석식)의 제품으로 사찰용도 전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 시공시 조광기를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생각하는 기업
S2신성
서울시 도봉구 창1동 667-117호
TEL: 02)993-8903~4 / H.P: 011)367-3786
FAX: 02)993-8905
공장 0341)988-1688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마송리 14-22

수행자를 위한 건강 코르크 수제화신발 "卍行"

卍行 신제품

스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건강 코르크 신발의 구조와 기능



◆구조: 反射原理(반사원리)로 만들어 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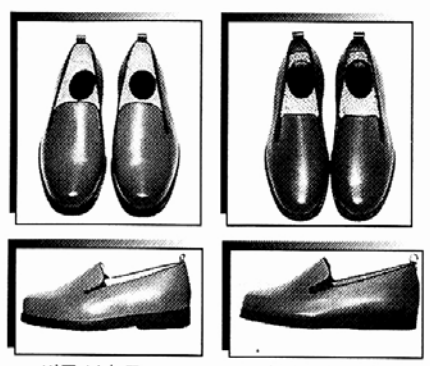
사람의 발바닥과 발에는 63곳의 반사점(경혈)이 (피츠제너럴드:반사이론)(약식건강법) 있습니다. 이 반사구에 적당한 마찰이 가하여 질때 집중된 말초신경의 에너지 순환작용을 활성화 시켜 질병은 현저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며 가장 탁월한 예방의학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신발 만행은 발의 반사구를 골고루 밀착 자극하여 주는 인체 공학의 설계와 천연 코르크의 뛰어난 특성과 최고급 피혁이 상위일체를 이루어 신고 걷는 사람의 체중과 적합한 조화가 이루어 지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기능 : 循環原理(순환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체에는 혈관의 종횡 무진으로 뻗어 있고 이 혈관을 크게 나누면 동맥 · 정맥 · 모세혈관의 3가지로 구분합니다. 동맥은 영양과 산소를 나르고 정맥은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나르고 모세혈관은 동맥이 운반해 온 것을 신체 구석구석의 세포로 건너주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정맥으로 나릅니다. 어느 기관의 부위가 불건강하면 그 순환기능이 반드시 불량 현상을 일으켜 말초신경 및 지구인력의 작용에 의하여 노폐물(요산화합물)이 무릎 위 10cm까지 고이게 됩니다. 그때 발의 반사구를 적절히 비벼주거나 자극을 가하면 신장등의 배설기관에 의하여 쌓여있던 노폐물이 체외로 배출되어 집니다.

스님전용신발 "만행"

길없는 길위에 서 있는 수행자들만을 위한



· 비구스님 用
· 회색, 흑색

· 비구니스님 用
· 회색, 흑색

건강신발 卍行의 특징
1. 구두안쪽의 특수 안창은 천연코르크로 만들어졌습니다.
2. 건강신발은 바닥안창이 발바닥 굴곡 그대로 설계하였습니다.
3. 운동부족으로 인한 평발예방, 관절과 디스크 보호,
4. 신장기능개선

구입문의 0342)742-0296. 742-0297
卍行대표 박동진 합장

시방세계

FM 101.9MHz
BBS 불교방송 후원회
문의전화 : (02)705-5560~1
후원회ARS 전화 : (02)700-0108 은행지로 번호 : 8003478번
외환은행 : 189-13-03929-3
국민은행 : 827-25-0020-943
농 협 : 069-01-238223
예금주 : 불교방송



◇새벽예불에 이어 참회의 절을 올린 행자들은 마음의 때를 씻듯 사찰 구석구석을 청소한다.



◇하루 일과 중 가장 한가한 시간인 오후1시, 행자들은 덕숭산 속으로 들어가 집짝 실수를 한다.

수덕사 행자들의 하루...뜻깊은 '출가절'

마음밭에 뿌리는 '깨달음의 씨앗'

불교 4대 명절인 출가절(음력 2월8일)과 열반절(음력 2월15일)을 맞아 전국의 각 사찰에서는 13일부터 20일까지 경건 주간으로 정하고, 부처님의 출가정신과 열반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법회를 봉행한다.

조계사를 비롯한 많은 사찰에서는 철야용맹정진과 함께 큰스님 설법, 3천배, 참선, 참회기도, 사경, 독경법회, 성지순례 등을 통해 수행자로서의 부처님 삼을 되돌아보며 초발심으로 정진을 다짐하는 기회를 갖는다.

부처님께서 수행을 시작(출가절)하고, 깨달음을 얻은 후(성도절), 열반에 들며 제자들에게 '법등명 자등명(法燈明 自燈明)'을 당부한(열반절) 역사적·교리적 측면이 불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진다면 출가·열반절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김재경 기자

출가절~열반절 '경건주간' 전국사찰 다채로운 행사

◇주요사찰 경건주간 행사

사 찰	때	행 사 내 용	연락처
서울 조계사	13~20일(오전 10시부터)	19일출가, 큰스님(정대, 화산, 활안, 지관, 정무, 무진장, 정락, 지홍 스님) 법문	(02)732-2115
서울 도선사	13일	기념법회 및 100일기도 입재	(02)993-3161
서울 정수암	13~20일	자비도량 참법기도	(02)2298-3377
서울 강남포교원	13일 오후8시	수계식, 열반절 철야정진	(02)539-2601
서울 봉은사	13~20일	8일정진기도, 108참회	(02)516-5652
서울 무진법장사	13일 오전 6시	8인사 성지순례	(02)932-2333
서울 정토회	13~20일	8일 출가정진	(02)567-6993
광명시 금강정사	13~20일	心출가 체험정진법회	(02)893-2700
부산 김로사	15~19일	3천배 참회기도, 큰스님(지관, 정관, 성오, 각성, 홍선, 법회, 혜인, 성우, 철우, 혜총스님)법문	(051)809-0926
부산 분아사	8~14일	열반경 산림법회	(051)646-6237
통도사 부산포교원	13~20일	금강경 사경, 자비도량 참법기도(오후7시)	(051)816-2241
안성 도피안사	12일 오전 10시 30분 13일 오전 10시	스님의 날 행사, '공덕스님과 불교음악' 강연(박범훈)	(0334)676-8700
부천 석왕사	30분 13일 오후8시	수계식(계사 고산스님), 오후불식	(032)663-7771
화성 신흥사	11~20일(오전10시)	19일 출가 수련대회	(0339)357-2665

'파르라니 깎은 머리, 감색 승복, 흰 고무신….'

오로지 깨달음을 얻기 위해 험난한 구도의 길을 선택한 행자들. 이들에게는 하루 24시간이 모자란다. 요즘 각 사찰에서는 출가절을 맞아 '살아 있는 부처 만들기'에 한창이다. 행자들의 원력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에 사부대중 모두가 초발심으로 돌아가자는 뜻에서 행자의 하루를 조명해 보기 위해 지난 3일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법장)를 찾았다.

새벽 2시30분, 아직 집은 어둠 속에서 행자들이 눈을 반짝이며 대웅전으로 향한다. 수덕사의 아침을 여는 사람들이다. 하얗게 뿜어나오는 입김에서 싸늘한 기온을 감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허리를 곧추세우고 대웅전을 향하는 행자들의 기개 앞에서는 추위조차도 행자들의 원력을 담금질하는 열기인 듯했다.

예불을 마치고서는 행자들은 절을 한다. 이는 자기를 버리고 공(空)한 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한 행자교육의 첫 단계. 그래서 행자들은 수시로 절을 한다. 자기를 버리지 않고는 대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리라.

새벽 절하며 하심배우고
도량쓸며 삼독 떨치고
염불하며 '진리의 길' 탐구

예로부터 큰스님들은 행자교육을 강조했다. 큰 깨달음을 이를 씨앗을 행자 때 심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행자 생활은 엄격하고 철저하다. 행자생활이 군생활보다 힘들다는 말이 나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원로 스님들은 하나같이 행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한다. "행자 생활 1년이 평생 중노릇을 좌우한다." "행자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큰 중이 나온다." "스님 복은 행자 때 짓는다." "행자의 길은 최대한 확대하고 사미(니)의 길은 최대한 좁게 해야 한다." "초심 행자에게 인욕하며 하심하는 일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사실 가행 정진을 하지 않는 출가자는 그저 먹물 옷을 입은 사람일 뿐이다. 실제로 해마다 약 5백 여명의 사미(니)스님들이 태어나지만 정진이나 포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환속'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그래서 행자 교육은 지나치리만큼 혹독할 수밖에 없다.

수덕사 행자들의 하루 일과는 쉼 없이 이어진다. 후원의 일은 물론이고, 도량과 법당 청소에서부터 습의와 경전공부, 울력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심지어는 잠을 자는 시간까지도 함애해 경전을 암송해야 할 정도로 끝이 없다. 뿐만 아니라 한치의 흐트러짐도 용납되지 않는다. 엄격한 행동은 수행의 기초이며, 불가의 전통이기 때문이다. 자칫 한눈을 팔거나 실수를 할 때면 "행자님,…하면 안됩니다. …은 이렇게 하세요" 하는 사중 스님들의 불호령이 떨어진다. 그래서 행자생활은 항상 긴장의 연속이다. 이에 대해 원주 효정스님은 "삭발하는 것만으로는 출가라 할 수 없다. 대정진을 일으켜 중생들의 모든 번뇌를 제거할 때 이를 출가라 할 수 있다"며 "행자시절 대정진의 마음을 굳건히 하지 않으면 제대로 중노릇할 수 없다"는 말로 행자교육의 의미를 강조한다.

깨달음을 일러 '눈 위에 찍힌 사슴의 발자국'이라 하기도 한다. 사냥꾼이 발자국을 따라 가서 사슴을 포획하듯이 구도자는 스승이 남긴 족적을 따라 해탈문으로 들어서는 것이다. 때문에 구도자는 좋은 스승이 필요하다. 구도의 첫걸음을 디디기 위해 준비과정을 겪고 있는 행자들, 그들이 정법의 첫걸음을 디딜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얼마나 올바른 행자생활을 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부처님의 품에서 잠드는 행자들. 마치 수레바퀴가 말발굽을 따르듯 사찰에 늘 이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세상의 무명을 밝힐 수 있다.

글=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화계사 국제선원에선…

외국인 행자들 "한국불교 체험"

벽안의 외국인 행자들은 불제자가 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칠까.

현재 우리나라에 외국인 행자들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북구 우이동 화계사 국제선원. 이곳에는 타미르(이스라엘), 마친(폴란드), 엘렌(캐나다) 등 3명의 행자가 교육을 받고 있다. 이들은 한국인 행자들과 다름없이 참선, 울력, 예불 등 불가의 전통적 일상을 체화하며 속진을 털어내고 있다.

이 세 명중 눈길을 끄는 이는 지난해 8월 화계사 국제선원으로 출가한 전직 이스라엘 군인출신의 타미르 행자(23). 타미르씨의 출가 동기는 남다르다. 어릴 적부터 가족 모두가 유대교 신자였던 타미르는 군에 있을 때 우연한 인연으로 고향 테레비 근처에 있는 선센터에 다녔다. 하지만 직접적인 출가의 계기가 된 것은 2년 전 군 제대 후 한국, 중국, 베트남, 일본 등 동남아 불교국가를 여행하다 우연히 접하게 된 숭산스님(화계사 조실)의 가르침에 빠져 들면서부터다. 이어 2년 동안의 여행을 마친 타미르는 이스라엘로 돌아가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 걸망하나 달랑 메고 화계사로 곧장 달려왔다.

새벽3시 아침예불이 시작되기 전 종 치는 일로 타미르 행자의 고된 일과는 시작된다. 새벽 6시 아침 공양을 마치면 경내 청소와 설거지, 연등 만들기 등 울력을 한다. 오전 오후 두 차례로 나눠 해야 되는 6시간의 참선도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일과다. 또 틈틈히 화계사 교무 현성스님과 국제선원의 명공스님으로부터 불교기초교리 교육을 받는다.

올해 8월이면 사미계를 수지하게 되는 타미르 행자는 "처음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울력을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무척 힘들었다"며 "육체가 고된 만큼 정신이 맑아짐을 느껴 이스라엘에 있을 때보다 마음이 편해졌다"고 고된 행자 생활을 환희심으로 받아 들이고 있었다.

행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현성스님은 "음식과 언어 등 다른 환경에서도 외국인 행자들은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하며 잘 적응하고 있다"며 "충실한 행자 생활을 마쳤는데도 출가 전 몸에 새겨진 문신 때문에 종단에서 계를 내리지 않아 남방 불교국가로 가는 행자들도 있어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현재 미국, 유럽 등 전세계에서 온 20여명의 외국인 스님들이 정진하고 있는 화계사 국제선원은 95년부터 매년 4~5명의 행자를 교육시키고 있다.

김주일 기자



◇외국인 행자들도 한국 행자들과 마찬가지로 경내 쓸기, 공양간 청소, 연등만들기, 참선 등 고된 일정의 행자교육을 받는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달마 혈맥론(血脈論) ⑤

佛無犯持 心性本空
불무범지 심성본공
亦非垢淨諸法 無修無證
역비구정제법 무수무증
無因無果 佛不持戒
무인무과 불불지계
佛不修善 佛不造惡
불불수선 불불조악
佛不精進 佛不懈怠
불불정진 불불해태
佛是無作人 但有住着心見
불시무작인 단유주착심견
佛卽不許也 佛不是佛
불즉불허야 불불시불
莫作佛解 若不見此義
막작불해약불견차의
一切時中 一切處所
일체시중일체처소
皆是不了本心
개시불료본심

부처는 계율 따위를 범할 것도 지킬 것도 없다. 심성(心性)이 본래 비었으므로 더럽다거나 깨끗한 법도 없고, 닦을 것도 증득할 것도 없고, 원인도 결과도 없다. 부처는 계를 지닐 것도 작악무과 여차지인
墮無間黑闇地獄
타무간흑암지옥
永無出期 若是智人
영무출기 약시지인
不應如是見解
불응여시견해

견성도 못했으면서 항상 조작(造作)함이 없다는 생각을 한다면 큰 죄인이며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는 무기공(無記空: 이것도 저것도 아닌 공)에 빠진 것으로 캄캄함이 마치 취한 사람 같아서 좋고 나쁨을 분간조차 못한다. 만약 조작됨이 없는 법을 닦으려 한다면 먼저 견성한 뒤에 모든 인연법을 쉬어야 한다. 견성하지 못하고 불도를 이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인과를 무시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하면서 '본래 비었으므로 악한 짓을 해도 허물이 없다.'하며 헛소리를 한다면 이런 이는 무간지옥·흑암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견해를 내지 않는다."

부처는 계를 지닐 것도 없고
닦을 선도 없고 지을 악도 없다

없고, 닦을 선도 없고, 지을 악도 없고, 정진할 것도 없고, 게으름도 없다. 부처는 조작(造作)함이 없는 사람이므로 만약 집착하는 마음이 있다면 부처는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처라 하면 이는 부처가 아니니 부처라는 견해를 짓지 말아야 한다. 만약 이러한 뜻을 알지 못하면 언제 어디에서나 본심을 알 수 없다.

若不見性 一切時中
약불견성 일체시중
擬作無作想 是大罪人
의작무작상 시대죄인
是疑人 落無記空中
시치인 낙무기공중
昏昏如醉人 不辨好惡
혼혼여취인 불변호오
若擬修無 作法 先須見性然後
약의수무 작법 선수견성연후
息緣慮 若不見性 得成佛道
식연려 약불견성 득성불도
無有是處 有人 撥無因果
무유시처 유인 발무인과
熾然作惡業 妄言本空
치연작악업 망언본공
作惡無過 如此之人
작악무과 여차지인

問曰 旣若施爲運動 一切時中
문왈 기약시위운동 일체시중
皆是本心 色身無常之時
개시본심 색신무상지시
云何不見本心
운하불견본심
答曰 本心常現前 汝自不見
답왈 본심상현전 여자불견
問曰 心旣見在 何故不見
문왈 심기견재 하고불견
師云 汝曾作夢否
사운 여증작몽부
答曰 曾作夢
답왈 증작몽

어떤 이가 물었다. "만일 모든 행위와 시간이 모두 본심의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육신이 죽을 때엔 어째서 그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대답했다. "본심이 항상 눈 앞에 나타나 있으나 그대가 보지 못할 뿐이다."
물었다. "마음이 있어 볼 수 있다면 어째서 보이지 않습니까." 도리어 물었다. "그대는 꿈을 꾼 적이 있는가?"
대답했다. "있습니다."

김원각〈시인·역경위원〉

큰 스님과의 대화

지옹스님

화엄사 선덕

조계종 교육원이 본말사 주지스님 8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종단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응답자의 69.2%가 '승려의 자질향상과 수행정신 회복'을 꼽았으며 94.7%가 '출가기준이 엄격해야 한다'고 답했다. 승가의 대사회적 위상추락을 절감하며 승가의 자질함양과 승풍진작이 시급함을 절감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또 2월 23일 조계종 교육원, 강원, 중앙승가대, 종회, 선방 등의 대표들은 '종단사태의 교훈과 승가의 과제' 좌담회에서 98년과 99년과 같은 종단사태가 더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스님들의 재교육을 통한 자질향상을 으뜸과제로, 계율교육 등의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19살에 출가한 뒤 말사 주지 한번 맡지 않고 일생을 선방 수좌로 보낸 지옹(智翁)스님을 만나 출가수행자의 자세와 승가의 위상확립, 그리고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 지옹스님은 1970년부터 1983년까지 13년동안 해남 대둔사 북암 옆에 토굴을 직접 짓고 손수 밥을 지어먹으며 혹독한 수행생활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혼자 지냈지만 대중생활과 똑같이 죽비를 쳐 바릿대를 펴고, 입선과 방선을 하는 등 철저하게 고행을 했고, 최근까지도 선방에서 까마득한 후학들과 함께 안거에 드는 등 수행에 귀감을 보여온 선사다.

"계행 지키면 초심 그대로"



· 1925년 경북 울진 生
· 44년 금강산 마하연에서 철해스님을 은사로 출가
· 47년 상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 해인사 통도사 봉암사 등 제방 선원서 정진
· 1970~83년 대둔사 북암 토굴서 용맹정진
· 현재 구례 화엄사에 주석

—스님께서는 1944년에 금강산 마하연에서 출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올해로 출가 56년째인데 그 옛날 하고 요새 스님들 하고 출가 목적이나 출가하는 마음자세가 많이 달라졌음을 느끼시는지요? 세월이 아무리 달라졌어도 '도를 깨치겠다'는 근본목적은 변함없을 것 같은데....

▲예전에 스님들은 부모형제조차도 다 버리고 산문에 들 때의 마음이 요즘보다는 확고부동하고 초발심을 견지하는 마음도 보다 철저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속세를 버렸지만 중생을 부모로 여기고 도를 깨쳐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이 강했지요. 나도 출가한 지 56년이 넘었지만 한번도 집에 안 갔어요. 주지를 하고 가람불사를 하는 등 소임이 있겠지만 수행 잘해서 본 자성을 보고 중생제도하는 근본 목적을 잊으면 안됩니다. 양식 없으면 탁발해서 먹고 옷이 없으면 누더기를 주워 입겠다는 굳건한 마음만 있으면 되지요. 세상연에 연연할 것이 없어요. 일생 수도하다가 죽으면 내생에 또 하고 끊임없이 수행하겠다는 마음을 평생 지속시켜야 합니다.

—지난해와 같은 종단 분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뜻에서 종단사태의 본질을 바로 보고 승가의 바람직한 진로와 승가교육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는 좌담회가 개최되는 등 승가의 자질향상과 청정수행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승풍진작을 통한 청정한 승가상의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요?

▲첫째가 계행입니다. 계행이 없고는 불교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본래 우리 마음 자성자리가 우주생기기 전에 있어요. 마음자리속에 삼천대천세계가 벌어져 있는 거지, 삼천대천 세계가 마음자리 바깥에 있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예요. 하늘에 해가 뜨면 나무도 꽃도 피고 습기도 마르고 하는 것처럼 그런 그 본 자성자리속에서 전부 화현해 나오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세생생 살생도 많이 하고 도둑질도 많이 하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술도 많이 먹고 음행도 많이 하고… 그런 업을 지어가지고 중생노릇을 해왔지요. 본 자성은 저버리고. 그러니까 계행을 지키는 것이, 그대로 범하지 않는 것이 토대가 돼야만 닦아나갈 수 있습니다. 허공에 해가 비치면 세상사가 다 밝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업장을 다 소멸하면 본래 있는 자성이 드러납니다. 불교는 어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예요. 다생겁래 탐진치로 인해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해 사람도 되고 축생도 되고 이렇게 윤회를 하며 고생을 하고 사는 것이지요. 세상에는 별별 동물, 미물이 다 있지요. 우리도 그러한 몸을 겪고 내려온 것입니다. 어쩌다가 마음을 잘 써가지고 금생에 부처님법을 만난 거지. 이러한 귀한 인연을 만났는데 계율을 토대로 수도해야 수도가 제대로 되고 또 본자성을 찾을 수 있어요. 살생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는 자체가 본 마음이기 때문에 계행을 지키는 것이나 수도하는 것이 들이 아니예요. 계행을 지키는 것이 곧 수도요, 도를 닦는 것이 곧 계행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만 명심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요새는 스님들도 선방에서 수행하기보다는 주지로 가고 싶어하고 포교·복지로 나가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일생 수좌로만 살아오셨는데요, 이런 경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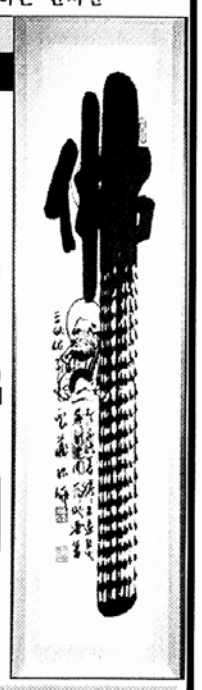
▲생활방편으로 하는 일이 아닌가, 명예 때문이 아닌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수행부터 든든하게 바로 되어 있어야 되고, 모든것을 수행방편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새 풍토가 수행에만 전념하는 사람들을 홀륭하다 말로는 하지만 일생동안 여법하게 걸망지고 수도하는 사람들을 진실로 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돈 많이 생기는 절에는 서로 주지를 하려고 싸워요. 그건 수행이 아니라 욕심입니다. 가람을 수호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지만 돈 때문에 싸울 정도가 되면 안 되지요. 현재 수행풍토가 희박해져 가 정말 걱정입니다. 나 같은 이는 절도 안 말고 수좌로만 떠돌다보니 어느 절에도 마음놓고 있지를 못해요. 요새 문중의식이 너무 강해 다른 사람들은 발붙일 수도 없어요. 지금과 같은 편협된 문중의식을 타파해야 한국불교가 발전합니다. 어른을 모시는 풍토가 다시 자리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입만 가지고 수행회복하자 떠들어봤자 소용없어요. 공부가 투철한 어떤 스님이 한군데 자리를 잡고 진짜로 수행하고 싶은 사람 오라 해서 속인이든 중이든, 그래서 한명이든 두명이든 철두철미 가르치면 될까. '일생동안 수도만 하다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이 나와야지.

—노스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행자 때 평생의 수행지침이 세워진다'고 하십니다. 출가자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지금의 행자교육 제도로는 미흡하다는 것이지요. 철저하게 수행가풍을 들이기 위한, 행자때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자교육원을 별도로 만들어 최소 6개월~1년 교육을 시키고 승가고시도 철저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절에서의 규율이 엄했지요.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용린佛字체 반야심경

한국신기록을 획득한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용린 佛字체」 최초로 공개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 그림, 龍자그림(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 인터넷 ◆ http://www.mahamall.co.kr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복사를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주)(02)2242-0331, 2242-0255 (야)(02)2216-0307, (011)471-1996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 高養山 야생참 인진쑥 엑기스

고양산 야생참 인진쑥 엑기스는?
자연만을 고집하는 구생복지원 임행스님이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일대의 깊은 산속에서 자라는 야생 참인진쑥(茵蔯蒿)을 여러 처사님들과 함께 직접 채취하여 고양산 자락에서 5년이상 자란 황기, 당귀, 자연산 복분자(산딸기)등 8종의 약초를 가미해서 강원남부생약농협 식품사업부에서 현대식시설을 이용 위생적으로 추출 가공한 건강식품이므로 승려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중에 유통된 인진쑥과는 다릅니다.

구생복지원 강암행스님
공급가격 - 2개월분 ₩175,000
우체국 010108-0179782 강종무
은행신용카드 18개월 분할 가능
뼈에 관절이나, 골다공증, 골절등에 특효라는 홍화씨를 스님들이 직접 유황과 불재를뿌리고 재배한 토종홍화씨환을 필요하신 분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순수익금은 (전액) 복지사업에 쓰여집니다.
체질에 관계없이 남자, 여자, 노인분들, 임산부, 노약자, 입원환자 등 모두에게 좋습니다.
1. 변비에 좋습니다. 2. 피를 맑게 해 줍니다. 3. 당뇨병 4. 신경통 5. 생리불순이나 냉대하 6. 간이 나쁜사람 7. 위장병에도 효과적입니다. 8. 고혈압, 저혈압 9. 피로회복에도 아주 좋습니다. 10. 정력 회춘에도 아주 좋습니다. 11. 불면증, 황달 12. 산모에게도 탁월한 효과!
☎ 주 문 처 080-988-4774
☎ 소비자상담실 0398-563-4778
인터넷 http: //www.yasenginjinssook.co.kr

◆◆◆ 목재 전용 ◆◆◆
방부·방충·방염·방수제

◀ 오대산 상원사
WOOD-SEAL (방부·방충·방염·방수)
효과
◆ 문화재,사찰 통나무 주택, 한옥 주택/코팅막이 형성된 이후에도 통기성이 97% 유지되기 때문에 주거공간에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이다. (나무의 뒤틀림 방지)
◆ 페인트의 내구성이 요구되는 목제품(단청)
◆ 나무의 자연미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 투명코팅을 하는 목제품(무광택)
용도
◆나무표면 내부로 침투해 그곳에 뿌리를 둔 코팅 보호막을 형성 (U/V코팅기능)으로 산성비에 강함
◆최소한 5년 보증의 부패방지
◆방염성을 가지게 한다.
◆반 영구적인 방수(수용성, 침투성 2~3m/m)
◆곰팡이, 이끼 발생방지(흰개미), 해충 침입방지
◆통기성(Breathing) 양호 · 1회 시공으로 경비절감
취급품목
⊙ 못으로 시공하는 방수시트
⊙ 퇴색 방지 방수제
⊙ 곰팡이 이끼 제거제
⊙ 석재 석탑 세척제
목구조주택 보수 문의 환영합니다.
동화특수산업(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589-8 현대B/D 208
TEL: 02)3474-6232(代) FAX: 02)3474-0144
http://www.dongwhalnd.co.kr

금해스님의 여래선식

오랫 동안 기다리신 소납의 선식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122종류의 약재와 순수한 토종 곡류로 각 약재마다 특성을 최대한 살린 9증9포와 오랜 법제 기간을 거쳐 3년에 걸친 노력 끝에 완성되었습니다. 15년 이상의 경험을 살려 수 천년 민족비방과 1천여 년간의 佛家 선식을 합친 환 및 가루 선식으로 복용방법이 간단하며 남녀노소 체질 등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래선식은 현대의 각종 공해로 인한 유전자 변형과 음식물 및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오장육부의 일체 질환과 체질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특히 간염, 간경화, 간암 등에는 놀라운 치료 효과가 나타납니다.
▶▶ 치료 대체효과로 본 증상 사례 ◀◀
1. 비, 위장 및 소화기 질환, 대장병
2. 기관지 천식, 폐암, 기관지염, 선후암
3. 비만 및 체질개선
4. 각종 초기암 및 진행암
5. 수술전후 방사선 및 항암치료
6. 병원에서 진단되지 못하신 분 친견
7. 우울증, 정신장애, 신병 등에 관한 친견
주문 신청 0523)372-1221 / 011)564-1217
▪대 금 : 35만원
▪입 금 : 우체국 611715-0029373 예금주 : 지덕용
▪주 소 :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754 약사사

술을 한잔 먹든지 담배를 피우든지 하면 그대로 내쫓았어요. 계행에 어긋나면 바로 옷 벗기고 속복을 입혀서 내쫓았지요. 또 여자는 절에 절대 못 들어왔어요. 요새는 너무 무뎌졌지요. 예전에 수좌들은 음식을 여자가 만들었다면 먹지도 않고 내버렸지요. 그만큼 계행에 철저했다는 얘기지요. 그 정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게 풀어진 것이 일제시대부터지요.

-최근 들어 참선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가 어렵다고도 하고, 수행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지레 고개를 흔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보다는 기복에 빠지기 쉬운데 불교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요.

▲불교를 소극적으로 믿어서는 안됩니다. 우선 우리 마음자리가 우주생기기 전에 본래 있는데 그 마음자리에서 한생각 일어나는데서 시방세계가 벌어졌으니 우주 만물이 다 청정한 마음이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방속에 들앉아 있으면 방안에 있는 것을 모를게 없는 것처럼 본래 마음자리를 알게되면 우주진리를 자연히 깨치게 되는 것이지요. 불교는 그만큼 스케일이 큽니다.

일체 모든 것이 불교 안에 안들어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바로 보고 바로 알고 바로 중생에게 교화해서 끝이 없고 시작도 없는 안락생활, 참말로 자유자재한 근본도리를 바로 가르치고 바로 참구해서 바로 보게 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우주라는 것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무한히 크지만 그것이 이처럼, 내 손바닥안에 있는 컵을 보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들어 있다는 것을 깨치는 것이 불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늘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제일이라 하지만 불교에서는 삼천대천세계를 말하지요. 수억만개의 세계가 있지만 중생들이 마음먹는 것, 움직이는 것을 마음 하나로 다 보아버립니다. 우주 전체가 내 마음 자성자리와 같다는 이치를 체득하는 것이 부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을 가지고 보듯이 우주 전체가 전부 다 봐버려져요. 우리 몸뚱이가 눈이 있으면 눈으로 보고 입이 있으면 입으로 말하듯 그때가서는 우주 전체가 내 눈 내 입이 되는 것이지요. 상대가 없어요. 부처님 같은 큰 도인들은 중생들이 보기엔 몸이 있는 것 같지만 우주 전체가 몸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방세계 이대로가 내 몸이요, 이대로가 내 눈이지요. 팔만사천 법문이 있지만 그 핵심은 근본 마음자성자리를 들고 업장을 녹이는 바른 길로 들어가 부처가 되라는 것이지요.

-요새 도시에 있는 선방에서는 생활 가운데 틈틈히 시간을 내어 좌선을 하려는 재가자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인데요, 참선을 하는 불자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부처님 당시에 사리불이 고요한 숲속 나무밑에서 많아 좌선을 하고 있는 것을 유마거사가 보고 타이른 말이 있습니다.

"앉아만 있다고 해서 그것을 좌선이라고 할 수는 없다. 현실속에 살면서도 몸과 마음이 동요가 없는 것이 좌선이다. 생각을 쉬어버린 무심한 경지에 있으면서도 온갖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좌선이다. 마음이 고요에 빠지지 않고 또 밖으로 흩어지지 않는 것이 좌선이다. 번뇌를 끊지않고 열반에 드는 것이 좌선이다"

장사를 하든지 밥을 먹든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끄달리지 않으면 행주좌와 어묵동정에 뭘 하더라도 선이 될 수 있습니다. 선방에 들어앉아 하는 것은 그것에서 힘을 양성해 가지고 이 세상에서 뭘 하더라도 여여하게 하자는 뜻이니까 초보자들은 선방에 가서 하면 힘이 생기지요. 그러나꼭 선방에 들어앉아 있어야만 공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도리라는 것은 한생각 일어나기 전때, 한생각도 안 일어나는, 말 안하고 생각 안 일어날때 오는 당처, 가만 있을때 오는 근본당처를 들고나가는 것이 선입니다. 우주생기기 전때 근본당처를 들고나가는 것이 선입니다.

-망상때문에 진척이 안된다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망상이 태산같이 오더라도 망상이 왔다는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지요. 가만 놔두고 화두에 집중하세요. 본자성 들고나가는 것이 힘이 세지면 번뇌망상이 점점 녹습니다. 힘을 얻으면 새로 든다는 생각도 없고 망상이 일어난다는 생각도 없고 저절로 죽 나가게 되지요.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거나 언제라도 똑같이 되고, 또 밤에 누워자면서 꿈을 꾸더라도 화두가 들리지요. 그 다음단계로 넘어가면 누워자 코를 골더라도 화두가 들려. 남들이 보면 누워 자는 것 같지만 정신상으로는 자는 것이 없으니까 저절로 화두가 들리는 경지에 간다면 깨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염불수행은 일반적으로 쉬운 수행법으로 알고있고 요새 부쩍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염불수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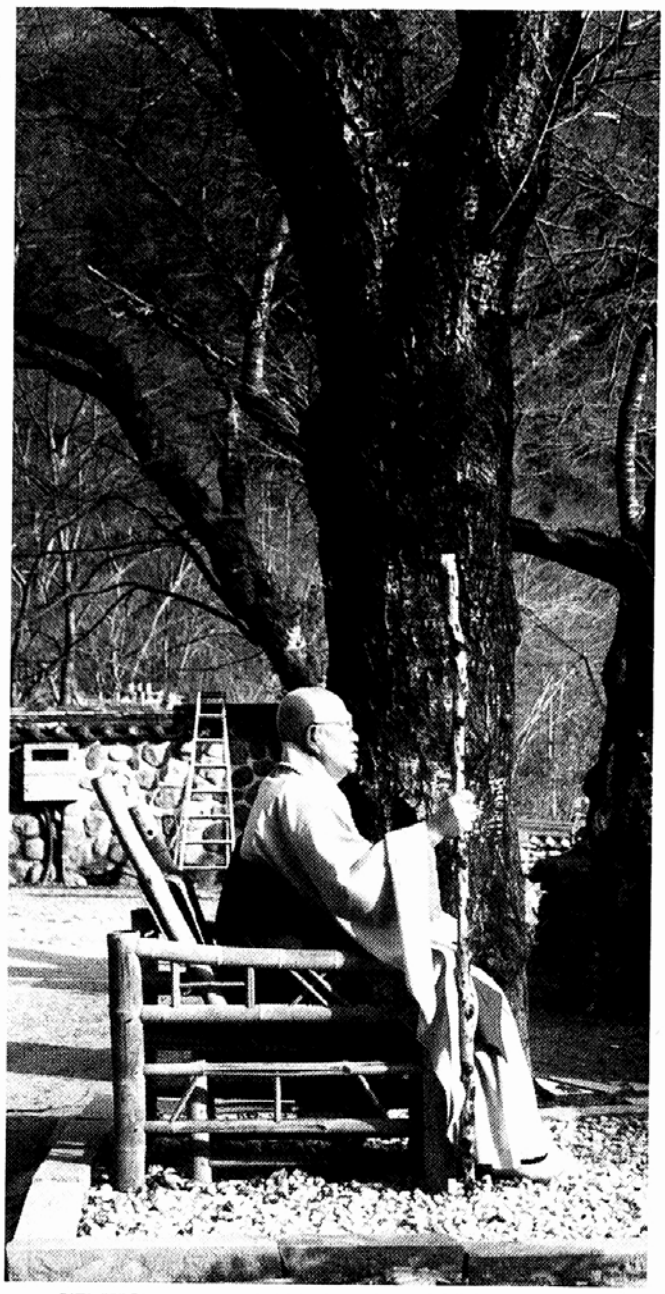
▲아미타불 부르든지 관세음보살 또는 지장보살 부르든지 뭘 하더라도 조금도 차별이 없어요. 첫번에는 고성지(高聲持)로 하세요. 큰소리로 부르는 것이지요. 그렇게 익혀서 조금 힘을 얻게되면 옆에 사람이 들을까 말까 하는 미성지(微聲持)로 하고, 그래서 힘을 얻어 나가면 혓바닥을 놀리지 않아도 되는 '비동설지(非動舌持)', 즉 혓바닥을 놀리지 않아도 저절로 염불이 나간다는 경지지요. 자꾸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힘이 생깁니다. 그렇게 힘을 얻으면 금강지(金剛持)로 들어갑니다. 금강지로 들어간다는 것은 염불할 것도 없고 선정할 것도 없고 하려고 할 것도 없이 자연적으로 저절로 되는 경지지요. 그게 염불선입니다. 그렇게 익고 익고 더 익히면 바닷물에 달이 비추는데 파도가 쳐도 조금치도 동하지 않고 등대가 비추거나 배가 오거나 조금도 동요함이 없는 달과 같은 경지에 이릅니다. 염불선으로 해서 금강지에 드는 것이나 꿈속에서 조차도 화두에 드는 것이나 한가지예요. 우리가 성불한다는 것이 뭐 될것을 찾아가지고 되나보다 이렇게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세요. 견성성불은 이미 돼가지고 있는데 허공의 해와 같이 본 당체를 들고나가면 다생겁래 익힌 업장이 녹아빠지면서 본자성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좌들이나 후학들에게 평소 강조하시는 점은.

▲하나입니다. 청정계행으로 공부 잘하라고 합니다. 불교 살리고 죽이는 것이 다 계행 지키기에 달려있어요. 계행이 없는 데서 공부는 발전못합니다. 계행이 근본이 되면서 공부를 하면 계행과 선이 둘 아닌 지경에 들어가고 그래야 진짜 공부가 되는 것이지요.

대담=이경숙 부장
(gslee@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몸과 마음 동요없는 것이 좌선
업장 녹으면 본자성 드러나요



◇청정계행을 지켜 수행에 일로 매진하는 것만이 한국불교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하시는 지용스님.

효림스님이 쓰는 이런스님

■햇차같은 선승 여연스님

세상이 급변하고 있었다. 조선조 말 유생들 사이에도 실학이라는 새로운 사상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 실학이라는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다산 정약용이라든지 추사 김정희라든지 하는 천재적인 사상가들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천재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교유를 한 스님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초의 의순 선사이다. 사상이나 학문에 있어서나 시서화 등에 있어 당대의 누구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었고 거기에 승려로서도 당시 불교계를 대표하는 대 선사였다. 그러나 후학인 우리들이 스님을 가장 먼저 기억하는 것은 다성(茶聖)으로서의 초의이다.

배불정책으로 인해 변변한 불교인물이 없던 그 시대에 초의선사는 '차'만으로도 불교사 뿐 아니라 우리 민족사에서 빛나는 위대한 인물이다. 다산과 추사에게조차 초의는 차에 있어 스승이다. 술밖에 모르던 조선시대의 선비들에게 차를 마시게 하고 차의 문화와 멋을 알게했다.

그러한 차인으로서의 초의선사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스님이 있다. 바로 해남 대둔사 산내 암자인 일지암 암주로 있는 여연(如然)스님이다. 일지암은 초의선사가 직접 창건하고 말년을 보낸, 한국차문화의 고향과 같은 곳이다. 일지암은 오랫동안 그 위치가 어디인지도 알지못한 채 문헌상으로만 전해 내려왔었다. 그런데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70년대에 암자터를 찾아내고 지금의 암자를 새로 지었다. 여연스님은 그때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중 한사람이었고 지금은 일지암의 암주가 되어 일지암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여연스님은 바로 초의선사의 후신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전통문화 해박한 지식
녹차 대중화에 기여

내가 여연스님을 초의선사의 후신이라고 하는 것에는 단지 그가 일지암에 살고 있어서뿐이 아니다. 다인(茶人)으로서의 초의를 닮은, 다인으로서의 여연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요즘은 너 나 없이 차를 즐겨 마시고, 또 녹차가 동네 슈퍼에만 가도 살 수 있게 일반화되었다. 하지만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산중의 스님들만 마시는 것이 녹차였다. 아니 60년대 내가 처음 승려가 되었을 때만 해도 절 집안에서조차 차는 흔한 것이 아니었다. 특별한 몇몇 스님만 마시는 기호품이었다. 그런 차를 우선 스님들의 일반적인 기호품으로 유행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한 스님중 한 사람이 여연스님이다. 나 역시 이때부터 차를 몹시 좋아하게 되었다. 여연스님을 알게된 일은 꽃이 화사하게 핀 봄날 잘 법제된 우전차(雨前茶)를 마시는 것만큼이나 싱그럽고 기분좋은 일이었다. 그러고 보니 여연스님은 싱그러운 햇차같이 샤프한 그런 선승(禪僧)이다.

오늘날 전통차를 마시자는 취지 아래 우리 사회 전반에 너나 없이 녹차를 마시는 것이 유행하게 된 저변에는 여연스님같은 분이 큰 기여를 했다. 남들은 차가 무언지도 잘 모를 때 스님은 사천 다솔사를 찾아가 당대 최고의 다인 효당스님에게 차를 견문(見聞)하고 배웠다. 그리고 차에 대한 문헌을 모으고 공부를 했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차를 강의했다. 당시 전국 각 대학에서 여연스님의 차 강의는 아주 유명했다. 물론 지금도 여연스님의 차 강의는 명강으로 유명하지만 차를 널리 알리는데 공을 세운 스님이다.

여연스님이 시대를 앞서간 것은 차에 국한되지 않는다. 솔직히 불교가 민족의 전통을 계승하는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강점이 있지만(차문화를 포함해서) 반대로 외국문물에 대한 이해에는 약하다고 볼 수 있다. 한데 여연스님은 일찍부터 우리문화 전통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울러 외국문물에 대해서도 남달리 깊이 이해하고 있는 몇 안되는 스님이다. 어렸을 적부터 영어를 잘했고 그 영어를 바탕으로 근 현대 서구사회의 음악이나 그림 같은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폭넓게 이해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조계종단에 인재가 없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인재를 활용하고 인재를 대우할 줄 모르는 게 아닐까?



그림 · 문병성

그건 그렇다치고 내가 여연스님을 정작 좋아하는 것은 그의 섬세한 감수성과 사물을 보는 아름다운 마음이다. 그는 그 섬세한 마음을 바탕으로 맛깔스런 글을 쓴다. 입안에 들어가면 살살 녹는 감칠맛 나는 글을 쓰는데는 아마 여연스님 같은 분도 없으리라 생각한다. 나도 이곳저곳에 두서없이 글을 쓰는 사람이지만 나는 그냥 운등을 하는 사람으로서 쓰는 글인데 비해 여연스님은 문학성이 높고 향기를 가진 글을 쓴다.

무등산 뒤에 가면 옛날 송강정철 문학의 산실이라고 하는 식영정(息影亭)이 있다. 그 식영정에 대한 여연스님의 수필을 읽은 적이 있는데 정말 글이란 이렇게 쓰는 것이구나 하는 감탄이 나오게 했다.

나는 단순하면서 담박하기도 한 성품의 여연스님을 좋아하고 여연스님의 글을 좋아한다. 우리는 마땅히 좋아할 것이 있으면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며 칭찬할 것이 있으면 또,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불교와 불교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

2000학년도 (제 13회)
전북불교대학 불교학과 통신과정 신입생 모집

① 취 지
본 대학은 1988년 개교 이래 13년간 1천5백여명의 학인을 배출한 불교교육의 명문교양대학으로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통신과정 개설을 요청해와 금년에 통신강좌를 개설하고 신입학인을 모집함.

② 교육과목

학 과	교육 과목	수업시간(야간) 오후7시-9시
불교학과 (16학점)	부처님의 생애, 불교개설, 불교와 생활, 천수경강독, 대승불교사상, 금강경강독, 불전개설	매주 목 · 금요일
법사과 (16학점)	반야심경, 초발심자경문, 불교와 동양사상, 한국불교사상, 선사상, 의식실수, 포교이론과 실제, 비교종교학	매주 목 · 금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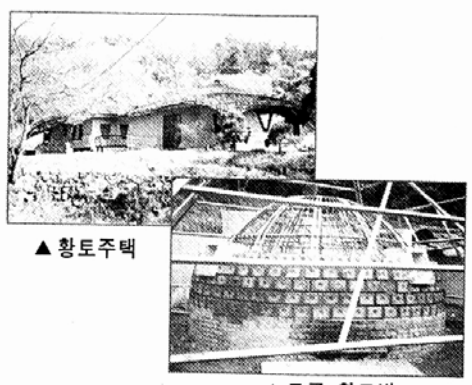
③ 모집요강
◆모집학과 : 불교학과(150명) / 법사과(150명)
◆지원자격 : 불교학과 :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모든 분
법 사 과 : 본 대학 불교학과 1년 졸업자 및 동등이상의 자격 가진 분
◆교육년한 : 1년 ◆구비서류 : 입학지원서 1매, 반명함판 사진 3매
◆정규출강반은 매주 목 · 금(오후 7~9시) 대학 강의실에서 수업
◆입학식 : 2000년 3월 5일(일) 오후 2시 본대학 큰법당

④ 기 타 (통신과정)
◆강의 테잎 매주 우송(정규반과 진도 동일) ◆학교신문(월간) 및 학교 발행물, 각종자료 우송
◆정기등교일 : 입학식, 졸업식, 성지순례, 수련대회, 연2회 특강(동,하계)
◆통신강좌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금융기관으로 수강료 입금후 전화 또는 팩스 연락바람.
전북은행 003-02-0042737 예금주 강건기

⑤ 통신 강좌반을 위한 강건기 교수 '알기 쉬운 불교' 특별강좌
· 전북불교대학 강건기(전북대 철학과 교수) 학장의 알기 쉬운 불교가 통신강좌반을 위해 특별히 진행됩니다.
· 부처님의 전생담에서 부처님 생애 - 인도 · 중국 · 한국 · 일본으로 전해져 오늘에 이른 불교를 시대 · 교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한 불교 서사시
· 이 강좌는 불교 초심자를 위해 눈높이를 맞춘 통신 대장경으로 불교를 이해하는데 소중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전북불교대학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748-5
☎ (0652)226-7878 FAX (0652)226-7879

대 륙
황토방 · 황토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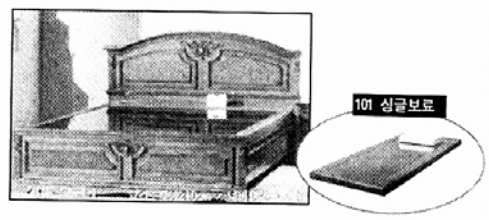


▲황토주택 ▲토굴 황토방

◐ 양질의 순수 황토만을 사용하여 시공
◐ 전통 방식의 구들시공
◐ 풍부한 건축 경험으로 완벽한 시공

대륙건축 황토방 사업부
대표 이 성 우
경기도 용인시 남2동 424-3
TEL : 0335-336-6563
FAX : 0335-338-8923
H.P : 011-9680-5055

숙면, 쾌변 그리고 氣…
몸이 나이를 느끼십니까?
이젠 돌침대를 쓰셔야 합니다.



침대가 과학이라면, 돌침대는 자연입니다.
돌침대 만들기 10년, 침대가 전자파 제거 기능을 갖고 있는 세계 유일한 특허(등록 0157651호)제품

돌침대의 효능
◆봄(가을)에 불을 안 넣으면 방바닥이 차고 ‥정말 돌침대가 필요할때
◆여름에 새벽바닥 축축하고 눅눅한 냄기에 ‥라빙스톤으로 시원하게
◆척추를 반듯하게 교정해 줍니다. ◆몸속 깊숙히 원적외선이 전달됩니다.
◆구석구석 피가 돌게 합니다 ◆쌓여있는 노폐물을 빼 줍니다.
◆돌매트에서 원적외선, 음이온이 쏟아져 배기는 느낌이 없습니다.
◆초장파 시스템으로 몸속 깊숙이 뭉친곳을 풀어줍니다.
◆유해전자파, 정전기를 완전 제거하고, 수맥을 차단하였습니다.
◆평생 A/S로 안심하고 대를 물려 쓸 수 있습니다
◆한달 전기료는 12,000원 안팎(1일 10시간 사용 기준)으로 부담없습니다 (2인용)

★ 원적외선의 풍부함을 온가족이 맛 볼 수 있는 기회!
※ 제품가격 : 보료 89만원(S)부터, 침대 169만원(Q)부터 : 전국무료배송 설치

돌침대의 名家 氣 라빙스톤 (옥스톤)
본사 · A/S : 02) 424-9427 직영점: 0333)618-7773

얼음녹듯 냉전상흔 풀릴 날 꿈꾸며…

백두대간 속으로 〈10〉

민주지산



◇백두대간 위에서 바라본 가야산. 화면 왼쪽 위에 솟은 봉우리가 가야산으로 초점산에서 뻗어나간 백두대간의 가지줄기이다.

빨치산 전투·특전사 凍死등 비극 간직
민주지산 이름 '민두룸한 산'서 따온 듯

물한계곡을 거슬러 백두대간을 오르는 길은, 산을 오른다는 느낌보다는 산 속으로 빠져든다는 느낌이 들게 한다. 조금씩 경사를 높이는 데다, 왼쪽으로 백두대간의 가지줄기와 오른쪽으로 민주지산(1241.7m)이 우뚝 솟아 계곡의 깊이를 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백두대간의 마루금을 밟는 일은 잠시 밀쳐두고 물한계곡과 민주지산을 온전히 살피기로 했다. 백두대간의 등성이로 향하는 수많은 고삿길을 이런 식으로 다 더듬을 수는 없지만, 가끔은 이렇게 한숨 돌리며 사방을 둘러보는 여유를 갖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계곡 초입에서부터 물한(勿閑)이라는 한자 이름이 여간 거북살스럽지 않았다. 그냥이 고장 사람들처럼 사철 마르지 않을 만큼 물이 많아서 생긴 이름이라고 생각해도 안될 건 없겠지만, '대동여지도'에도 물한(勿閑)이라고 똑똑히 적혀 있으니 그 속내가 더욱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말 그대로라면 '한가로움이 없다' 또는 '한가롭기를 바라지 말라'는 뜻일 텐데, 이런 깊고 한적한 계곡에서 한가롭지 말라니, 그럼 한가로움은 어디서 찾으란 말인가. 물론 궁벽산 산촌의 삶을 꾸려나가려면 한가하게 계곡에 앉아 탁족(濯足)이나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런 운치없는 발상으로 생겨난 이름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다.

집으로 풀어온 즉시 이런저런 책을 다 뒤져도 수긍할 만한 해답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는다. 그러다 문득 한 생각이 떠오른다. 역시 '팔만대장경'이라는 이름이 그저 생긴 것이 아니었다. 『전등록(傳燈錄)』에 '한공부(閑功夫)'라는 말이 있었다. '하찮은 일'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또 선가(禪家)에서는 '깨달음에 장애가 되는 쓸데없는 생각이나 분별'을 '한망상(閑妄想)'이라 부른다는 사실도 알았다. 그렇다면 물한(勿閑)이라는 말 또한 '(이 계곡에 들어와서는) 쓸데없는 생각 같은 건 하지 말라'는 뜻으로 새겨도 되지 않을까. 저으기 위안이 된다. 한편으론 귀동냥을 한 걸 가지고 견강부회를 한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지만.

그러고 보니 '민주지산(岷周之山:다른 한자 표기도 있지만 이 표기가 가장 널리 쓰인다)'이라는 이름도 그 뜻이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과 충청북도 영동군의 용화면과 상촌면에 접하여 도계를 이루는 산이건만 산 이름의 유래를 알게 하는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동국여지승람'이나 '대동여지도'에는 백운산(白雲山)이라고 똑똑히 표기가 되어 있다. 그럼 민주지산이라는 이름은 언제부터 생겨난 것일까. 이는 아마 '산이름 岷 또는 봉우리 岷'자에 '두루 周'자니까, 이 고장의 사투리로 '민두룸한 산'을 일제강점기 때 지도를 만들면서 한자로 잘못 표기한 것이 오늘의 이름으로 굳어진 게 아닐까 싶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산의 맞은편 능선에 올라서서 바라보면 왼쪽으로 석기봉과 삼도봉이, 오른쪽으로 각호봉이 큰 높낮이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 밋밋하게 이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그야말로 민두룸한 산이다. 그러나 실제로 등마루를 밟아보면 쉼없이 오르내리며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힘겹게 휘어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시 인간의 눈은 썩 믿을 만한 것이 못된다. 하지만 산의 양음새가 마치 병풍을 세워 놓은 듯이 굵고 선명한 선으로 계곡을 에워싸고 있음은 분명하다.

앞서 밝혔듯이 물한계곡엔 물이 많다. 모양새와는 달리 미나미골, 음주암골, 백일산제골, 폭새골, 배나무골, 각호골 그리고 맞은권 산줄기 너머 연목골과 같은 깊은 골짝에서 쉼없이 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물들은 가래점을 지나면서부터 몸을 합쳐 초강천이라는 이름으로 흐르다가 황간 어간에서 추풍령천과 만나서는 멀리 금강으로 흘러든다. 물맛 또한 천하일미다. 얼음장을 깨고 그 아래로 흐르는 물을 떠 먹어 보면, 물의 결정이 목구멍을 자극하는 듯한 상쾌함과 함께 잡미라고는 조금도 찾을 수 없는 진짜 물맛을 느낄 수 있다.

산을 오르는 길이 늘 그렇듯이, 인간사 또한 수많은 갈림길에서 한 길을 선택하는 일의 반복인지도 모르겠다. 때론 잘못 들어선 길이 횡재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잘못 들어선 길은 그 길을 선택한 개인이나 집단을 헤어날 수 없는 질곡으로 빠뜨리곤 한다. 특히 그것이 자유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강요된 것일 경우 비극의 도는 더 짙다. 한국 현대사의 씻을 수 없는 상처인 6·25는 이 땅의 수많은 민초들에게 최악의 선택을 강요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비극의 극한이다. 그리고 그 비극은 아직도 현재 진행중이다. 불과 2년 전, 등계 훈련중에 이 산에서 삶을 마감한 특전사 요원은 그 질기고 모진 비극의 희생양이었다. 6·25가 아니었더라면, 더욱이 그것이 분단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면 한겨울 눈 속에서 불귀의 객이 되어야 할 탈 같만큼의 이유도 없는 목숨이었다. 이에 앞서, 좌우 또는 남북이라는 선택의 와중에서 산으로 든 사람들, 흔히 빨치산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선택도 비극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아직 물한리에는 그 비극을 떠올리게 하는 상흔이 남아 있다. 물한리의 한 민가에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있는, 돌로 쌓은 초소가 바로 그것이다. 물론 그 초소는 빨치산을 상대한 것이었기에 아직 버티고 있는 것이겠지만, 마치 자신보다 힘이 센 동물의 공격을 미처 피하지 못해 '보호색'으로 자신을 지키려는 연약한 동물의 보호본능인 것 같아 쓴 웃음 섞인 서글픔을 더하게 한다. 살아남은 자들이 자조적으로 형용하는 '모진 삶'이란 게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일까.

하지만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법. 언 강물이 몸을 풀어 바다로 흘러들어 세상 모든 물과 하나를 이루듯 해원(解寃)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과연 그 날은 언제일까?

글=윤제학 기자
사진=손재식(사진작가)



◇초점산과 대덕산을 지나 민주지산 삼도봉으로 오르는 길.



전국 유명 서점 및 불교서점 절찬리 판매중

꽃도 너를 사랑하느냐

쉼 없는 수행자의 투명한 감동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쓸면 빗자루 끝에서
생명이 샘솟는 듯 합니다.
소납은 하루를 시작하면 빗자루와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빗자루는 나의 스승과도 같습니다.

이 글은 불자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교훈적이고 진솔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그리고 군더더기가 없고 담박하고 깔끔한 문장이 잡은 참에 위한다
내 자신도 늘 피곤이 보는 마이지만, 출가 수행자에게는 글 쓰는 일이
수행의 한 여가(余暇)에 지나지 않는다 수행자의 본업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학실한 중노릇이다 스스로 깨어있고 이웃을 일깨우는 일이다

-법정스님-



혜총스님 지음 /신국판 / 정가 8,000원 | 부다가야 | 부산광역시 연구 양정동 333-2 전화 (051) 803-4383 팩스 803-4833

혜총스님의 중노릇

KBS 선정 〈한국의 불가사의〉
마이산 탑사의 영험과 돌탑에 얽힌 비밀!

화제의 책!



진현종 편저 / 혜명스님 감수
올컬러 / 값 6,000원
전국 서점에서 판매합니다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신령스런 영험이 그치지 않아 참로 희경감을 주게 하는 마이산 탑사!
이제 현대의 살아있는 전설을 찾아 따나보기로 하자

한국의 불가사의 마이산 탑사

은행나무 전화 (02)3143-0651 팩스 (02)3143-0654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가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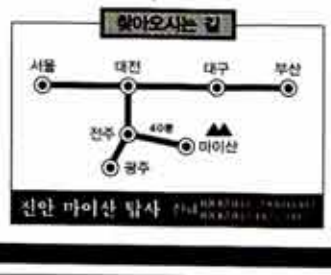
호남의 영산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 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 기도

찾아오시는 길



진안 마이산 탑사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com ● FAX: (0343)470-3116

법공양 페이지

모든 걸 주인공이 한다고 믿으세요

장래에 어머니가 될 사람, 할머니가 될 사람, 또 할아버지가 될 사람, 아버지가 될 사람, 여러분이 같이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당면해서 지금 걸어가는 길을 올바르게 찾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모였습니다.

첫째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지난날 어떻게 걸어왔든 앞으로 한발 한발 떼어놓는 그 진리 속에서 어떻게 해야만이 항상 그릇을 비울 수 있나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놓지 않고 참기만 한다면, 겉으로 내색을 안하고 좋은 소리를 해도 그건 참는 까닭에 항상 그릇이 넘쳐 버리고 담기지 않죠. 그러니 참는 게 아니라 한 발 떼어 놓는 것과 같이 놓으라 이런 소리죠. 이 진리는 지구를 한바퀴 돈다고 하더라도 일분 일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요. 그렇듯이 사람의 인생살이란 게 한 발 한 발 떼어 놓고 가는 것이 꼭 징검다리를 딛고 가는 것과 같아요.



그림 · 최주현

물질계만 보지 말고 육체속 참나 찾도록
자기마음 알면 일체 생물·우주 알게 돼

불교가 어떤 것이냐. 불은 만물만생의 생명이요, 교는 우리 삶이 다 이겁니다. 생명이 있음으로써 몸이 움죽거리고,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배우고 가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어느 한군데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에 생활 속에서 당면해 있는 모든 문제들, 그걸 어떻게 해야만 슬기롭고 지혜롭게 타파해 나갈 수 있는가. 저 나무도 싹이 있고 뿌리가 있는데 그 나무가 자기 뿌리를 모른다면 흙에 가려서 무명이 생기는 것과 같죠. 그러듯이 사람은 껍데기인 자기에 덮여서 진짜 자기를 모르는 거죠. 그러나 알고 본다면 자기 생명의 근본이 없어지면 육체도 없어지고 또 육체가 없다면 생명의 근본도 없어지니 어느 한쪽이 없어도 안되는 것이죠.

그러면 당면해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길을 걸어야 되는가. 내가 항상 말하죠. 일거수 일투족이 다 자기의 몸안에 들어 있는 생명들의 의식을 다스릴 수 있는 자기의 선장이 있다고요. 즉 수많은 억겁광년을 거치면서 자기를 진화시키고 형성시켜온 자기 근본이란 얘기죠. 다시 말하자면 자기 자불이 이 몸을 한치도 쉬지 않고 돌아가게 하니까 주인공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공에다가 어떠한 화나는 일이나 악한 일이나 어떠한 부작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용도에 따라서 항상 '화가 나는 것도 네 속에서 나게 하는 거니까 화가 나지 않게 하는 것도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되돌려서 굴려 놓으라고 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체를 다 말이예요. 닥치는 대로. 일부러 좇아가면서 할 필요는 없죠. 내 앞에 닥치는 것만도 천차만별의 일이 있으니까요. 진짜로 자기를 이끌어 가는게 누군가. 대신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대신 먹어주고 죽어주고 아파주고 또는 똥눠주고 잠자주고 그럴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자기 뿌리만이 자기를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흡수하죠.

그런데 지금은 불교 이러면 어느 부처님 어느 스님 이름이나 찾고 바깥으로 염불이나 하고 기도하는 것이 불교인줄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이름도 없어서는 안되겠지만 그것도 바깥에서 쓰는 방편일 뿐이고, 진짜 내가 나를 이끌어서 그 능력으로 인해서 모든 걸 타파할 수 있고, 여여할 수 있고, 자재할 수 있고, 만법을 들이고 낸다 하더라도 손색 없이 될 수 있어야만 되겠기에 자신부터 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못났든 잘났든 자기를 먼저 알아야 상대를 알고 상대를 알아야 하나로 돌아가는 섭리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러는 이름을 알아두는 것도 좋지만 그것조차도 그림자와 같아요. 즉 말하자면 뜬 구름같은 이 몸도 50%는 된다는 얘기예요. 정신계 50%, 물질계 50% 그래서 양면이 100%가 돼야만이 능히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쉬지않고 닥치는 대로 굴리면서 즉 한마디로 요약해서 구정물이 나올 낌새가 있으면 맑은 물로 바꿔 쓴다. 이런 도리 말입니다. 여러분한테 항상 말하기를 여러분의 주장자의 자불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거를 모르면 안되죠. 만약 전체를 바깥의 물질계에서만 찾는다면 얼마나 끄달리고 걸림이 많고 괴롭겠어요? 그런데 나 아닌 나가 진짜로 있거든요. 지금 나는 육체가 보이지마는 진짜 나는 육체 속에서 나가 보이지 않는 거를 말해요. 보이지 않는 데로부터 보이는 데로 나오니깐요.

내가 예전에 그랬죠, 정수에 물을 붓는다고요. 경전에도 있습니다마는 물이라는 건 항상 어떠한 파도가 치고 어떠한 비바람이 불어도 그냥 흘러가요. 어떤 것에도 아랑곳없이. 그와 같이 인간의 정수에는 항상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어서 내가 살고 생각하는 대로 거기에 입력이 되게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입력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 그저 지금 현재의 그 주인공에다 모든 거를 놓고 '너만이 지켜주고 너만이 해결하고 너만이 이끌어줄 수 있어' 하고 용도에 따라서 자기한테 닥치는 대로 거기다 놓으라고 말하는 거죠. 좋은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언짢은 것은 좋은 쪽으로 굴려서 놓는다. 그렇다면 현실에 살기도 편리할 뿐만 아니라 천안통이고 천이통이고 타심통이고 신족통이고 천이통 숙명통이 다 그냥 바로 보이게 된다 이런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 예전에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신 천안통이 지금 현실에 나와 있잖아요? 안방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본다든가 하는 것 말예요. 천이통도 나와 있구요. 전 세계로 전화 안되는 데가 없죠? 앉아서 세계를 보고 듣죠. 또 너나 할 것 없이 한 번 손가락만 깜작하면 만나죠. 대문 바깥에서 부르면은 안에서 문 열어줄 때도 그 형상이 나타나죠. 우리가 사는 현재에 바깥으로 모두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시대가 빨라질 뿐만 아니라 시대가 바뀌어서 진화되면서 밝아지고 이런다는 거죠. 지금 악이 많다고 하더라도 선이 반이면 악이 반인 것과 같이 악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니까 지금 주어지는 대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같이 토론을 하자는 것은 사람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또 작든지 크든지 자기가 진실로서 어떠한 것이 궁금한 건지 모든 게 자기에 관한 건이니까 그것을 질문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같이 모였어요.

아무리 과거에 선조들이 큰스님으로 계셨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분이 한 거지, 여러분이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다 보면은 한생각으로서 그냥 한찰나가 돼버려요. 그러면서도 현재에도 찰나찰나 나투는 까닭에 공해서 함이 없다. 그거를 시도해 볼 때에 한 발짝 떼어놓으면 한 발짝 없어지고 한 발짝 떼어놓으면 한 발짝 없어지고 하는 것과 같고, 움죽거리고 보고 듣고 말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사는 것도 전부가 찰나찰나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날까지 걸어온 게 어떴으며 한 게 어떴으며 또 나쁘게 한 게 어떴으며 좋게 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고로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무진장이고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끝없이 광대무변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닥치는 대로 얽매여서 애쓰질 말고 자기 근본자리에다가 턱 맡겨놓고 믿고 가다 보면은 조금 늦을 때도 있고 빠를 때도 있고 이러면서 체험하고 들어가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앉아서 세계를 보고 듣고 할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오신통이라구요. 오신통이 뻔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오신통도 도가 아니니 오신통 안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소립니다. 생활 속에서 그대로 걸음을 걸을 뿐이지 모든 게 한 발짝 떼어놓으면 그냥 없어지고 그런데 팔자 운명이 어디 붙을데가 있겠습니까. 붙을 것도 없고 담길 것도 없고, 내가 가는데 간다고 할 것도 없다 이런다면 그 모두가 해결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로써 연기의 공법을 말 하자면 상당히 이게 어려운 이치예요. 하지만 우리가 생활과 직결돼서 볼 때는 그렇게 과히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오신통을 해도 부처님께서는 도가 아니니라 했거든. 왜냐? 한 진리이기 때문에, 대뇌를 통해서 정수로 입력이 되는데 새로운 입력을 넣으면 앞서의 입력이 없어지는 까닭에 그릇은 항상 빈다 이거야.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람으로 살지만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차원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이 도리를 완벽하게 알게 되면은 자기 자유대로 모습과 권리와 삶을 가지고 나와요. 옷을 벗더라도, 그리고 자기가 인연됐던 인연들, 수억겁 광년을 거치면서 나온 인연들, 미생물에서부터 쭉 형성되고 진화되고 만났다 헤어지고 한 인연들, 그 인연들이 다 자기 근본에 직결이 돼있어서 항상 눈만 꿈쩍해도, 하다못해 물 속의 고기들도 진화를 해서 인간으로 환토를 한다. 이런 소리예요. 무궁무진한 도리지만 하나를 모르면 열 가지를 다 모르게 되고 하나를 알면은 열 가지가 다 내 앞에 지혜로써 돌아오게 돼있거든요. 그러니 열심히 뭐 길다 짧다 하지 말고 '왜 이렇게 오래도록 해도 이렇게 안되나' 하지 말고, 의기양양하게 그냥 살되 모든 것은 주인공이 하는 거라고 믿으세요. 믿지 말래도 믿어야 되죠. 자기 싹이 자기 뿌리를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요? 그거 누가 아니다 기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한테 늘 말하지만 스님의 고깃덩어리를 믿으라는게 아니예요. 스님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말과 뜻과 행을 보고 따르라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마음으로 따르게 되면 한마음으로써 믿게도 됩니다. 자기 마음은 영입니다, 체가 아니예요. 그러니 체가 없는 마음이라면 그 마음 속에서 자기 마음을 알면은 내 마음도 알게 되고, 일체제불도 알게 되고, 일체 우주도 알게 되고, 일체 생물이라는 건 다 알게 되고 그렇게 직결이 돼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님 마음 좀 내주세요.' 이러지 않아도 자기 마음자리에다 둘 아니게 관하면 저절로 쏜살같이 그냥 찰나에 하나가 돼 주죠. 찰나에 들고 나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부처님의 마음은 원자에서 입자가 나가서 전부 조절하는 그 행을 보살행이라고 합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열 명이 있으면 보살이 열 명이 되고 또 백만 명이 있으면 백만 명이 되고 이 허공을 채우면 허공을 채우게끔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사람이 할 탓이고 생각할 탓입니다.

마음이라는 건 체가 없어서 이 허공에도 어디에도 걸림이 없이 활약할 수가 있으니깐요. 그럼 그 마음이 그럭했다고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읽는
재미있는 불교만화

왕눈이 스님



서산대사의 법통을 이어 한국불교의 도도한 흐름을 계승시킨 편양 언기스님의 생애를 재미있게 그려내고 있다. 강백으로서, 선승으로서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어 현재 한국의 거의 모든 스님이 언기스님의 법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생 '이릿고' 화두를 들고 살았기에 '이릿고' 스님으로 불리워졌으며, 양을 치면서 수행한 일,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았던 일 등은 수행과 중생교화에 전념했던 스님의 삶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정수일 글 · 그림/신국판/245쪽/값 6,000원

성철 큰스님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철저한 수행과 정진으로 일생을 일관하여, 잠자던 한국불교를 깨워 일으켰던 성철 큰스님. 20세기 한국불교 최고의 선승으로 추앙 받는 성철 스님의 생애와 사상이 재미있게 그려져 있다.

임기준 글, 조성연 그림/값 6,000원

반야심경



대승불교의 핵심은 '공(空)' 사상이다. 그런 만큼 '공'을 이해하면 불교를 다 이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만화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 '공' 사상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그려 나가고 있다.

임기준 편역, 남교희 그림/값 6,000원



화엄경 (전10권)

부처님 설법의 정수로 꼽히는 화엄경. 그러나 화엄경은 그 분량의 방대함과 내용의 난해함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 만화는 어린 선재동자가 구도여행을 하며 53명의 덕 높은 스승들을 만나 진리의 세계에 눈을 떠가는 이야기를 통해 화엄경의 진수를 쉽고도 재미있게 그려내고 있다.

임기준 글, 조성연 그림/전 10권/값 각권 5,000원



불타석가모니 (전3권)

제1권 출가, 제2권 성도, 제3권 전법

부처님께서 히말라야 산기슭에서 태어나 위없는 큰 도를 이루시고 45년간 그 깨달음을 펴신 과정에서 가장 요긴한 점들을 모아 재미있게 엮고 있다.

임기준 글, 조성연 그림/값 각권 6,000원



백유경

부처님의 설법은 문학의 보물창고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비유와 교훈들로 가득차 있다. 특히 백유경은 그러한 이야기들만을 모은 경이다. 만화 백유경은 웃으며 보다가 자신을 돌아보며 지혜를 얻는 재미와 교훈을 담은 100가지 비유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임기준 편역, 남교희 그림/값 6,000원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번지 타운힐빌딩 전화 : 3672-7181~5 팩스 : 3672-7186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com ● FAX:(0343)470-3116

몸속 의식 다 조복받아야 견성이뤄

☞ 15면에서 계속

해서 씻어져 없어지는게 아니라, 그것이 근본이 돼서 현재로 나오게 돼있거든요. 씨가 없어도 아니되고 밭이 없어도 아니되듯, 그럼 질문하시길 바래요.

▲**질문1**: 대구지원 청년회 법우입니다. 자신의 관념과 습기에서 조금씩 밝아지는 저의 모습과 내가 아닌 나가 있다는 것을 체험해가면서 뭐라 말로 할 수 없는 고마움을 회향합니다. 하지만 저의 의식 자리를 깨우치기 위해 바깥의 인연이 나마 인정하기 싫은 모습으로 공부가 다가올 때는 쉽게 속아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나마 물러설 수 없는 줄이 있으매 감사하지만 가끔씩 저 자신을 놓고 보면 '참, 너가 발목이나 담그는 공부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스님, 앞뒤 없는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법문을 바라옵니다.

▲**스님**: 인생은, 아까도 얘기했죠, 한 발 떼어놓으면 한 발 없어진다고. 그런 것이 인생이라구요. 그런데 앞뒤가 없는 그 가운데서 한 발 한 발 떼어놓고 가는 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는 놈이 한생각이, 즉 말하자면 가는 놈이 가는 놈한테 거기다가 일임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에 곧장 거기에 연락이 되죠. 어느 학생이 호주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중국으로 건너갔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공부가 안되죠. 그러다 이 공부를 하게 돼서 주인공과 더불어 주인공에다 맡기고 '주인공이 해! 주인공이 할 수밖에 없잖아!' 하니깐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학교에 들어가서 배웠는데 말을 썩 빨리 배우더라는 얘깁니다. 그건 왜 그러냐? 내 이 마음 안에 '참나' 의 마음은 수 없는 광년을 걸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말이든지 듣지 않는 것이 없지. 그러니깐 여기에다가 둘 아니게끔 자꾸 지혜를 불어 넣어주니까 빠를 수밖에.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할 거예요. 보지도 못했고 해보지도 못했고 한 거 알지도 못하니까. 그렇다고 무시하진 말아요. 사실이 그러니까. 귀머거리한테 천둥 번개가 쳤다고 하면 아니라고 하죠. 그렇다고 천둥 번개친 게 사실이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은 자유스럽게 발판을 세우고 자유스럽게 뛸 수 있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가난해도 행복하기만 하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못하고 항상 쪼들리면서 살다가 그냥 쓰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부자라면 다 부자예요. 그러듯이 하여튼 여러분은 주저하지 말고 이 항아리 속에서, 내 이 몸체 항아리 속에서 마음이 벗어나세요. 벗어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이럭해도 될 수 있을까? 하고 한번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래요. '이렇게 할 수 없을까?' 하고 말이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거든지 송구스럽고 괴로웁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하는데 어떠한 게 닥쳐오더라도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이끌어갈 수 있어. 꼭 너만이 이것을 꼭 해야 돼. 난 손만 빌려 줄께.' 하고 모든 거를 다 좀 여유있는 마음으로써 진짜로 믿는 마음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건 지금 시쳇말로 '왔다' 죠.

▲**질문지2(남)**: 저는 충남 공주에서 사는 장호석이라는 학생입니다. 작년 11월경에 금강경 테이프를 듣다가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꽤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어느새 시간도 안 느껴지고 육신도 없는 듯한, 그리고 아주 고요한 상태에서 뭔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동생이 '오빠' 하는 부르는 소리에 깨어나 아침이냐고 물었더니 겨우 한 두시간 정도밖에 안 흐른 상태였습니다. 그 후로도 몇번 그런 일이 있었고 책에 나오는 전생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 여쭙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견성을 못한 사람이 견성에 대해서 그 이해가 가능한지 좀 알고 싶습니다.

▲**스님**: 지금 견성이라는 말 했죠? 그런데 견성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만남에 의해서 견성이예요. 즉 말하자면 내 몸속에 있는 생명체의 의식들을 다 조복을 하고 또 나가서는 거기에서 조복을 하게 되면 자기 주인공과, 즉 자불과 자기 육체와 둘이 아니게끔 만남이 있죠. 그거를 견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가는 게 견성의'진로를 쥐고 나가는 거죠. 해보지 않고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만약에 부

이 세상에
나온 곳이 없기에
들어갈 곳도 없고
이 자리도 공해서
찰나찰나 돌아가니
그것마저 없고
한발짝 떼어놓은
사이도 없다

산을 갔다 왔던가 미국을 갔다 왔던가 해야만 가보니까 이렇더라 하고 말을 하지, 갔다 오지도 않고 어떻게 그 길을 얘기하겠어요? 여러분도 그것을 짐작하고 알고 스스로서 조복이 되고 스스로서 그 길을 걷고 있어요. 둘 아니게 걷고 있죠. 그걸 얘기로 할려면 그렇게 어렵죠. 우리 몸 안에도 천차만별의 의식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 몸뚱이 하나가 뭐냐 하면 한 개체죠. 한 개체데 그 생명들의 집이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집과 같이 집이예요. 집합소죠. 그런데 그 집합소에서 사는 생명체들이 전부 이 거죽의 내 몸뚱이로서 심부름을 하지 않는다면 거기서도 심부름을 안해줘요. 안 그래요? 내가 먹을 거 주지 않는다면 거기서 작용을 못해줘요. 여기서 주면은 작용을 해주고 여기서 안 주면 그냥 송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체들이나 나나 서로 도와주는 형국이죠. 서로 도와주다보니까 인제 그 양면을 다스리는 내 선장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자불이라고 하지마는 그걸 주인공이라고 해도 돼요. '주인공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았을 때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모든 작용을 해주는 것이 바로 그 선장으로 인해서 다스려진다는 걸 알게 되고, 선장으로 인해서 우주 삼천대천세계로 한생각을 돌릴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책경을 봐, 니 얼굴이나 내 얼굴이나 똑같이 있는데.' 하고 보면 보이죠? 색경을 보는 놈도 그렇고 비치는 놈도 즉 말하자면 환상일 뿐이죠.

그런데 자꾸 접프해 가면서 일으키고 작용시키고 하는 고놈은 바로 색경을 봐도 비치지 않아요. 그냥 당신 마음의 거울이 다 알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거를 들어서 견성이다 성불이다 하는데 그 이름만 들어서 견성하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여기 계시다 하더라도 대신 견성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이나 꿈이나 이런 것에 얽매이지 마시고 없든 있든, 잘하든 못하든, 못났든 잘났든 자기를 이끌어가는 자기 주처만 꼭 믿고 하세요. 그런 걸 보더라도 그런 걸 듣더라도 어떠한 경을 보고 놀라더라도 자기 주처에다 놓고 평등하게 공법으로 그냥 가세요.

▲**질문2**: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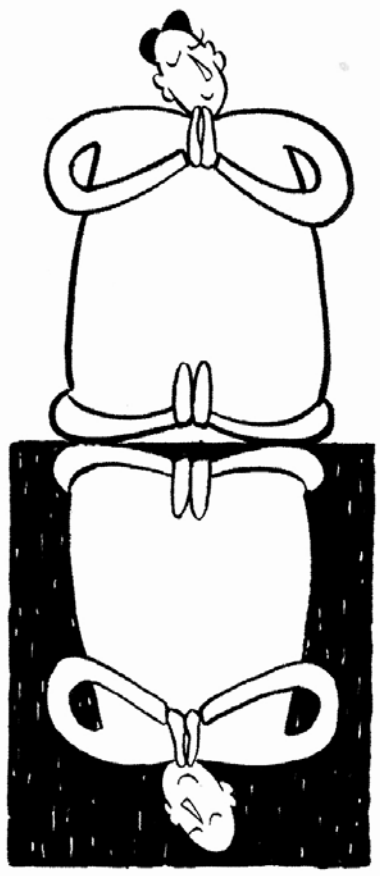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좋은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언짢은 것도 좋게 굴려 놓으면
살기 펀해지고 오신통 보이죠

이것은 책에서 본 건데요, 견성하면 커다란 환희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확실히 견성하면 나타나는지요?

▲**스님**: 그거야 뭐 자기가 생각하기에 달려있지. 금방 강도가 들어와서 칼을 들이댄다 해도 자기가 환희심이 나면은 그냥 환희심이고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뭐든지 여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은 환희심이예요. 지금 어떠한 문제가 닥쳐도 자기는 여유있게 환희심을 가졌기 때문에 돌로 보지 않는 거죠. 강도를 만났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사정이 어려웠다면 나도 저랬을 거다. 만약에 내가 굶는 거보다도 자식들이 굶어서 부황이 나서 죽게 된다면 나는 저거보다 더했을런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으로써 환희심을 일으킬 수도 있죠.

그러니 환희심이라는 것이 꼭 잘돼서만이 환희심이 아니라 =한 사정이 있어도 환희심은 있어요. 그게 지혜로써 물리가 터지면 저절로 그렇게 되죠, 여유있게.

▲**질문2**: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수행을 하지 않고서도 견성이나 성불 단계까지 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스님**: 학생은 아주 특이한 질문을 하는구만. 그거를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지. '나는 세상 바깥에 나온 예도 없어서 들어갈 때도 없다.' 아주 딱 붙여버리지. 그리구 '세상에 나와서 걸어온 예가, 한 발짝도 걸어온 예가 없어서 나는 한 예도 없다.' 이렇게 말이야. 그럭하면 아주 견성 성불이 완벽하게 도야, 그냥. (대중 박수) 허허….

그걸 알면 된다고 그랬지? 지금 현재 생활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한 발짝 한 발짝 떼어놓는 것처럼 고정됨이 없고 그냥 화해서 나투면서 돌아갈 뿐인데 그걸 알면은 그대로 견성하는 거 아니야?

▲**질문3**: 저는 부산 지원에서 왔습니다. 오늘 스님 설법중에서 그 답이 있을 줄 알지만 그래도 질문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마음공부가 하고 싶고 또 도반이 좋아서 같은 청년회 법우로서 부부 인연을 맺은 법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법우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맞지 않아 여러 가지 갈등을 안고 사는 경우가 많고, 그에 비해 도반으로 인연을 맺은 사람들은 각자의 탓으로 돌려놓는 마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걸림없는 좋은 부부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내어야 하는지 한 말씀 주십시오.

▲**스님**: 그거는 마음을 내고 안 내고가 없어요. 자연적으로 이 마음공부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아주 친근하게 생각이 되고 차원끼리 만나게 돼 있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못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그 집안 환경 때문에 아주 곤궁하게 보이는 불쌍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시시때때로 각각 이렇게 보이는 게 있는데 그 보이는 거를 지혜로운 마음이라면 불쌍하면 불쌍치 않게, 과거 미래 현재를 한데 싸서 주인공에다 놓으면 그냥 삼세가 통하는 일이예요. 그래서 주인공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놓고 마음 한번 탁 내주면 그쪽도 좋아지고 보는 나도 좋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언짢다 좋다, 밉다 이쁘다 이런 모든 거를 놔라 하는 말이 그런 데서 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공부를 못하던 사람도 내 마음을 진정으로 내줬을 때 다시 바꿔지죠. 과거에 잘못해서 얽힌 것이 풀어지니까 그게 잘되는 겁니다. 또 나한테 아주 밉게 하는 사람, 나를 아주 귀찮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볼 때도 '나를 귀찮게 안하게 하는 것도 너뿐이야' 그렇게 생각나는 대로 관한다면은 거기까지 불이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성가시게 안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아주 착해지죠. 그러니까 뭐가 걱정이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하자는 대로 되는데 왜 걱정이예요? 의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쁘든 잘생겼든 또는 못생겼든 모두가 자기 할 탓이라고 생각돼요. 편안하게 살고 편안치 못하게 사는 것도 자기 마음의 견해에 의해서 그렇게 산다는 것을 생각해요. 정말이예요. 나는 항상 그렇게 실천을 하고 나가는 사람이니까 어떤 때는 내가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뜻을 모르지만 통하는 사람들은 죄 알아듣게 돼있어요.

그러니 어떠한 책을 보고 공부를 하더라도 그것이 댁에서 모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수억겁을 진화돼서 형성되고 형성되면서 살아온 그 장본인이 자기 몸을 자기가 형성시켜놓고 이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이름도 좋지만 자기 자불 주인공이 자기를 이끌어 간다구요, 모두.

하여튼 이 공부할 때는 한눈 팔지 말고 꼭 열심히, 죽을 때 죽고 살 때 살더라도 죽는 것은 누구나가 다 있지만 이 세상에 나온 곳도 없고 나온 곳이 없기 때문에 들어갈 곳도 없고 이 자리도 공해서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니 그것마저 없더라, 한 발짝 한 발짝 떼어놓은 사이도 없더라, 이렇게 알게 되면은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질문4**: 스님 감사합니다. 이런 큰자리를 마련해 주신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대구지원 청년회 법우입니다. 제가 질문 올리고 싶은 건 결혼해서 보통 애기를 낳게 됩니다. 주위에서 보면 양부모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자식이 지체아거나 정박아가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 인연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봐야 될지 질문 올리겠습니다.

▲**스님**: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공자님 어머니가 공자님을 낳을 때 바로 육년 동안이나 지극하게 정성을 드렸죠. 좋은 영을 얻기 위해서 그만큼 오래 기다린거죠. 그것도 여러분의 태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큰 자식을 두느냐 작은 자식을 두느냐, 박약아를 두지 않느냐 두느냐가 달렸습니다. 이런 일도 많아요. 젊은이들이 병원에 가보구서 이게 정상이 아닌 어린애가 들어서서 이거를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집은 자식이 없는 집인데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나는 뭐라고 말했느냐면 "내가 볼 때는 정상인데 왜 그러느냐" 이랬다구요. 정말 정상이 돼서 정상이라고 그런 건 아니죠.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도 정상인 줄 알고 관했기 때문에 정상으로 낳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훌륭한 법을 우리가 독차지하고 있고 이런 권리가 있고 모든 걸 타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못한다면 아니되죠. 그러나 그거를 왜 내가 마음을 그렇게 내줘서 했단 말을 못하느냐 하면 내가 지금 공해서 찰나찰나 없어지기 때문에 나를 한 발짝 한 발짝 떼어놓는데 어떤 발자국을 떼어놨을 때 내가 떼어놨다고 할 수 있으리까, 이거예요. 그죠? 여기 올라올 때 발자국을 떼어놓고 올라왔을 텐데 그 많은 발자국을 떼어놓으면서 어떤 발자국 한번 떼어놓을 때 내가 떼어놨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없다는 거예요, 공해서. 나뿐이 아니라 여러분도 모두.

그래서 없는 가운데 '참 자기' 가 남을 위해서 과거의 업을 그냥 멸해주는 거죠, 과거에 어떠한 것이 입력이 됐든 그 입력을 지워주는 거죠. 그 지워주는 역할이 능력이 있어야 지워지지, 능력이 없으면 지워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냥 '그거 괜찮은데 왜 그래?' 이렇게 말 한마디 해놓고 이 사람을 시집을 보내니 내가 먼저 시집을 가야겠다, 하하하 이런 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부름꾼이죠. 그리고 심부름꾼이라도 그런 건 여러분이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없다' 하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 경지에 같이 한마음이 될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도 '어허, 내가 했다고 할 게 없고 또 할 거라고 생각도 못하겠고 또 해놨다고 할 수도 없구나' 이러면서도 무궁무진하게 자유의 용무를 해나가고 있을 거예요.

▲**질문5**: 보통 수계식을 하면 큰스님께서 저희에게 법명을 내려주십니다. 그 법명을 보면 저희는 그냥 한문 뜻으로만 받아들이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스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스님**: 오계를 받았어요?

▲**질문3**: 예.

▲**스님**: 그럼 그걸 내가 할 소리예요? 오계를 받았으면 실천을 하는 게 문제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름은 방편이죠, 묵묵히 함이 없이 무주상 보시로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 이름이 문제가 아니예요, 또 그 이름을 안 받았더라도 우리가 본래부터 그렇게 돼 있는거니까. 그대로 실천을 해 나가시는 분들은 이미 그 이상 가는거죠. 그러나 받는게 더 낫죠. 여러 눈 아닌 눈, 손 아닌 손, 귀 아닌 귀, 몸 아닌 몸, 이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 향을 피워 드리니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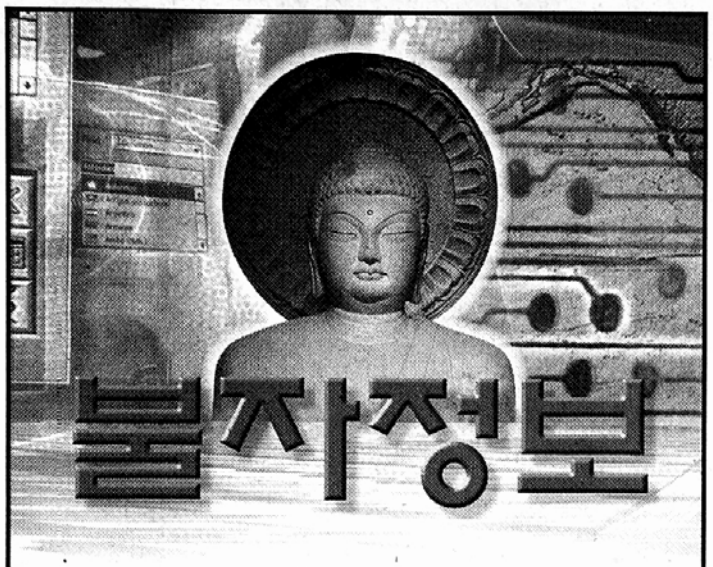
▲**질문5**: 이렇게 큰스님을 뵙게 돼서 정말로 기쁩니다. 광주에서 온 법우입니다. 제가 큰스님께 여쭙고 싶은 건 큰스님께서 지난번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밭에 씨를 뿌려서 농작물이 너무 많이 나면 좋은 종자를 키우기 위해서 나머지는 뽑아야 된다고, 그리고 앞으로 사람도 너무 많으면 그렇게 솎아 내는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청년들이 어떤 마음을 내서 관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습니다.

▲**스님**: 그래요. 대를 위해서 소를 죽이는 것도 있죠. 그게 법이예요. 그래서 법을 깨우쳐서 평등공법으로서 앉아 계시면 부처고, 그 공법을 행하면은 그냥 법신이구요. 그리고 이익한 거를 주기 위해서 몸뚱이로 뛰어다니는 건 바로 보현화신이구요.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어느 거든지 다 그렇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지금 생물들이 사는데 '서로가 그냥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연쇄적으로 쭉 가면서 인연에 따라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정신을 잡아 먹히고 잡아 먹습니다. 전세계를 볼 때에 어떤 나라에서는 굶어죽는 나라도 있고 싸움이 지금 나는 나라가 많죠. 만약에 조그마한 집 한 구석에 그렇게 인종이 많이 생길 때는 이 자연법칙으로써 채소 솎아내듯 하거든요. 이게 법이예요, 자연법요. 이 그릇에 더 담기지 않으니깐요. 그릇에 담길 만큼만 놔두고는 자꾸 솎아내는 이치나 마찬가지죠. 만약에 대를 위해서 소를 죽일 수 있다면, 그건 소를 위함도 되구 대를 위함도 되는거죠. 모두를 건지는 길이죠, 알고 본다면.

※위 법문은 1997년 11월 2일 전국청년회 연합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가끔은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43-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6)849-3858
012)1166-3858

믿음과 만족을 드리는 동천 황토마을
황토방 흙벽돌 제조 · 판매
황토방 시공전문
대표 이 해 구 합장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210번지
0594)867-1988,4037

강좌

찬불가 피아노 렛슨
前 신라 · 워커힐 방송피아니스트
찬불가, 가요, 가곡, 팝송을
피아노 치며 노래하는 반주법
초보 3개월 완성
⊙찬불가 합창 반주자반⊙째즈반
⊙프로연주반 - 전공자 중심 렛슨
02)824-3517 (서울)
011)742-1999
※피아노 반주자가 필요하신 사찰에 반주자를 보내드립니다

사주 명리학 강의
★ 6개월 완성 ★
초보에서 완성까지(스님직강)
(사주, 택일, 궁합 작명등)
※스님 佛者 환영 · 출가상담 ※
(수강료:월 10만원)
월 · 화 · 수 오후 2시부터
인천 032-504-1387
H.P 011-9046-9903

제6기 무료강좌안내
⊙ 따주기 ⊙ 수족침요법
⊙ 침구 ⊙기공
2개월간 주1회 교육
통신교육도 가능
※지회및 분회 개설할 분도 연락요망
한국전통민간요법학회
02)2246-7477
011)9090-1049

구인구직

기도스님 모십니다
범어사 지장암
051)508-6050

공 채
주부사원 모집
보령제약(주)
고졸이상
35세~55세
10시~17시 근무
02)766-0057
02)3675-0397

지혜롭고 후덕한
공양주보살님을
모십니다.
0671)636-3041
636-3451
011)315-3041

신심이 돈독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대 이상 60대초반)
053)743-7070
011)449-6952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구니)30~40대
목포
011)
665-7037

철학에 능통한
승려입니다.
스님이 없는 절에
갈까하오니 필요한 절
있으면 연락바랍니다.
011)806-8467

공덕인연을 찾습니다

부처님과는 남다른 인연을 가진 46세의 독신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알려 사람들을 구제하고 돈도 버는 공덕 사업에 투자할 뜻이 있는 분을 찾습니다.
017)291-3863

수양원

◆청학사 수양원◆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月 숙식비 : 30만원
■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수양, 기도하실 분
공부할 학생
기도하시기 좋은
최적의 도량
합천호부근 청강사
· 가액 : 월30만원
(약간명 모집)
0599)932-5706

불교용품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0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기타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 · 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 · 변비개선
◆손발냉증 · 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분말(230g) : ₩39,000
환 (250g) : ₩45,000
동양물산(주) 02)832-0742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 화엄경 (80권) -1,400,000원
● 법화경 (7권) - 170,000원
● 사 교 (7권) - 22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99)932-7252 김 창 본
011)545-7252 처 사

보이산차
40년생, 15년생 입하
칠지병차 소타차
고산 오룡차 철관음
※ 염가판매 ※
전화주시면 견본보내드립
02)911-6798
017)406-6682
茶道里

사찰 종무행정
관리 프로그램
천수천안 2000
011)598-3647

반야심경 액자
◆원목 CASE
◆추사체 영인본
◆반야바라 밀다심경
전체가 흑색판에 24k
도금으로 되었음
◆크기 73cm×46.5cm×3cm
◆사무실 또는 가정
거실에 어울리는 액자
◆가격 : ₩200,000
02)2272-1341

주역 8괘 비전, 명리학 통신강의
· 철학관, 역술원 및 점집을 개업할 분,
개업 중 추가 공부할 분(개업위주)
· 한글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한문에는
토를 달았으며, 진도가 빠르신 분은 요구
대로 맞추어 드립니다.
· 직강기능, 강의 후에도 궁금증, 개업지도,
각종자료 등 유기적 관계유지
· 주역팔괘비전신점술(강의를 위해 편찬한
비매품으로 바로 독학을 하실 분에 한해
역점 치는 비법 전수비 포함 200,000원)
· 일반인 : 평생운 사업운 선거운 등 감정함
(주역팔괘 사주 명리학 강원) 금농철학관
053)756-7700/426-8277
(fax)053)426-8661011)533-7389

역학 수강생 모집
▶과목: 사주, 육효, 신수, 작명, 관상
▶과정: 기초반, 연구반, 자격증반, 창업반
▶시간: 오전10시~12시, 오후 3시~5시
저녁 7시~9시 (월~금, 주5일)
※ 매주 토요일 관상학 특강: 오후 3시
▶강사: 엄운문 원장(명학비해 外 20여권 저술)
김회선 선생, 관상학의 달인 신기원 선생
▶기타: 사주감정 의뢰하실 분(3만원 입금후 전화요)
제일은행(105-20-163426) 엄윤문
▶문의: 02)752-9013~4
청운역리학원

염불 수행의 비법
· 불교 세계관의 결정체
· 정토신앙의 오묘한 도리
· 창조적인 염불수행
· 연락하시면 염불 수행법
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361)254-5397

사찰안내

포교원 안내
(사찰 운영관계로 사정상 급매)
◆위치 :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평수 : - 39평 3층 요사채 방 3개,
거실, 욕실, 주방, 최신설비
- 38평 4층 법당, 주지실, 상담실, 욕실
◆가격 : 1천만원 - 월 100만원
(월세만도 가능함)
시설완벽, 신도확보, 교통, 시장 편리함
0343)469-1562,443-9733
016)363-1562

사찰(급) 안내
◆위치 : 대구시
◆대지 : 46.5평
◆건물 : 법당 20평, 요사채 25평,
지하 9평,시설 완비
◆가액 : 1억 5천
◆스님외 사절, 장난 전화 사절
015)747-1512
011)517-2954 정법도량

사찰(급) 안내
◆위치 : 밀양면 무안면
◆평수 : 300평(실제 사용한 평수)
◆대지 210평 법당15평(시설완비),
요사채 21평, 방4개(기타시설완비)
◆가액 : 7천
◆스님외 사절, 장난 전화 사절
015)747-1512
011)517-2954 정법도량

사찰 안내
◆위 치 : 경남 고성군
◆부 지 : 280평
◆법 당 : 30평 ◆요사채 : 30평
◆산신각 : 3평, 기타부속물 : 종각
◆가 액 : 1억 3천(절충가능)
0556)674-4024
011)581-1237

사찰 안내
◆위치 : 울산 언양
◆대지 : 70평, 법당 20평, 요사 40평
방5, 공양실16평, 욕실2개, 화장실2개
◆가격: 8천만원
◆실공사비 1억 3천만원 들었음.
052)254-1969/254-1929
011)9525-1969
※인연이 되시는 스님은 몸만 오시면 됩니다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함안
◆대지 : 약 400평, 잡종가 1,100평
법당 25평, 요사 60평, 창고 30평
◆가격 : 1억 2천만원(은행 5천만원)
0552)582-5056
019)502-8454

토굴(전원주택) 부지
◆위치 : 경북 영천시 근교
◆평수 : 422평
◆특징 : 산속 맑은 계곡 옆 평지
도로완벽 전기 전화 有.
◆가액 : 3천만원(답사후 결정)
0563)337-5156
※ 오후 연락

사찰 안내
◆위치 : 충남 보령시 대천 시내권
서해안에 제일의 절경
◆산 10,000평 지방문화재
법당-가건물, 요사채-구옥
◆역사 : 신라말엽
◆가격 : 2억 3천
※자세한 것은 전화문의 바랍니다
017)402-0108

사찰 안내
◇위 치 : 강원
◇법 당 : 10평
◇요 사 : 25평
◇부 지 : 1,000평
◇가 액 : 2억 4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보살 무료로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안내
◆위치 : 군포시 당동
◆대지 : 120평(3면도로접)
◆건평 : 120평
◆법당 : 30평
◆주택, 상가 90평
◆가액 : 5억 3천(절충가능)
0343)454-1133
011)386-6467

사찰(급) 안내
◆위치 : 경북고령
(대구에서 30분거리)
◆평수 5천 8백평
◆건물 : 법당 22평, 산신각 4평,
요사채 2동(각 30평씩), 공양실
12평, 납골당, 부도 적지
경관 수려
◆가액 : 답사후 절충
0543)954-0391
011)501-2219

사찰 (급)안내
◆위치: 경기 이천 소재(장호원)
99년 행정수도권 서울 근린지역
◆대지 437평, 법당 27평(사무실포함)
법전 요사 15평(거실1 방3),요사 43평
◆가액 : 4억 6천이나 급매로
절충하여 정함 ◆교환가
◆특징 : 1.취락시가지 확정
2개 대학과 약45만평 전자공단의 요충지
2.신고속도 건설중 서울50분대
3. 녹지푸른 청정도량(고시원운영)
0336)643-9051/017)430-9051

사찰 안내
◆위치 : 합천 근교
◆대지 : 250평
◆건물 : 법당 25평, 산신각 1동,
요사채 2동(25평 1, 20평 1),
용왕당 1동
◆가액 : 2억 3천만원(답사후 절충)
0599)934-0076

사찰 안내
◆위치 : 서울 노원구 상계동
◆부지 70평 건평100평
◆가격 : 3억 5천(융자포함)
◆특징 : 현대식 2층 건물의 도심
사찰로, 아파트 밀지지역에 위치
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도심
포교지로 적지임
◆남양주, 강릉, 마산, 김천, 동해, 서울
부산 인근지역 사찰 급히 구합니다.
서 울 02)3666-9020
동진불사 대 구 053)635-9080
휴대폰 018)334-9021

사찰 안내
◆위치 : 충남 홍성군
◆부지 : 4,300평
법당,목조 25평, 요사 40평
◆가격 : 2억 5천만원
◆특징 : 서산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며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청정도량의
기도처로서 아주 좋음
◆수원, 청평, 사천, 하동, 진주, 음성,
진천, 함양, 청녕지역 사찰 급히 구합니다.
서 울 02)3666-9020
동진불사 대 구 053)635-9080
휴대폰 018)334-9021

사찰 안내
◆위치 : 경북 영덕군 축산면 부곡1리 75
◆전체평수 : 1,950평 ◆대지 477평
40평 전통한옥 내 임법당 9~10평,
사무실 7평~8평, 방 5개
◆국도에서 1km 내에 위치
◆도로 좌우로 2차선 완성, 주차장 완비
◆야산밑에 한덩어리로 묶여져 있음
◆가격 : 7천만원 이내 상담후 결정
0664)7818378/ 011)655-3883

사찰 안내
◆위치 : 이천시 대포동
◆대지 188평, 법당 23평, 주택 32평
◆가격: 1억 2천만원(시정상 싸게 양도)
전세가 6천5백만원
(장기 5년~10년 가능함)
◆이천시내에서 2km,
서울에서 45분거리 <이천시까
지 2007년도 전철예정지임>
0336)633-3183/018)238-1760

포교당 안내
◆위치: 울산시 아파트
밀집 지역
◆건물: 2층 42평
◆가격: 전세2천 (월 30)
◆권리금 · 시설물:1,700만원
011)429-0222

토굴(급) 안내
◆위치 : 경남 함양군 영각사 입구
◆대지 : 450평, 실평수 600평
◆건평 : 약80평, 황토방(大)1,
일반1, 창고1, 주차시설, 조경완비.
◆가액 : 8천만원(실비)
※ 수행승, 요양승 적합.
0591)747-4890
011)9601-4228

토굴 안내
◆위치 : 경남 삼천포 와룡산
◆면적 : 임야 4천5백평
◆가액: 2억 5천 (절충가능)
◆안대수려, 차량진입, 수질양호
※ 부전스님 모십니다.
0591)746-2478/011)830-2880

사 찰 (급) 안 내
마산시 회원구 회성동
◆ 서마산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건너편 ◆부지 450평 이상
◆ 주차장 무제한완비 법당 31평 ◆목조건물 금단청필(3포 5포)
◆ 요사채 60평, 방 8개, 주방 2개, 지하 요사채 20평, 명부전 9평 단청필
주지실 사무실 기타건물평
◆ 건물 완공은 4년 시설일체 무상기증 마산시내에서 개인사찰로는 규모가
가장 큰 도량, 스님 병안으로 매입코자 하오니 인연을 다 할 스님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합니다. ◆가액 : 8억 5천
◆총 공사비가10억을 들었습니다. ◆장난전화 사절
0551)294-4889

사찰 안내
◆위치 : 서울시 노원구 소재
(지하철 5분거리)
◆대지 : 60평
◆1층 요사채50평 2층 법당50평
◆도심사찰로서 최적이며 모든
시설이 완벽함
◆가액 : 3억 5천만원
한국불사 018)273-9390
02)561-7791
※전국에 있는 사찰 양도, 양수하실분찾습니다.

사찰 안내
대가람 인수하실 분
찾습니다.
답사후 가격절충
017)373-5998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익산 시내권
(시내서 5분~10분거리)
◆ 법당 20평, 요사 50평,
강당 40평, 땅이 국유지
◆ 가액 : 7천만원
0653)856-6413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하동 금남 소재
◆평수: 약 300평
◆법당 22평 목조건물
◆요사채 35평 목조 기와집
◆창고, 화장실, 주차장완비 욕실
◆특징: 동네 어귀 산아래 천하명당
발목터 남향지, 산수물 좋음.
◆가격: 2억 2천만원
0595)883-2448/011)831-4712

포교당 안내
◆ 위치 : 광명시 새마을시장
3층
◆ 평수 : 35평, 10년되었음
◆ 가격 : 5천만원
02)2618-0767

사찰 안내
◆위치 : 광주광역시내
◆면적 : 330평
◆법당, 요사채, 유치원
◆가액 : 8억(가격 조정됨)
062)224-6696/011)601-6663

'복권 열풍' …이대로는 안된다

사행심 '조장' …근로의욕 '저하'

부처님께서 사밧티의 기원정사에 있을 때의 일이다. 어느날 코살라의 파세나디왕을 비롯한 여러 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회를 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것이 무엇인가'를 화제로 올렸다.

이에 대해 한 왕은 '아름다운 모습(色)이 가장 즐겁다'고 했고 다른 사람은 '아름다운 소리(聲)가 가장 즐겁다'고 했다. 그러자 다른 왕은 향기(香)를, 또 어떤 왕은 맛(味)을, 또 다른 왕은 감촉(觸)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의견이 각각 나뉘자 왕들은 부처님을 찾아가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부처님은 왕들의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대왕들이여, 모든 즐거움은 자기의 뜻에 맞아야 가장 즐거운 것이 되는 것이니라. 자기의 뜻에 맞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느낌을 받아들일 때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고 적절한 것을 뜻에 맞는다고 하느니라. 그러므로 적절하게 유쾌한 것이 가장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잡아함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나치면 도리어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최근 불고 있는 복권열풍이 바로 이와 같다. 복권은 본래 공공자금을 모으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적당하기만 하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복권은 이미 그 취지를 잃어 허영을 불러일으키고 사행심을 조장하며 소비를 부추기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일확천금의 기대를 갖고 복권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고 당첨금 20억원인 복권은 매진사례고, 인터넷 복권 사이트도 과열을 빚고 있다. 몇십만원어치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고 지갑에 복권 한 두장쯤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현재 우리나라 복권시장은 시장규모에 비해 발행기관과 복권종류가 지나치게 많은 편이다. 주택은행과 과학문화재단 등 8개 기관에서 즉석식 8개, 추첨식 4개 등 모두 12종류를 발행한다. 산림청에서 이미 녹색복권을 발행하기 시작했고, 이달부터 근로복지공단이 1등 최고금액 30억원인 '복지복권'을 판매하며, 환경청도 올 하반기에 환경복권을 발행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러다가는 사회 저변에 요행만을 바라는 심리가 만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 한가지 문제는 복권을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이는 결국 복권을 발행하는 주체가 가난한 사람의 돈으로 사업을 하는 셈이니, 현재와 같은 거액의 복권발행이 능사인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문제다.

〈백유경〉에 이런 얘기가 있다. "옛날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재물을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 큰 부자를 보고 그와 같은 재물을 갖고자 하였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자 그 조그만 재물마저 물 속에 버리려고 하였다. 옆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 "그 재물이 비록 적지만 늘릴 수도 있다. 그대의 앞날은 아직 멀었는데 왜 그것을 물 속에 버리려고 하는가?"

한탕주의를 꿈꾸며 복권에 빠진 사람들은 깊이 새겨볼만한 가르침이다. 아울러 정부도 고액 복권 발행에 의존해 예산 확보니 기금마련이니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예산 확보나 기금마련을 위한 발전방향을 찾는데 고심하고, 진정 시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무엇인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2개월 후 '게놈' 해독 인체신비 벗겨진다

다가오는 5월에 마침내 인체의 신비가 벗겨진다.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앞으로 2개월 후 인간의 유전표지인 게놈(Genome) 해독작업의 완성을 발표할 것"이라고 2월29일 발표했다.

인체의 비밀을 푸는 '게놈 프로젝트'의 핵심인 유전자 지도는 21세기 생명공학의 첫 결실로 그 파급 효과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라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책 수천권 분량의 유전자 지도가 완성될 경우 어떻게 사람이 사람 모양으로 생겨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피부색깔과 키, 노화의 정도까지 조절하는 길을 열 수 있게 된다. 또 개개인의 유전자 특성에 따른 '맞춤 의약품'의 개발도 가능해진다.

유전자 지도는 특히 난치병 등 의료분야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상 유전자와 질병 유발 유전자에 관한 데이터가 확보되기 때문에 유전질환, 후천성질환, 신경·근육질환, 에이즈 및 일부 심혈관 질환과 암을 치료하는데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과학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문제도 있다. 유전자 정보가 공개되면 인간에 대한 유전적 차별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으며, 개인과 가족의 유전적 질환 때문에 생명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거나 취업에 실패할 수도 있다. 미국이 이들 정보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독점할 가능성도 불씨로 남아있다.

이제 인류에게는 이를 악용하지 않는 지혜를 가다듬는 일이 남게 됐다. "지혜는 뛰어난 광명이요, 어리석음은 지극한 어둠"이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다. 인류복지에 전기를 마련해줄 유전자 지도가 빛으로 다가오게 하는 것은 유전자 지도를 만든 인류의 몫이다.



400번째 위안부 수요집회 3·1절인 지난 1일로 일본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이 매주 수요일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벌여온 수요집회가 400회를 맞은 가운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이날 교보빌딩 옆 소공원에서 '400차 맞이 특별기념시위'를 전개했다.

특별기념시위에는 나눔의 집(원장 혜진) 위안부 할머니 8명과 서울지역청소년연합단체 회원 등 3백여명이 참가했으며,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 사죄 △전범자 처벌 △위령탑과 사료관 건립 △피해배상 △역사교과서에 기록 등을 일본정부에 요구했다.

청소년 100명 "새만금 지키자"

새만금 물막이 공사가 진행중인 전북 김제 부안 지역과 서울 대전 광주 등지에서 모인 초중고생 100명은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가진 '새만금 지킴이 미래세대 100명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어린이는 '미래세대 소송을 여는 글'을 통해 "어른들은 말 끝마다 어린이는 미래의 주인공이며 자연은 미래세대의 것이라고 하지만, 새만금처럼 커다란 공사를 하면서 주인공들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다"며 "새만금 물막이 공사를 하지 않고 우리와 우리 동생들의 몫을 남겨달라고 관사님들에게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관한 녹색연합과 생명회의는 대규모 원고인단과 후원인을 모집해 5월5일 어린이날 집단 소송을 낼 방침이다.

이번 소송은 '뿌린대로 거둔다'는 불교의 가르침과도 그 맥을 같이한다. 관계당국에게 다음과 같은 부처님 말씀은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설사 허공을 땅으로 만들고 땅을 허공으로 만들 수 있다해도 이미 뿌려놓은 인연의 씨앗은 썩어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나니 인연이 무르익는 날에는 반드시 받아야 하리." 〈증일아함경〉

풍요속의 빈곤

결식아동 17만명

지난달 28일 경제대국 일본에서 2세 여아가 굶주린 끝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었다. 아이의 엄마는 미혼모로 직장을 잃은 채 딸과 함께 난방이 끊긴 아파트에서 열흘동안 굶었다고 경찰에서 밝혔다.

풍요로움 속에서도 빈곤에 허덕이는 아이들.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남아돌아 버려지기도 하는데, 한쪽에서는 굶주림과 새우잠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엄연한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끼니를 제때 잇지 못하는 결식아동이 올해 들어 17만명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있다. 더욱이 결식아동이 98년 13만명, 99년 15만명에서 계속해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인 지원 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우리사회 어느 구석에서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아이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설사 한 아이가 굶어 죽는다해도 그건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닐 것이다.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빈곤은 역시 '남의 일'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회가 아무리 호황을 누려도 그늘속 사람들이 신음한다면 그 사회는 건강한 공동체라 할 수 없다.

못먹고 자란 아이들은 세상을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기 쉽다고 한다. 우리사회의 분배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사회를 원망하는 아이들은 계속해 늘어갈 수밖에 없다.

세존께서는 아난에게 "마땅히 자애의 마음으로 어린애들을 양육하며, 뜻대로 먹어 편안함을 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가난으로 상처받는 아이들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부의 재분배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시론

휴대폰 문화

현대인들은 모든 것이 바쁘고, 급하고, 그래서 기가 막히게 신속하고 효율적이다. 모두들 알 수 없는 흐름에 떠밀려, 실제로 바쁘고 급한 일이 없어도 그러한 흐름에 몸을 실어야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다. 자신만이 한 템포 느리게 움직이면 마치 뒤쳐지는 것 같고 소외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사랑하는 이나 친구는 물론, 부모님께 쓰는 편지도 컴퓨터 앞에서 자판을 두들겨 A4용지로 뽑아 보낸다. 그나마 편지라는 형식을 빌리는 것은 나은 편이고, 대부분은 전화 한 통화로 끝내난다. 참 편리하고 좋아진 세상…. 진정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구미래
〈우리문화연구원 연구위원〉

운전중에는 전화를 걸지 않았던 초기(3년 전)에 비해 최근의 나는 때때로 전화를 거는 편이다. 대개 약속장소로 가는 도중이나 급한 경우에 걸지만, 솔직히 전화를 하기 위해 차를 세운 적은 별로 없었다. 그리고 전화가 걸려오면 받고, 운전중이라는 말을 한 뒤 간단하게 통화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운전중에 전화하는 것을 보면 불안하고 기분이 약간 언짢아진다. 그리고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 교통사고의 주원인이 되어 운전자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최근의 뉴스를 접하면서는, 마치 나만은 예외인 양 고개를 흔들며 세태를 탓한다. '나? 난 피치 못할 경우에만 걸잖아'라고 합리화하면서 말이다.

> "'운전중 사용금지' 결국 법으로 규제 "나부터 지키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핵심은, 나부터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그럴 때 '나'는 스스로 합리화와 용서가 가능한 '미약한 개인'일 따름이고, '나 이외의 모든 이들'은 엄청난 다수가 되어 내게 피해를 주는 '강력한 전체'가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연·혈연·학연 때문에 틀렸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혼자서만 잘났고 튐쳐은 형편없지?" 등등, 우리들이 수시로 토로하는 내가 속한 집단에 대한 불만들에서 과연 자신은 자유로울 수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이가 얼마나 될까? 모두들 다수로부터의 피해의식에 젖어 자신이 그 다수의 일부가 되어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며 살고 있지 않을까? 우선, 나 자신부터 말이다.

과학기술은 엄청난 속도로 발달하여 일상의 삶을 하루가 다르게 변화시킨다. 온갖 문명의 이기들을 주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성숙된 문화가 형성되지 못한 채, 마치 인간의 삶의 질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듯 물질문명만 끝없이 앞서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때로 모든 과학기술이 지금 이 상태에서 그만 멈추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할 때가 있다. 몇몇 앞서가는 이들만이 끝없이 질주하지 말고, 공동체내의 구성원들이 제대로 자리잡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정신을 좀 차리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안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졌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올 후반부터 운전중의 휴대폰 사용에 대해 법으로 규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니 스스로 민망할 따름이다. 시민의식의 성장으로 자율과 자유를 당당히 외치는 우리들이, 성숙된 문화를 자율적으로 조성하지 못하고 법의 힘을 빌게 되었으니 말이다. 정부가 잘못한 일에 대해 제대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으려면, 잘못된 휴대폰문화 등에 대해서도 스스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 과반수가 가지고 있다는 휴대폰, 차안에서든 공공장소에서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는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다만 실천하지 않고 있을 뿐. 이제 법적인 조치와 관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제하는 성숙한 휴대폰 문화가 자율적으로 정착되길 바랄 뿐이다.

다향 속에 묻어나는 단아한 차이야기

"다인들은 차를 선이라 하네"



김봉호 에세이
신국판 352면
값 10,000원



차는 울적한 기분을 흩어지게 하며,
차는 생기가 나게 하며,
차는 잠을 깨게 하며,
차는 잔병을 예방하며,
차는 남을 공경하게 하며,
차는 스스로 예의를 닦게 하며,
차는 마음을 아름답게 하며,
차는 도리를 따르게 하며, 차는 맛을 분별하게 하며
차는 스스로 몸을 다스리게 한다.

-劉貞一 「茶仙十德」

다인(茶人)들이 차를 마시는 궁극적인 목적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차는 홀로 마시는 것을 으뜸으로 하며, 홀로 마시고 있노라면 만감이 교차하게 된다. 그 교차하는 만감이 차차 줄어들다가 맨 나중에는 공허밖에 남지 않게 된다. 그러나 공허를 다시 조이면 성찰(省察)이 생겨나게 된다. 그리고 그 성찰을 거듭하게 되면 새삼스레 이웃과의 인간관계가 떠오르고, 나를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과 나를 해치려 했던 사람들이 떠오르지만 미운 생각이 들지 않고, 증오가 일어나지 않는다. 모두 용서하게 된다. 그러는 중에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이전에 지녔던 욕망과 집착, 손익, 오만 따위가 우습게 여겨지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이 차를 마시는 중에 일어나게 되는 생각의 지나감이다.

茶人들은 茶를 禪이라 하네

21세기를 깨우는 할(喝), 정휴스님 전집 출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사그러들지 않는 감동,
변하지 않는 순수한 사랑을 일깨우는
영혼의 언어가 우리 곁에 찾아온다.





신국판 양장/각권 10,000원

제1권 어디서 와서 무엇이 되어 어디로 가는가
제2권 선재의 천수천안

정휴스님전집 ❶어디서 와서 무엇이 되어 어디로 가는가 ❷선재의 천수천안 ❸전강평전(田岡評傳) 근간 ❹종정법어집(宗正法語集) 근간 ❺백척간두에 무슨 절망이 있으리요 근간 ❻낮은 사람의 자유 근간 ❼고승평전집(高僧評傳集) 근간 ❽열반제 ❾무상 속에 영원을 산 사람들 근간 ❿슬플 때 내 곁에 오는 초인(超人) 근간 ⓫걸레스님 중광 근간

우리출판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8
전화 (02)313-5047, 5056 팩스 (02)393-9696

"새싹불자 눈·귀 될래요"

대불어 제1회 연꽃 어린이기자 연수

"스포츠 기자가 꿈인데요, 이제 어린이 연꽃 기자가 됐으니까 많은 걸 배워 훌륭한 기자가 되고 싶어요"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회(회장 덕진) 주최로 지난달 28일부터 1박2일간 울산 정토사에서 열린 제1기 연꽃 어린이기자 연수에 참가한 김보성(불국초등4) 어린이의 말이다. 이번 연수는 어린 불자들의 맑은 시선으로 포착한 다양한 소식을 전국의 새싹불자들에게 전하도록 하자는 의도로 시도돼 눈길을 끌었다.

연수를 마친 55명의 어린이 연꽃 기자들은 어린이 불교 월간지인 〈연꽃〉지에 각 지역사찰의 소식과 어린이 법회 등을 소개하고, 어린이 신행 이야기 등을 전국의 새싹 불자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게 된다.

서울, 부산, 대구, 울산, 제주 등 각 지역에서 모여든 연꽃 어린이기자들은 1박2일 동안 불교교리, 기자의 역할, 취재와 기사 쓰는 법, 카메라 조작법 등에 관한 이론과 실습을 교육받았다. 또한 경주 감은사, 문무대왕릉, 석굴암 등을 방문해 사진 촬영과 취재 실습을 가졌고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고문인 정관스님으로부터 수계를 받는 등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알찬 시간을 보냈다.

1박 2일간의 연수를 마친 연꽃 어린이 기자들의 각오는 대단했다.

"다른 곳에도 불교를 믿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발로 뛰는 연꽃 어린이 기자가 되어 친구들에게 좋은 소식 많이 전해주고 싶어요."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는 짧은 연수 기간을 아쉬워하는 55명의 연꽃 어린이기자들을 위해 2차 연수를 6월 지도교사 연수와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최초로 시도된 연꽃 어린이기자 연수가 가져올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는 크다. 기자증을 받은 제1기 연꽃 어린이기자들의 활동으로 어른들이 만든 읽을거리 위주의 〈연꽃〉에서 탈피, 독자인 어린이들의 의견과 생각을 담아 어린이가 직접 만드는 어린이 잡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각 어린이법회나 교장의 불교소식을 보다 자세히 알려 좋은 생각이나 행사를 공유하게 하며 어린이 불자들의 자질 향상에 기여, 연꽃 어린이 기자가 미래의 불교계 인재로 커갈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효과까지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전문가들에 의한 체계적인 교육과 꾸준한 관리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실험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감은사·석굴암등 찾아 취재실습…수계도 받아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회는 전국에서 연꽃 어린이기자 55명을 선발해 지난달 28일부터 1박2일간 울산 정토사에서 연수회를 개최했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는 앞으로 전자우편이나 통신을 활용, 전국의 연꽃 어린이기자들을 관리하고 4월호부터 〈연꽃〉지에 각 지방의 특색을 살린 특집기사나 법회이야기를 기획 연재할 계획이다.

최문철 편집장은 "〈연꽃〉이 모든 어린이들에게 불교를 쉽게 전하는 잡지로 성장했으면 한다"는 바람과 함께 재정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며 "뜻 있는 불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울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생활정보

통일전망대에 자동차 극장

(문화) '자유로'와 접한 통일전망대 주차장에 11일부터 야외 자동차 극장이 문을 연다. '자유로 드라이브 인'으로 이름 붙여진 이 극장은 2만5천평 주차장에 조성된다. 2개관으로 나뉘어 하루 두 편의 영화가 상영되며 총 주차 대수는 6백대 규모이다. 상영 횟수는 평일은 저녁 8시와 10시30분 2회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저녁7시·9시30분, 밤12시 등 3회다. 연중 무휴로 날씨에 관계 없이 상영한다. 0348)945-0609

생보자 생계비 지원·무료급식

(복지) 정부는 자활보호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시한이 3월 만료됨에 따라 4월부터 9월까지 자활보호자 100만여명에게 1인당 5만~15만원(가구당 2인 기준)의 생계비를 계속 지급키로 했다. 또 저소득층 지원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3월부터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을 실시, 취학 아동에게는 학교급식 외에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미취학 아동에게는 점심과 저녁 두 끼를 무료로 제공토록 했다. 도시락을 가져 올 수 없거나 학교에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 16만 4000여명에 대한 점심 제공도 토·일요일까지 확대해 일주일 내내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경로당을 이용할 수 없는 노인 2만여명도 3월부터 자원봉사자를 통해 하루 한 끼 씩 식사를 가정으로 배달해 주기로 했다.

제주 농어촌마을 홈페이지 개설

(인터넷) 제주도는 관광철을 맞아 제주·서귀포시 등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어촌 1백72개 마을의 홈페이지 구축 작업을 끝내고 본격적인 마을 소개 서비스에 들어갔다. 제주도청 인터넷 사이트인 제주넷(www.provin.cheju.kr)에 접속, '제주의 마을'을 찾으면 각 향촌마을의 구석구석을 살필 수 있다. 마을별로 개설된 홈페이지에는 △자랑거리 △지역특산품 △풍물과 민속, 관광 △마을단체 안내 △마을 유래 등 10개 분야의 설명이 뒤따른다. 또 '마을 사랑방' 공간을 통해 e-메일을 주고 받는 코너가 있어 출향인사는 물론 관광객들과 쌍방향 대화도 가능하다. 민박 등 예약도 된다.

항공권 인터넷 구입땐 할인

(교통) 아시아나항공은 2일부터 모든 국내·국제선 좌석의 20%를 인터넷을 이용해 예약하는 승객을 위한 전용 좌석인 '인터넷 클라스'로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인터넷클라스는 전화 예약보다 예약상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이 특징으로 5월부터는 좌석까지 컴퓨터로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나머지 일반좌석 80%는 전화·인터넷으로 동시에 예약(www.asiana.co.kr)할 수 있다. 이달 말까지 항공료의 5%를 할인해 주고 5월 말까지는 마일리지를 2배로 더해준다. 대한항공도 이달 말까지 인터넷을 이용해 할인권을 구매하면 5%를 할인.

건강백과

체질에 맞는 목욕법

요즘엔 목욕을 건강 증진의 한 방법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체질을 모르면서 무턱대고 목욕을 하면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가기 쉽다.

이런 취지에서 목욕 건강연구가인 한영준씨(36)가 최근 펴낸 〈목욕도 관광 상품이다〉라는 책에서 인간의 체질을 4가지로 나눈 사상의학에 기초해 제시한 '체질에 맞는 목욕법'을 소개한다.

태양인 미온·보행욕

태음인 냉온수 교차욕

소양인 물맞이욕

소음인 온탕·쑥욕 효험

태양인 폐의 기능이 튼튼하고 간의 기능이 약하다. 간이 작으므로 척추, 허리, 하체가 약해 기대기 좋아하고 걷기를 싫어 한다. 따라서 곧장 고온의 목욕을 하면 몸에 무리가 오며, 미온욕 위주의 입욕을 하면 효과적이다. 처음에는 바가지욕으로 시작, 점차 온도를 올려가며 땀을 내고 진정 작용이 우수한 침탕에서 끝내는 것이 좋다. 하체 단련을 위한 보행욕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태음인 전형적인 대륙성 체질로 골격이 굵고 키가 크며 살이 비대한 사람이 많다. 상체보다 하체가 충실하며 간의 기능이 좋고 호흡기와 피부가 약하다. 피부가 건조해 항상 땀을 흘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호흡수를 늘리면서 복식호흡을 하는 것이 좋고 고온탕 및 초냉탕, 냉온수 교차욕이 어울린다. 저온욕, 고온욕, 초냉탕, 피부에 좋은 율무탕 순의 목욕법이 적합하다.

소양인 소화기능이 좋지 않아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다. 피부가 희고 땀이 별로 나지 않는다. 신장의 기능이 약해 허리와 하체가 부실하고 신장, 자궁, 방광 계통의 질환에 걸리기 쉽다. 몸에 열이 많아서 몸을 서늘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저온 위주의 사우나탕에서 점차 온도를 올려 하면 좋다. 관절, 요통 등에 물마사지 효과가 뛰어난 물맞이욕이 적합하다.

소음인 몸이 왜소하고 핏기가 없으며 소화기에 문제가 있는 체질이다. 그래서 몸이 차므로 땀을 많이 흘리면 좋지 않다. 몸을 항상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더운 음식을 많이 먹고 찬음식은 자제해야 한다. 때문에 저온탕에 잠시 몸을 담근 후 온탕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야 한다. 고온욕은 피하는 것이 상책. 노폐물 제거와 위장에 효험이 있는 쑥욕을 온탕에서 나온 뒤 3분간 해주면 좋다.



◇만해백일장이 초·중·고학생 및 대학과 일반부 등 8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려 열띤 경쟁을 벌였다. 사진은 시상식 장면.

시로 되살린 3.1 정신

21회 만해백일장 성황
대상 이지혜양
단체상 한마음선원

만해스님의 불교정신과 민족자주독립정신을 기리는 '3·1절 기념 만해 백일장'이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안호) 주최로 1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렸다.

21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서는 전국에서 초·중·고·대학생과 일반인 등 8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금강산' '새천년' '부처님마음' '컴퓨터' 등을 제목으로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특히 이번 백일장에는 특례 입학 등의 대입제도로 인해 중고생들의 참가가 예년보다 많아진 현상을 보였다. 전안호회장은 "일제의 탄압에 맞서 글까지 자주독립의 신념을 지킨 만해스님은 불교도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큰 힘을 줬다"며 "만해 백일장은 바로 이 정신을 잇고자 마련된 행사"라고 말했다.

시(시조)와 산문으로 나눠 진행된 이날 백일장에서 만해대상을 수상한 이지혜(안양예고 3년)양을 비롯해 61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단체상에는 안양 한마음선원이 차지했다.

'부처님마음'을 주제로 영예의 대상과 상금 1백만원을 수상한 이양은 "부처님의 마음을 하늘에 비유해 시로 표현해 봤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 기쁘다"고 좋아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참가한다는 정신여고 2년 김소영양은 "대학 특례 입학 때문에 글짓기를 학원에서 과외로 배우는 친구들이 많다"며 "평소 기도하면서 느꼈던 부처님 마음을 글로 표현했지만 정성이 부족해서인지 상을 타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대회를 지켜본 모 사찰의 청소년 지도법사는 "타종교 학생들도 많이 수상하는 등 만해백일장이 처음에 만들어졌던 취지와는 달리 대학 특례입학의 수단과 단순히 글솜씨를 겨루는 글짓기 대회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해 이를 보완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주일 기자

청소년단신

디지털상담실 학생회 조직

청주지역 청소년들의 쉼터 역할을 하고 있는 디지털 청소년 상담실에 내달 안으로 불교학생회가 조직된다.

이번 모임은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담실 이용 학생들이 짜임새 있는 신행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에 창립되는 학생회에서는 노인 봉사, 지역문화답사, 음악활동 등을 벌일 계획이다.(0431)212-5711

레크리에이션 2급과정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는 10일부터 6월4일까지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후7시 사회복지재단에서 2급 전문지도자과정을 개설한다. 강의 내용은 △레크리에이션 이벤트 △찬불가와 율동 △캠프와 하이킹 △전래놀이 △전통등 공예 등이다. 특히 이번 강좌에서는 전통등 만들기를 비롯한 전래 놀이 등 문화강좌를 보강해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를 늘렸다. 참가비는 30만원. (02)738-7860

소년가장돕기 하루찻집

대한불교청년회 전북지구 실상사회는 지난달 26일 실상사 경내에 위치한 전통찻집 '뜰앞의 잣나무'에서 '소년소녀가장돕기 일일찻집'을 열었다. 이날 얻어진 수익금은 모두 남원시내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쓰여진다.

광동학원 신임교사 연수

종립학교 광동학원은 지난달 26일부터 1박2일간 남양주 불암사에서 신임교사 합동 수련회를 실시했다. 신임 교법사들에게 자비로운 불교교리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게 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연수회는 △예불문에 깃든 의미 △불교의 여러 가지 수행방법 △새벽 예불 △바람직한 교사상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알고싶은 불교상식 100가지
100문 100답
정승석 교수의 명쾌한 풀이!
100문 100답!
개정판

불교를 쉽고 바르게 풀이한 100가지 문답!



값 9,500

불교의 기초가 되는 이 100가지만 알면,
누구라도 자신있게 불교를 말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불교입문서!
언제 어디서나 얘기하고 싶은 불교!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불교!
100문 100답에서 찾아드립니다.

정승석 교수의 글은 잔잔하고 자상합니다.
정승석 교수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교수로 계시며
《차한잔을 마시며 나누는 불교교리》《고려대장경 해제》 등 10여 권의 저서가 있습니다.

*교양대학 및 사찰의 법보시 주문 받습니다.

민족사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천오백만 불자들의 가슴을 울리는 불교 명언집!
민족사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

석성우·석지현 스님 엮음



하루 한 구절, 부처님 말씀 300가지!
1년이면 당신도 훌륭한 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색하거나 탐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욕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와
《부처님께 배운 소중한 말씀 300가지》는
불교의 여러 경전과 조사 선지식들이 남긴 말씀 가운데서
주옥 같은 명언들을 뽑은 것입니다.
이 책은 치성하게 들끓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게 합니다.

46판 양장 / 값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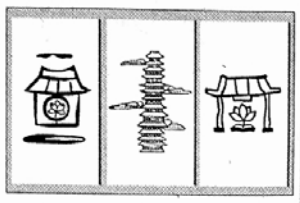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에 이어
"부처님께 배운 소중한 말씀 300가지"도 나왔습니다.

부처님께 배운 소중한 말씀 300가지

정휴스님 엮음(시인, 불교신문 사장) 46판 양장 / 값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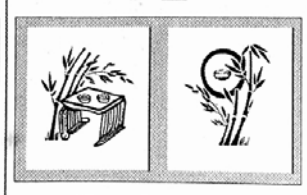
법보시 주문받습니다.
가까운 이에게는 선물로, 은혜 받은 이에게는 법보시로 이 책을 선물합시다.

기도포



7 장 84cm×폭 38cm/ 재질- 면 가격:₩1,600

다 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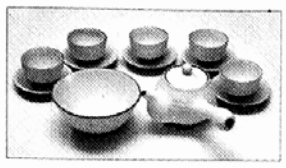
기장 50cm×폭 29cm/ 재질- 면
가격:₩800

관음분청자기



가격:₩495,000

고산다기



가격:₩120,000

산업자원부 추천 우수사이버몰

마 하 몰

(http://www.mahamal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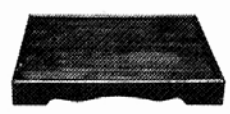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은 불교인의 정서에 맞는 불교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쇼핑, 저렴한 가격, 마음껏 즐기는 불교문화 공간을 마하몰에서 만나십시오.

인터넷 마하몰에 오시면 더욱 많은 불교상품과 작품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주문전화 02-732-1522 (직통)
02-737-8881 (대표)

찻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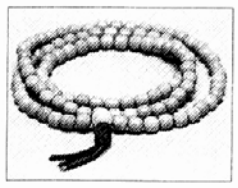
규격 52×32×8cm/ 재질- 소나무
가격:₩54,000

다기함



규격 50×39×15cm/ 재질- 소나무
가격:₩126,000

생광석 108염주



가격:₩35,000

불성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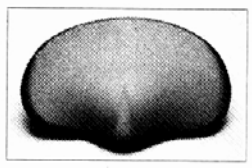
가격:우전₩90,000 / 세작 ₩50,000
중작₩30,000 / 대작₩20,000

수암 만다라 옥침



■가격 : 30,000원
■재질 : 천연옥, 무독성ABS수지, 황동, 24K순금도금테, 헤라이트 반영구자석 12007우스 X 4개

참선명상방석



규격 39×43cm
가격:₩27,000

- 심플신안 1306-035039
- 실크등록 1387
- 인체공학적 설계로 착추보호

옥베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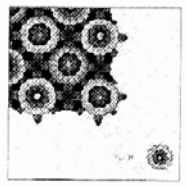
편안한 수면은 어떤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가격: 1개 ₩30,000(셋트₩56,000)

불자반지



재질 금 · 큐빅(15분)
※싸이즈는 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가격:18k₩130,000/ 14k ₩120,000

불교전통창살문양손수건



· 재질 면/ 인쇄 나염
· 문양 용문사 대웅전 장살
가격:₩5,000

반야심경 향로



(가정용) 규격 4높이)×7cm지름)
가격:₩25,000

반야심경 종차걸이



· 색상 검정 · 금색
가격:₩9,000

황토로 만든 수행자의 그릇
와 발 우



가격: 4합 ₩60,000 / 무게 : 2.7kg
2합 ₩30,000 / 무게 : 1kg

걸 망



.색상 · 밤색 · 베이지 · 회색
가격:₩15,000

문구암스님
범음범패 비디오테잎



· 1부 제대령
· 2부 관욕
· 상영시간 각 68분
■ 가격: 각 ₩25,000

윤순희 화선지

· 전지매수 20장
· 규 격 146cm × 74cm

한지는 섬유질이 많이 길고 게 특징이며 통풍이 잘되 오랜세월이 돼도 변질이 없어 서예, 고서, 공예 등으로 많이 쓰여 진다

■ 가격: 각 ₩30,000

주목단주



■ 가격: ₩16,000
■재질: 주목 ■사이즈: 24mm

건강 옥 염주



정옥 · 백옥(小) ₩30,000
정옥 · 백옥(大) ₩40,000

반야심경 지통



재질 대리석 석분(돌가루)
규격(大)
높이 32cm × 지름 25cm
₩220,000
규격(小)
높이 25cm × 지름 20cm
₩140,000

금동미륵반가사유상



■크링 · 불룡등 ₩350,000
■개금 ₩580,000

수암옥 염주세트



재질 옥 (천산지- 중국)
가격:₩98,000

무비스님 특강테잎



금강경강의/ 지장경강의/ 진심직설강의
가격: 각 ₩45,000

한국불교총람



4×6배판/ 1,114쪽/ 양장제본
가격:₩120,000

연좌대불상 진주



규격 25×30cm 가격:₩100,000

석가모니 탄생관련 성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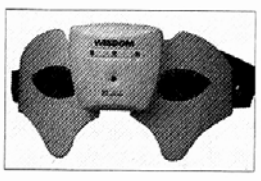
성품내용 성염(오색잎), 성토, 성수, 성주 (인증서 첨부) 가격:₩148,000

쑥 환



₩55,000 (1달분 1통 1,500정)
₩80,000 (2달분 2통 3,000정)

눈안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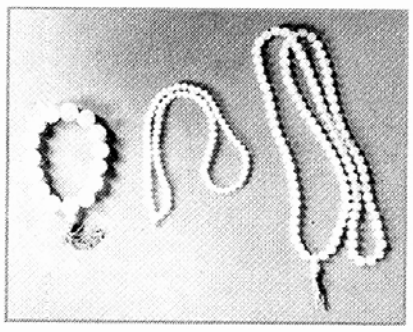


눈의 피로 감소! 가격:₩49,000

마하몰 미니정보

마하몰에서는 불교상품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마하몰 미니 정보란」을 운영합니다..

염주(念珠)



수주(數珠)·송주(誦珠)·주주(呪珠)라고도 하며 여러가지 재질로 만든 일정한 수의 작은 구슬을 꿰어 하나의 원을 만든 것을 말 하는데 보통 불.보살에게 예배할 때 손목에 걸거나 손으로 돌리기도 하며 염불이나 절을 하는 횟수를 세는데 쓰기도 하고, 기원할 때 또는 번뇌에서 벗어나려 할 때에도 염주를 헤아린다. 불교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법구의 하나인 염주는 원래 보리수 열매를 잘 골라 108개를 꿰어 둥글게 만들었으나 이후 여러가지 고귀한 재질로 만들기도 한다. 경전에 나타나 있는 염주의 재료를 보면 다라니경에는 금·은·구리·수정, 목환자·보리자·연화자 등이 있고, 제불경계섭진실경(諸佛境界攝眞實經)에는 놋쇠·구리·수정·진주·연화자·금강자·보리자,향나무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108염주가 가장 많으며 그 재료로는 보리자·목환자·율무·금강자·수정·산호·향나무 등으로 만들고 있고 염주알의 수에 따라 108개로 한 것은 108번뇌를 참회하고 끊음을 표현한 것이며 절반인 54개로한 것은 보살 수행의 계위(階位)인 4선근,10신,10주,10행,10회향,10지를 의미하며 그 절반인 27개로 된 것은 소승의 27현성을 표시하는 것이라 한다. 단주,108주,1080주,3000주 이외에도 염주알의 수,크기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의 염주와 현대인의 선호도에 맞춘 다양한 모양의 염주들이 제작되고 있어 사부대중 모두에게 언제,어디서나 가까이 하는 불교인의 수행,생활 용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 생광석백팔염주 35000
- 백옥백팔염주(대) 40000
- 청옥백팔염주(대) 40000
- 백옥백팔염주(소) 30000
- 청옥백팔염주(소) 30000
- 염주열쇠고리세트(낱개 3개) 9000
- 전단향백팔염주 8mm 16000
- 천은사보리수백팔염주(소) 40000
- 주목백팔염주 10mm 14000
- 모감백팔염주 24000
- 보리수납작백팔염주(중) 30000
- 흑단백팔염주 10mm 16000
- 집대추백팔염주 10mm 7000
- 월성백팔염주 8mm 10000
- 대추백팔염주10mm 4400
- 향소원백팔염주 10mm 4000
- 향백팔염주 10mm 2400
- 야광백팔염주 8mm 2200
- 인조호박백팔염주 8mm 2000
- 인조자만옥 백팔염주 8mm 2000
- 인조취만옥백팔염주 8mm 2000
- 아이보리원색백팔염주 8mm 1600
- 밤색원색백팔염주 8mm 1600
- 벽조목백팔염주 10mm 40000
- 수암옥염주세트 98000
- 어린이백팔염주세트(낱개4개) 4000
- 연밥백팔염주 24000
- 금강주염주세트 30000
- 도실백팔염주(일반) 24000
- 도실백팔염주(특) 40000
- 마노백팔염주 8mm 40000
- 사진백팔염주단주세트 12mm 24000
- 수정백팔염주 8mm 50000
- 수정컷팅백팔염주 8mm 90000
- 자수정마노백팔염주 8mm 70000
- 호안석백팔염주 8mm 50000
- 생광석단주 10000
- 벽조목단주(소) 18000
- 연밥단주 5000
- 금강단주(노랑) 9000
- 금강단주(특대) 11000
- 금강무가공단주 9000
- 대추연꽃단주 30mm 20000
- 도실단주(일반) 6000
- 도실단주(특) 10000
- 모감단주 5000
- 목탁단주 7000
- 보리수단주 9000
- 사진단주 25mm 46000
- 사진백팔염주단주세트12mm 24000
- 월성단주 12mm 7000
- 주목단주 24mm 16000
- 태양주단주 6000
- 향단주 23mm 4400
- 향달마단주 30mm 5000
- 향반야심경단주(일반) 7000
- 향부적단주 30mm 5000
- 향소원단주 30mm 5000
- 흑단단주 15mm 6000
- 주목단주 20mm 14000

달마순금판 액자



상반신
규격 27×38cm (대지크기) 10×15cm (순금판 크기)
· 실용신안등록 24266호
가격: ₩120,000

달마순금판 액자



전신
규격 27×38cm (대지크기) 10×15cm (순금판 크기)
· 실용신안등록 24266호
가격: ₩120,000

바위속에 숨은부처



비디오 테잎
가격: ₩13,000

영인스님 예불천수경 CD



가격:₩9,500

박범훈 작곡집 1(CD)



가격: ₩9,500

날개 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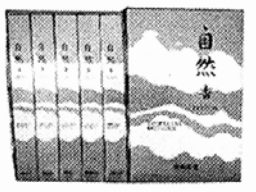
가격: ₩9,500

경 상



전통적 정상을 현실에 맞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 규격 72×34×32cm · 재질 느름원목
■가격:₩85,000

자연향101



규격 265×165×5cm
가격: ₩10,000(개당 ₩2,000)

대나무 숯 염색천



신라시대 경주에서 숯불로 밥짓고 요리하고 염색한 옷을 해 입은 것은 사치가 아니라 숯의 원적외선, 음이온, 환원력 등을 활용한 기막힌 과학입니다. 이런 이론들을 근거로 하여 조금이나마 현대인들에게 대나무숯을 가까이 하픈 확안한 것이 숯 염색천 입니다. 숯 염색옷의 치료 에방효과가 특히 도시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이 천은 지리산 청학동에서 직접 만든 100% 수제품입니다.

■크기 : 44인치 X 5.5야드 ■색상 : 진회색/회색
■가격 : 60,000원

불자 반디라이트 펜



불자들을 위한 천진동자의 여러 모습이 새겨져 있는 반디라이트 펜입니다.텅스텐 볼펜 심이 LED램프의 중앙을 통과하도록 특수 설계되어 일반 산업체의 야간 근무현장, 영상 교육 중 메모, 경찰이나 군인의 야간 경계근무 혹은 작전시 등 일반 비즈니스맨이나 학생, 운전자 모두에게 필요한 제품으로 개인용도는 물론 판촉용, 선물용으로 탁월한 선택이 되실 것입니다.

■1세트 : 10개入
■가격 : 25,000원

보리수 잎 성불 인사장

무궁한 부처님의 가피를 존경하는 분께,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마음 가득한 불심", "온누리 가득한 자비"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불심 보리수 잎 성불 인사장

부처님께서 성도(聖道)하신 바로 그곳 인도의 불교성지(佛敎聖地) 부다가야 마하보디 사원에서 직접 모셔온 이 성불 인사장으로 마음 아리도록 소중한 분들의 새 천년을 열어주지 않으시렵니까? 부처님의 여러 모습이 그려진 보리수 잎은 그림과 같이 고급 색한지 위에 모셨고 본 보리수잎 성불인사장은 잎의 훼손을 피하기 위하여 우송용 봉투를 포함, 1매씩 포장되어 있습니다. 본 상품은 한장 한장 정성들여 만든 수공예 인사장 입니다.

산촌유과 … 한국정통의 유과

한과는 곡물 가루에 꿀, 엿, 참기름, 설탕 등을 넣고 반죽하여 꽃 모양 물고기 모양 같은 판에 밖아 낸 다음 기름에 지지거나 조려서 만든 과자이다. 다른 말로 조과(造果)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천연물에 더하여서 만들었다는 뜻이다. 산촌한과는 사찰음식의 전문가인 김연식씨가 불교사원 요리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정통 한과이다.

산촌 들깨유과	90,000원	산촌 콩유과	30,000원
산촌 김유과	90,000원	산촌 쑥유과	30,000원
산촌 잣유과	100,000원	산촌 호박유과	30,000원
산촌 대추유과	100,000원	산촌 김치유과	90,000원
산촌 땅콩유과	100,000원	산촌 된장유과	90,000원
산촌 흑임자유과	100,000원	산촌 고추장유과	90,000원
산촌 파래유과	90,000원	산촌 감자튀김	54,000원
산촌 찹쌀유과	30,000원	산촌 감자유과	54,000원

※ 1BOX : 4kg 공통

향적원… 고향의 맛을 선물로

본 제품은 순창군 복흥면(해발300M) 지역에서 직접 농사지은 우리 농산물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무농약,무방무제,무조미료 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15도 이하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판매가 (본 제품은 1kg 기준임)

- 고추장 12,000원
- 무우 장아찌 12,000원
- 된장 7,000원
- 마늘쫑 장아 12,000원
- 쌈장 7,000원
- 된장 콩잎 12,000원
- 더덕 장아찌 30,000원
- 된장 깻잎 12,000원
- 오이 장아찌 12,000원
- 산초 장아찌 30,000원
- 갑 장아찌 12,000원
- 울외 장아찌(마니스키) 12,000원
- 간장(1.8L) 8,000원

이렇게 들었다 출가정신

13일은 부처님 출가재일이다. 부처님께서 삶의 근원적인 의문을 풀고자 부귀와 영화등 일체의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한 의미있는 날인 것이다. 이번 부처님 출가절을 맞아 진정한 출가정신이 이땅에 다시 구현되기를 바라는 사부대중의 발원은 그 어느때보다 높다. 최근 조계종교육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승풍진작을 위해 출가기준을 엄격히(94.5%) 하고, 출가자의 질을 높이자(95.1%)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이는 98년 99년 조계종 사태를 겪으며 출가정신 구현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부처님은 출가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다. "부모형제와 이별하고 출가한 사문은 욕망을 쉬고 애욕을 끊어 자기 마음의 근원과 법의 깊은 이치를 알아서 열반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안으로 얻을 것이 없고 밖으로 구할 것이 없어, 마음은 진리에도 매이지 않고 업도 짓지 않는다." 경전에 나타난 출가의 의미와 출가수행자는 어떠해야 할지 들어본다.

일체 욕망 쉬고 해탈 얻으라

▨집에서 사는 생활은 비좁고 번거로우며 먼지가 쌓인다. 그러나 출가는 넓은 들판이며 번거로움이 없다. 〈숫타니파타〉

▨삭발하는 것만으로 출가라 하지 않는다. 대정진을 일으켜 중생의 일체 번뇌를 제거하려 할 때, 이를 출가라 한다. 〈비화경〉

▨어떤이가 찾아와서 출가를 원하거든 의복과 밥을 주고 4개월간 함께 살아야 하며, 만약 그를 관찰해서 제도할만한 자라고 보여지면 비로소 출가시켜 구족계를 주는 것이다.

〈근본설일체유부 비나야잡사〉

▨불법에 출가하는 자는 네 가지에 의지하고 구족계를 받음으로서 비구가 되는데, 네가지란, ①누더기를 입고, ②걸식으로 살아가고 ③나무밑에서 거처하며, ④남이 버리는 것을 얻어 약으로 쓰는 것이다.

〈근본설일체유부 비나야잡사〉

▨집을 나온 사람은 하천하게 생활하나니 머리를 깎고 발우를 가지고 집집마다 밥을 빈다. 혹시 천대를 받더라도 그렇게 하는 까닭은 훌륭한 이치를 구하기 위해서이니,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근심과 번민, 슬픔과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이다.

〈잡아함경〉

▨비구들은 첫째,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를 입고 바른 믿음으로 도를 배우고 둘째, 모든 번뇌를 끊고 해탈을 얻고 스스로 후생에 몸을 받지 않을 줄 알아야 하느니라. 〈잡아함경〉

▨내가 출가한 것은 병듦과 늙음과 죽음이 없고 근심·걱정·번뇌와 지저분함이 없는 가장 안온한 행복의 삶을 얻기 위해서였다. 〈중아함경〉

▨"나가세나 존자여, 당신들은 무슨 목적으로 출가한 것입니까? 또 당신들의 최상의 목적은 대체 무엇입니까?" "대왕이시여, 우리들은 이 괴로움이 멸하고 다른 괴로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목적으로 출가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우리의 최상의 목적은 어떤 집착도 남지 않은 완전한 열반의 경지입니다."

"나가세나 존자여,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목적으로 출가하는 것일까요?"

"대왕이시여,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목적으로 출가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왕에 대한 공포에서 피하기 위해, 도둑에 대한 공포에서 피하기 위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또는 생활을 위해 출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르게 출가하는 사람들은 이 목적으로 출가합니다."

〈미란다 왕문경〉

▨나는 왕자의 지위를 문틈에 비치는 먼지처럼 보고, 금이나 옥 따위의 보배를 깨진 기왓장처럼 보며, 비단옷을 헌 누더기같이 보고, 삼천대천 세계를 한알의 겨자씨 같이 본다. 열반을 아침 저녁으로 깨어 있는 것과 같이 보고, 평등을 참다운 경지로 보며, 교화를 사철 푸른 나무와 같이 본다. 〈사십이장경〉

▨바른 가르침을 수지(受持)하고 여러 지혜를 닦아, 보리(菩提)를 증득하기 위해 발심한다. 심심(深心)으로 신해(信解)하여 항상 청정한 태도로 온갖 부처님들을 공경·존중하며, 법(法)과 승(僧)에도 이같이 하여 지성으로 공양하기 위해 발심한다.

〈화엄경〉

▨보살이 생존(生存) 중 처음으로 발심할 때, 오로지 보리(菩提)를 구해 마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의 일념(一念) 공덕으로 깊고 넓어서 끝이 없을 것이니, 여래가 설하사 한겁(劫)을 다 소비하신대도 능히 다하시지 못하리라. 〈화엄경〉

신행 캘린더

3월8일 (수)

■ 이화여대 에밀레종 한국고대회화 특별전=이화여대와 국립경주박물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에밀레종-한국고대회화의 흔적' 특별전이 6월30일까지 이화여대 박물관에서 열린다. 02)3277-3676

■ 제주 불교문화대학 개강법회=제주불교 문화대학은 오후2시 관음사 포교당 보현사에서 개강법회를 봉행한다. 064)702-2828

■ 대한불교진흥원 '한국사찰의 편액…' 출판기념법회=대한불교진흥원 서돈각이사장은 오후6시30분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한국 사찰의 편액과 주련〉 출판 기념법회를 갖는다. 02)719-2606

3월9일 (목)

■ 조계사 대승회 창립10돌 법회=조계사 대승회는 저녁7시 대웅전에서 무진장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창립10주년 기념 특별법회'를 개최한다. 02)736-4848

3월10일 (금)

■ 부산불교합창단 연합회 하루찻집=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는 자원봉사기금마련을 위한 하루찻집을 부산시 양정동 백조 커피숍에서 개최한다. 051)867-0501

3월11일 (토)

■ 여래지 답사회 백련사·무위사순례=여래지 답사회는 무박2일동안 동백꽃 군락지로 유명한 백련사와 다산초당을 거쳐 무위사를 둘러보는 사찰 순례를 떠난다. 출발은 밤9시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주차장 02)3445-0202



◇만물이 소생하는 춘삼월에 지루한 일상사를 훌훌털고 고즈넉한 산사로 떠나는 순례 프로그램에 동참해 보자. 자신을 되돌아 보고 부처님 곁에서 재발심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마련될 것이다.

■ 불광산사 염불정진법회=서울 불광산사는 오후2시 대웅전에서 염불정진 법회를 마련한다. 02)2276-0993

■ 마대산 다불사 산나물 채취·방생법회=마대산 다불사는 오후6시 1박2일 일정으로 영월 동강변에서 '산나물 채취와 방생법회'를 봉행한다. 0373)372-1930

■ 부산불교 교육원 참선특강=부산불교교육원은 오후4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참선특강을 마련한다. 참선의 자세, 호흡법, 생활참선법 등을 강의한다. 051)466-4080

■ 터사랑 화엄사·하동 평사리 순례=터사랑답사회는 12일까지 무박2일간 화엄사를 거쳐 토지의 무대인 하동 평사리와 광양 매화마을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사찰 순례를 떠난다. 역사탐방연구회 염상규선생님이 안내한다. 참가비는 5만원 02)725-1284

3월12일 (일)

■ 화계사 목탁교육=화계사는 불교의식에 관심 있는 불자들을 대상으로 오후3시30분부터 2시간동안 거사회 사무실에서 '목탁교육'을 실시한다. 02)902-2663

■ 중요무형 문화재 전통무용 공연='중요무형문화재 전통 무용의 밤'이 저녁7시30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는 태평무, 승무, 살풀이춤 등이 펼쳐진다. 02)3675-6501

3월13일 (월)

■ 금강정사 출가체험 정진법회= 광명 금강정사는 20일까지 오전, 오후로 나눠 새벽예불, 참선, 육조단경 법문 등 출가체험 정진법회를 봉행한다. 02)893-2700

3월14일 (화)

■ 이태영 연꽃사진전=연꽃의 생로병사를 사진으로 담은 이태영 사진전이 19일까지 서울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의 수익금은 불우소년소녀가장 돕기에 쓰여진다. 02)2000-9000

■ 국제신문 문화센터 불교특강=부산 국제신문 문화센터는 소강당에서 '전문가 7인과 함께하는 불교강좌' 특강을 마련한다. 051)500-5379

■ 진각대학 수료·졸업식=진각대학 수료식 및 졸업식이 오후2시 총인원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어 오후4시에는 종의회 회의실에서 입학식이 개최된다. 02)913-0753

■ 동국대 정각원 고승 초청법회=동국대 정각원은 오후 4시 정각원 법당에서 오녹원스님(동국학원 이사장)을 초청해 법회를 개최한다. 02)2260-3016

법회안내

천안 천불사 법문



성수 조계종 원로의원 및 황대선원 조실스님은 10일 오전10시30분 천안 천불사 천불전에서 '고승 초청법회'에 초청돼 법문한다. 0417)557-3223

법왕사 백고좌 법회



정무 이천 영월암 주지스님은 13일 대구 법왕사 대웅전에서 고승법회에 초청돼 '부처님 출가에서 열반까지'를 주제로 법문한다. 053)766-3747

대승회 10돌 법문



해주 동국대교수스님은 16일 오후7시 '대승회 창립 10주년 특별법회'에 초청돼 '화엄사상의 이해'를 주제로 조계사 대웅전에서 법문한다.

출가재일 기념설법



지범 제주불광사 주지스님은 13일 오전 10시 대웅전 법당에서 부처님 출가재일을 맞아 법문한다. 064)767-2580

게시판

알림

▲1일 출가체험자 모집=조계사는 13일부터 20일까지 출가 열반재일 발심 정진에 참가할 '1일 출가 체험자'를 모집한다. 동참금 3만원. 02)720-6742

▲장애인 방과후교실 개설=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특수학교나 일반학교 장애어린이들의 사회성 향상을 위해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02)2282-1100

▲장애인 집단상담실 개설=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35~65세 이하 뇌졸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3기 집단상담실 '우리두리'를 개설했다. 02)989-4215

▲불교서적 기증받아=군산불교회관은 불교서적도서관에 비치할 불교서적 기증 후원을 기다린다. 신행서적을 비롯해 경전, 수필 등 불교에 관련된 서적이면 모두 가능하다. 0654)443-1080

▲소쩍새 마을 후원품 모집=소쩍새마을에서는 쌀, 간장, 생선, 등을 비롯해 유아용 기저귀, 화장지 등 생활용품과 비상 구급약 등의 후원품을 기다린다. 0371)762-9870

모집

▲재소자 상담 자원봉사자=능인선원은 인천교도소 재소자들을 방문해 신행 상담과 상조회에서 봉사할 불자들을 기다린다. 02)577-5800

▲레크리에이션 지도자=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주1회 2시간씩 게임, 노래 등 레크리에이션을 지도할 봉사자를 모집한다. 0443)652-0900

▲장애인 후원자=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지급할 쌀과 장학사업 후원자를 모집한다. 후원금 계좌는 한빛은행 138-144935-13-501(예금주 삼전종합사회복지관) 02)421-6077

▲불교서적후원자=충남지방경찰청 경승실은 법당에 비치해 둘 불교서적 후원자를 기다린다. 042)226-5540

강좌

▲다도 참선등 문화강좌=성북동 길상사는 다도, 참선, 불교기초교리 등 문화강좌를 5월9일까지 개설한다. 수강료는 5만원 02)3672-5945

▲유아미술교실=길음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월·수·목요일 3회에 걸쳐 10세 미만의 유아들을 위한 미술교실을 연다. 수강료는 월2만원. 02)985-0161~4

▲불교기초교리=금화사불교대학은 8일부터 불교 기초교리 과정의 '불교대학 신입생을 모집한다. 매주 수요일 주1회 오후2시부터 강의한다. 6개월과정으로 '마음을 여는 예불문' '함께하는 천수경' 등을 대안스님이 지도한다. 051)582-3042

▲포교사·상담사 과정=불교복지보건대학은 포교사 과정, 심리상담사 과정, 포교봉사자 과정을 과정을 개설하고 신입생을 모집한다. 각 과정에서는 불교교리, 불교사회복지학, 상담이론 및 실습 등을 교육한다. 접수마감은 10일까지. 051)647-6556

▲금강경 강좌=원우회는 4월 26일까지 둘째·넷째 수요일 오후6시30분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금강경〉 강좌를 마련한다. 법사는 무비스님. 02)732-4923

▲불교기초교리=광주 무량선원은 불교학당 신입생을 모집한다. 과목은 초발심자경문, 아함경, 불교기초교리 의식 등이며 매주 화·금요일 2회 강의한다. 062)971-8626

▲노인건강교실=개금복지관은 노인들에게 다양한 교양교육을 통해 건전한 여가활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바람 노인대학 신입생을 모집한다.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자기계발, 건강교실, 레크리에이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접수마감은 12일까지. 051)893-5034

▲불교문화=불교신행연구원과 성보문화재연구원은 21일부터 7월11일까지 가람배치, 탑과 불상, 법당의 구조 등에 대해 강의한다. 수강비는 15만원이며 선착순 30명 모집. 02)582-6613

▲경전강독반=진주불교교양대학은 '제2차 경전강독반' 강좌를 개설한다. 이번 과정은 초발심자경문, 금강경오가해, 법화경 등을 종민스님이 강의한다. 강의시간은 월요일 오후7시30분. 0591)747-0108

▲경전반=원효불교대학은 초급반, 경전반 신입생을 주야간에 걸쳐 모집한다. 053)563-9154

화촉

▲팔공산 동화사 포교국 박순계 계장은 前 맑고향기롭게 대구모임 간사 이옥련양과 19일 낮 12시20분 대구 글라리워팅 5층에서 화촉을 밝힌다. 053)985-4404

현실속의 불교를 지향하는
불교와 문화
Buddhism & Culture



1999년 겨울 호

지상강연 / 혜거 스님과 떠나는 불교진리탐구 ❸ - 禪강좌
승찬 대사의 신심명(信心銘)

불교계진단 ⓫ / 불교계 생활운동의 현주소

최초완역 / 일연 스님의 『중편조동오위(重編曹洞五位)』 마지막편(卷下)
『삼국유사』를 편찬한 일연 스님의 또 하나의 역작, 『중편조동오위』 번역의 마지막편. 이 책은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으로 알려져왔으나 서여 민영규 선생이 일본 京都대학에서 발굴함으로써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귀중한 자료이다. 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이창섭 선생이 국내 최초로 번역 소개하는 『중편조동오위』를 통해 일연 스님의 선(禪)사상을 새롭게 조명해본다.

사진으로 보는 성보기행 ⓬ / '99건축문화의 해 특집
우리 절의 건축문화체험 ❹ 송광사, 그 정연한 영역의 미학

특집 / 21세기를 위한 열린교육, 대안학교
총체적 위기 앞에 선 우리 교육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열린교육, 대안학교. 21세기 새로운 교육현실 개선과 열린교육을 실현하고 있는 대안학교의 현장을 찾아보고 대안학교 설립을 준비 중인 불교계의 가능성을 점검해본다.
- 21세기 대안교육의 물결과 방향
- 대안교육의 필요성과 불교계의 가능성
- 현장탐방/ 새로운 교육의 현장, 대안학교를 찾아서

우리시대의 匠人 / 기와 장인(製瓦匠) 정문길 씨

21세기 불교정보화를 위한 과제
불교계 내의 개인 홈페이지 소개

인물포커스 / 한국불교의 거목을 찾아서 · 영/호남 재가불교운동편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기획
근 · 현대 재가불자들 중 각 분야별로 불교활동의 현저한 업적을 남기고 타계한 선각자의 삶을 조명하여 재가불교운동의 당위성과 모범적인 불자상을 정립하고자 한다.
- 온 몸으로 개혁불교를 살현한 현공 은주임 거사
- 동양의학의 중흥을 꾀한 여동명 거사

브라이언 베리의 동남아불교문화기행 ❷
앙코르 와트와 보로부드르

불교와 풍속 / 불교와 성(性)
기복불교와 성(性)의 사회 풍속사

연재소설 / 『관세음보살普행경』 평역 · 관세음보살 이야기 마지막회
『산은 산, 물은 물』, 『만행』 등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소설가 정찬주 선생이 소설적인 구성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불자들의 신행지침서 같은 소설

불교관계논저 총합색인(1999. 9. - 1999. 12)

불교계 주요일지 - 조계종 사태 일지(1999. 9. - 1999.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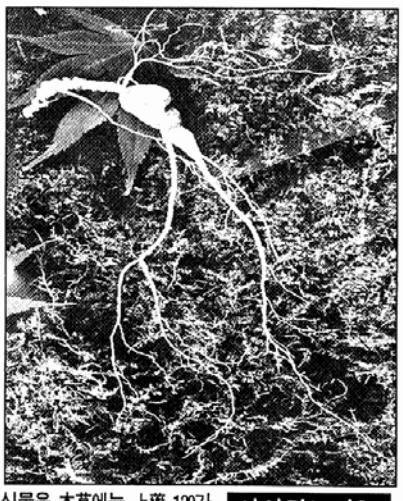
불교와문화 전화: 02-719-2606, 전송: 02-719-5052, 121-050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대한불교진흥원 출판부 E-mail:kbpf@chollian.net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新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150년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

지역 신도회 신행 '기지개'

마곡사 '불자의 날' 제정 행사 다채
범어사 97개 말사 신도조직 재건
군산불교련 경로봉사·도서관 마련

지역 신도회들이 봄을 맞아 '기지개'를 펴고 있다.

마곡사신도회(회장 윤석관)가 마곡사(주지 진허스님)와 함께 '불자의 날'을 처음으로 제정하고 신도회 강화를 선언한 것을 비롯, 부산·대구·수원·군산지역 신도회들이 활발한 신행을 다짐하고 있어 지역신도운동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신도회는 5일(매년 3월 첫째 일요일)을 '(재가)불자의 날'로 제정하고 거사림, 청년회, 중·고등부, 어린이법회를 계층별로 재정립해 내실있는 신도조직으로 거듭나기로 했다.

이날 총회와 '불자의 날' 축하공연을 펼친 마곡사신도회는 당장 실현가능성이 적은 사찰 재정공개화를 요구하기 보다는 사찰 행사에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해 명실상부한 '4부대중' 공동체를 이룩한다는 방침아래 수련회와 어린이법회를 활성화하고 등산로주변에 나무 심기, 관광객 안내 등 포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부산에서는 2월21일 부산불교실업인회 최용원 신임회장이 취임한 것을 시작으로 2월28일 부산불교신도회 강선태 회장이 롯데호텔에서 1천5백여명의 재가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법회를 가져 성황을 이뤘다. 또한 조계종 중앙신도회의 조직정비와 때를 같이 해 14교구 본사 범어사신도회도 박수관 회장을 선임하고 조직정비에 나섰다.

부산불교신도회는 환경·봉사관련 시민대상 제정과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부산불교실업인회는 복지·장학사업을, 범어사신도회는 97개 말사 신도회 조직 재건을 주요 사업으로 설정하는 등 각자 개성을 살린 신도회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부산불교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구도 활발하다. 대구구도회 운불련 생명나눔실천회 대한중석석불회 등 12개 재가신행단체가 모여 결성된 대구불교신행단체연합회는 2월27일 영남불교대학에서 제2대 박운식 회장 취임법회를 열고, 실질적인 연대활동을 펼칠 수 있는 신행단체연합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수원에서는 경기불교회관 거사회인 '마하연'(회장 유원근)이 1일 창립되었으며, 수원포교당거사회(회장 진철희)는 2월29일 '거사회 발전 토론회'를 열고 친목활동과 교리공부 차원을 넘어 사회봉사·환경운동 등 대승보살사상의 실천주체가 되기로 다짐했다.

불교신도연합회와 불교청년연합회가 이끄는 군산지역 신행활동도 활발하다. 이들 단체는 회원 확충에 나서는 한편 군산역앞 경로식당 자원봉사를 강화하고 군산불교회관에 불교서적도서관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중앙신도회 임동현 기획실장은 "뒤늦은 감은 있지만 지역 신도단체들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신도활동을 펼치려 하고 있다"며, "이는 풀뿌리 신도단체의 자생력을 키우는 일로 침체된 불교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경·천미희 기자
(jgkim@buddhapia.com)



◇부산불교신도회는 2월28일 롯데호텔에서 사부대중 1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단 이·취임법회를 봉행했다.

개신교 부대장 군법당 신축불사 지원

군부대서 꽃핀 종교화합

개신교인 부대장이 군법당 신축불사를 지원해 종교화합의 신선한 사례가 되고 있다.

육군 제31보병사단 최인수 사단장(소장)은 사단 군법당인 호국관음사(주지법사 한영규)가 좁은 창고(20평)를 개조해 사용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 하던중, 지난해 7월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천운) 등이 군법당 신축불사를 추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부대소유의 영외지역에 토지사용을 허가해 주는 등 불사를 적극 지원해 신축 법당이 4월 20일 낙성식을 앞두게 되었다.

한영규 법사는 "독실한 개신교 신도인 사단장님은 군의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군법당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면서, "향림사 조실 천운스님과 절친한 관계를 유지해 온 사단장님은 참된 종교인이라면 종교화합에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 광주전남불교신도회, 건축주 김재영 대영건설 사장 등의 도움으로 80평의 법당과 40평의 요사채가 완공된 호국관음사는 현재 법당에 불상, 불단 등 내부장엄물과 건립불사금 등 총 공사비 2억5천여만원중 1억여원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불자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 (016)356-5829

김재경 기자

청암스님 10년간 모은 칠순 비용

천만원 장학금 쾌척

낙산사도 1천만원 기탁

충북 음성의 조그마한 절 노스님이 칠순 잔치 비용으로 10년동안 마련한 1000만원의 거금을 장학금으로 쾌척해 화제가 되고 있다. 성불사 주지 청암스님은 2월28일 음성군청을 방문, 음성장학회에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생극면 지역에서는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큰스님으로 존경받고 있는 청암스님은 청주교도소와 천안교도소 불교교화위원으로 활동하며 장기수들을 위한 생일잔치를 매달 베풀어 주고 있고, 최근에는 사회복지시설인 음성 꽃동네에 쌀 세 가마니로 인절미를 만들어 전달하는 등 종교를 초월한 자비를 실천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13공수여단 흑표부대를 방문, 법당 건축에 필요한 대리석(2300만원 상당)을 기증하고 석탑 조성비로 800만원을 기탁하기도 한 청암스님은 37사단 4대대에도 엠프 등 방송시설을 기증하고 법회를 마련하고 있다.

청암스님은 "불우한 학생들이 용기와 희망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주지 지홍)는 2월24일 양양고와 양양여고를 방문해 불자학생 4명에게 21만1,400원씩 학비전액을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또 서울대 3학년에 재학중인 金한민(24)군 등 7명에게는 온라인 통장을 통해 100~200만원의 장학금을 송금하는 등 이날 총 11명에게 984만 5,000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낙산사는 지난 90년 이후 매년 1회씩 불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벌이고 있다.

김재경 기자

대원불교청년회 4돌

'티벳문화 한마당' 열어



대원불교청년회(회장 오세희)는 2월27일 부산 공덕원에서 창립 4주년을 기념해 티벳문화 한마당 행사〈사진〉를 열었다.

공덕원 주지 효선 스님, 티벳의 초겔 스님을 비롯 2백 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이날 법회는 1부 법요식에 이어 초겔스님의 특강이 열려 호응을 얻었다.

'티벳의 정신과 문화'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특강에서 초겔스님은 "탐진치를 버리고 순수한 인식으로 수행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티벳 사진전, 티벳불구 전시, 티벳 다큐물 상영, 티벳음악 등을 선보이는 이색적인 자리를 마련했다.

96년 창립된 대원불교청년회는 매주 금요일 법회를 열고 중창단을 구성, 각종 불교행사에서 음성공양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한편 홈페이지(www.aceline.co.kr/daewon)를 개설해 인터넷 포교에도 주력하고 있다. (051)625-2253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안동 제비원 미륵불주변 관광명소 개발

50억 들여 주차장·상가건설

고려초에 조성된 경북 안동 ㅇ천동 석불상(일명 제비원 미륵불 보물 제115호)과 인접한 연미사 주변 일대가 관광지로 개발된다.

안동시는 2월25일 조계종과 협의해 50여억원을 들여 이천동 석불상과 연미사, 3층석탑 주변을 정비해 새로운 관광명소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동시 이천동 국도 5호선(안동에서 영주쪽으로 6㎞지점) 오른쪽에 우뚝선 높이 12.38m, 머리둘레 2.43m의 이 초대형 석불은 이마에 양각으로 백호가 새겨져 있다. 또 석불상 바로 뒤편에는 석불상 조각가가 제비로 변신한 전설을 지닌 연미사(燕尾寺)와 사찰 뒤편에 3층석탑이 있다. 그러나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은데도 주차공간이 없어 지금까지 소외돼 왔다.

안동시는 이곳을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조만간 조계종 관계자와 우회도로 개설, 개울복개공사, 연미사 이전 중건, 석불상 제단마련, 상가조성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석불상 주변이 관광지로 개발되면 하회마을과 도산서원, 안동임하댐, 영주 등지를 연결하는 관광벨트가 형성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사천 다솔사 대양루 복원
극락전·응진전 등 새단장

유형문화재 제83호인 경남 사천시 다솔사 대양루가 원형대로 복원되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이같이 대양루가 복원됨에 따라 다솔사의 문화재자료 제 148호인 극락전과 제149호인 응진전 석가모니 진신사리탑 등과 더불어 사천지역의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조 34년(1758년)에 중건된 대양루는 목조기와 2층 맞배지붕에 정면 5문, 측면 4문 1백8평의 사찰내 누각으로 지난 74년12월 16일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그동안 관리 부실로 서까래 기와 기둥이 부식되면서 건물 전체가 전면에서 우측으로 5도 이상 기울어져 붕괴 가능성이 높았다. 김재경 기자

종단소식

조계종

수덕사 신도간부 연수

제7교구본사 수덕사(주지 법장)는 25일부터 26일까지 수덕사에서 신도간부연수교육을 갖는다. 본·말사 신도회 간부 100여명이 참석할 이번 연수회에선 수양교육, 찬불가교실, 포교활동사례발표, 기초교리, 주지스님 특강 등을 실시한다.

직지사 선관위 구성

제8교구본사 직지사(주지 녹원)는 2일 오후 1시부터 직지사 설법전에서 제8회 교구종회를 열고 8월에 있을 본사 주지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직지사 주지 녹원스님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다.

도명선사 부도탑비 제막

고성 화암사(주지 동선)는 14일 오전 11시 담연당 도명선사 부도탑비 제막식을 거행한다. 지난 95년 3월 입적한 도명스님은 상원사, 월정사 주지와 조계종 중앙종회 제 5·6·8대 의원, 총무원 규정부장 등을 역임했다. (0392)633-1525

태고종

연흥사 불교대학 개설

부천 연흥사(주지 법경)는 불교교리반, 한문반, 한글반 등 3개 반 6개월 과정의 연흥불교대학을 개설했다. 불교교리반에서는 불교기초교리 및 사찰예절, 경전이해 등을, 한문반에서는 천자문,고사성어, 사자소학, 명심보감을 한글반은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글의 읽기과 쓰기를 가르친다. (032)348-6602

신협 올예산 10억6천만원

신용협동조합(이사장 인곡)은 2월 26일 봉원사에서 제1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예산 10억5천8백51만9천원을 확정했다. 또 당기순이익은 9천6백62만 8천원을 내기로 했다. 이와함께 올해 중점 사업으로 △금융기관간 온라인을 연결하는 금융결제원에 가입 △여·수신 금리표 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천태종

명락사 창건 25돌 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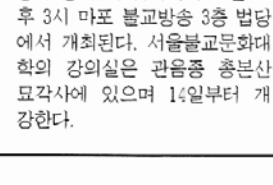
서울 명락사(주지 도원)는 창건 25주년 기념법회를 19일 오후 2시30분 명락사 4층 법당에서 봉행한다. (02)889-7272

진각종

영광심인당 밀교대법회

광주 영광심인당(주교 지정)은 24일 오후 2시부터 심인당 법당에서 밀교교리 대법회를 개최한다. 진각종 총금강회와 대전지부 금강회 영광 지회가 주최하는 이번 교리대법회에서는 불교방송에서 밀교강좌를 맡고있는 혜정대정사가 법문한다. (062) 263-5272

원정각 대종사 6주기 추모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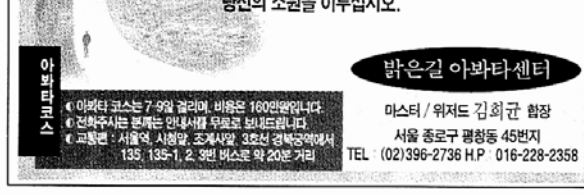
진각종 2·3·4·5·6대 총인을 지낸 원정각 대종사 6주기 추모불사가 2월 25일 성초 통리원장, 회정대정사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서울 밀각심인당에서 봉행(사진)됐다. 이날 성초 통리원장은 추념사를 통해 "스승의 법을 등불삼고 가르침을 지광이 삼아 인류사에 빛날 진각문화를 꽃피울 새로운 종사를 만들어 가자"고 다짐했다.

관음종

서울불교문화대 입학식

종립 서울불교문화대학(학장 김용직)의 입학식이 10일 오후 3시 마포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개최된다. 서울불교문화대학의 강의실은 관음종 총본산 묘각사에 있으며 14일부터 개강한다.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코스
밝은길 아바타센터
아바타 코스는 7-9일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교통편 : 서울역, 시청앞, 조계사앞, 3호선 경복궁역에서 135, 135-1, 2, 3번 버스로 약 20분 거리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합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 (02)396-2736 H.P : 016-228-23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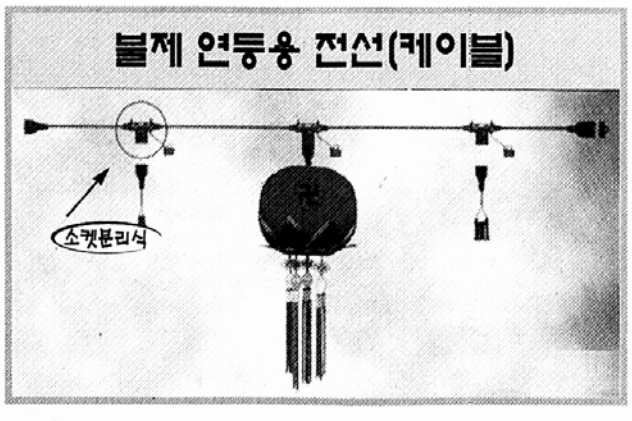
불자 기업에서 제작하는 불제전선(케이블)
봉축행사 사찰연등 법당기도등용 불제 T형 전선(케이블)

사용용도
사찰연등용 · 옥외행사용

규 격
· 등간격 : 30cm, 50cm, 1M, 2M, 3M, 5M 기타주문
· 모델 : DW-101, DW-100F (고리용)

안전성 작업성 내구성 확보
· KS전선사용
· 감전,화재사고를 예방
· 설치 · 수거하실 때 배선과 소켓을 분리하여 작업하시면 편리
· 주로 파손되는 곳이 소켓이므로 소켓만 교환하여 사용하시면 환수 재사용이 가능

불제 연등용 전선(케이블)



전등배선
· 일일이 피복을 벗겨 테이프로 감고 설치 사용하시는데 얼마나 번거로우셨습니까?
· 이런 사소한 배선에서도 단선, 누전, 합선, 단락, 과열 등에 의해 감전사고나 화재사고의 위험은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 전기는 소리도, 냄새도, 보이지도 않고, 예고도 없습니다.
· 단지 충분한 지식의 이해와 점검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입 본사 영업부
문의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번지
TEL : (032)582-6235~6
080-5826-236
A/S : (032)583-4023
FAX : (032)571-9470

㈜ 대원기업

사찰용, 연등용 전구 3W~5W도 납품합니다.
(고추전구, 인지전구)
■ 인터넷: http//:www.bulj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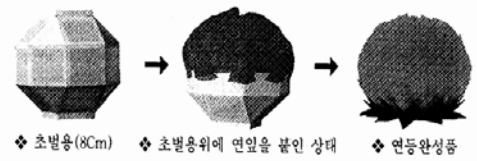
사찰 전기화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합시다. 4·8 봉축 이전에 미리 주문하시면 편리합니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가격 동결 단행!!
● 어려운 사찰 경제에 외국산 등 수입을 막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 초벌용(8Cm) ❖ 초벌용위에 연잎을 붙인 상태 ❖ 연등완성품

문의 하실 곳 : (02)467-1513 H: (016)552-9360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조립식 팔각등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난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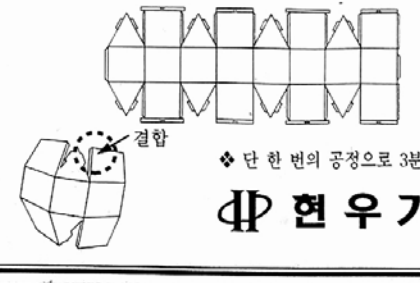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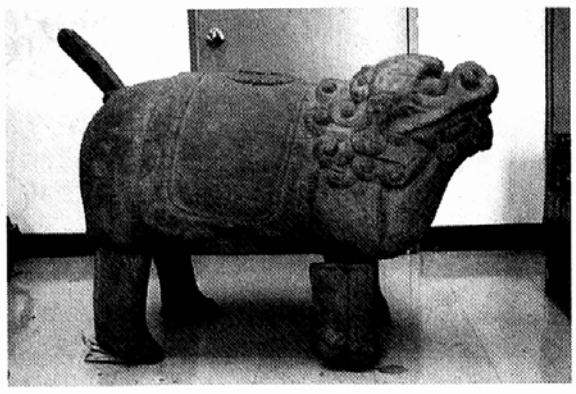
❖ 단 한 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현우기획

눈뜨고 빼앗긴 성보문화재

완주 대원사 목각사자상 공소시효 지나 못찾아

"허술한 문화재보호법 개정" 교계 요구



◇88년 도난당한 대원사 목각사자상. 지난해 이영옥씨가 소유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고 도난을 이유로 문화재 지정이 해제되어 이영옥씨에게 되돌려진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현재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다.

문화재 보호법이 허술한 탓에 도난당한 비지정 성보문화재를 발견·신고해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 현행법 개정이 시급하고도 절실한 문제로 떠올랐다. 〈관련기사 3면〉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해 10월 익명의 제보를 받고 서울 인사동 모 화랑에서 88년 도난되었던 전북 완주군 대원사의 목각사자상을 확인하고 서울지검에 신고했으나, 사자상을 되찾지 못했다.

검찰은 이영옥(64·서울 종로구 가회동) 씨가 소유하고 있던 사자상을 압수한 뒤 수사를 시작했지만, 전북도가 도난을 이유로 90년 6월 문화재 지정을 해제했고 또 일반 도난 사건의 공소시효 5년이 지나, 사건을 종결하고 이씨에게 사자상을 되돌려 주고 만 것이다.

이에 따라 조계종 총무원은 민사소송을 제기해 '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내고 2월 9, 17, 21일 세 차례에 걸쳐 가처분 집행에 나섰으나 이씨가 사자상을 빼돌린 뒤여서 회수는 커녕 소재조차 묘연한 상태이다.

전남 모 사찰에서 10년 전 도난당한 사천왕도도 지난해 11월 서울 인사동 모 화랑에서 발견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고 또 도난신고도 돼 있지 않아 회수가 불가능했다. 결국 사천왕도를 도난당한 사찰은 돈을 주고 다시 사들여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조계종 총무원은 두 사건의 사례를 통해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법적 규제가 허술하다고 판단, 비지정문화재 도난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등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요구하고 수사당국에 문화재 전담반을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행방이 묘연해진 목각사자상을 회수하기 위해 총무원 청사에 '목각사자상은 대원사로 돌아와야 합니다'는 문구의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대원사 주지 진용스님은 "성보를 찾는 것은 대원사 모든 신도의 숙원"이라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반환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종책개발에 역점"

실천승가회 정기총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29일 파즈 보광사에서 7차 정기총회를 열고 청화스님을 의장으로 재추대하는 한편 2000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실천승가회는 올해 주요사업으로 종책 개발 기능을 강화해 한국불교의 비전과 종단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기로 했다.

개편된 주요 임원은 다음과 같다. △상임지도위원-지선(전 백양사 주지), 보선(대둔사 주지), 정련(조계종포교원장) △부의장-효림, 여연(종회의원), 성관(수원포교당 주지), 화범(종회의원), 도현 △기획조정실장-토진 △집행위원장 장적(종회의원) △통일위원장-도각 △인권위원장-혜조(청룡암 주지) △민족문화위원장-원혜(봉은사 주지) △환경위원장-진원(종회의원) △종책위원장-법안(종회의원) △포교위원장-법장(쿠진법장사 주지) △재정위원장-원종(중앙승가대 동문회장) △사무처장-종호 △감사-만성(전 총무원 기획실장), 원타, 진만(종회의원). 정성운 기자

조계사 대승불자회

10년간 매주 법회 열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긴 세월. 하지만 그 긴 세월동안 매주 한차례씩 열리는 법회를 한번도 거르지 않고 계속해 온 조계사 대승불자회가 오는 5월로 10살 생일을 맞는다.

대승불자회(회장 송광수·대천실업 대표)는 조계사 신도회 조직에 속한 불자회로 중·장년 직장인들이 모여 있는 신행단체. 대승보살행 실천과 부처님의 가르침의 사회구현을 목적으로 교양대학 수준에 버금가는 교리학습 및 불우이웃돕기, 군법당 지원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 신도들간의 의견차이로 이따금 홍역도 치를 수밖에.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창립당시 60여명이었던 대승불자회가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였던 시기는 회원수가 6백명에 육박했던 지난 97년. 그러나 종단사태 이후 부침을 거듭해오면서 현재는 법회 참석 인원이 1백명도 채 안된다. 그러다보니 회원들 사이에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게 됐다.

대승불자회가 창립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3월2일부터 5월4일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특별법회를 개최하는 이유도 '공부하는 불자상'을 다시 세워보자는 데 있다. 또 조계사 인근의 연합통신, SK건설, 한국은행 등 각급 직장의 불교회와 제휴해 직장 불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들이 대승불자회에 참여토록 하는 '새 피' 수혈에도 적극 나설계획이다.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대승불자회를 지켜온 황태철 총무(50·대동공연 이벤트 대표)는 "조계사가 '사찰 1번지'라면 대승불자회는 '불자회 1번지'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회원들의 다짐"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1일 출범한 통일정진불교연대는 통일과 통일 이후 사회와 불교 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을 서원했다.

'1000일 정진' 3·1절 출범

21개 통일관련 불교단체로 구성된 '민족화합과 통일을 위한 1000일 정진 불교연대'(이하 통일정진불교연대)는 1일 오후 1시30분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의 나무되어 평화의 숲이 되어'란 주제로 입제식을 열고 본격 출범했다.

통일정진불교연대는 공동발원문을 통해 "남북의 상처를 치유하고 상생과 화합의 통일을 이루는 원력보살이 되자"고 제안했다.

성태용 운영위원장은 "1000일 기도정진은 신행운동이자 민족돕기운동이며 통일운동"이라면서 "통일이후 사회에 대한 준비를 위해, 불교의 미래를 위해 수행·정진하자"고 말했다.

입제식은 공동대표 종후스님(경불련 부회장)의 인사말, 성초진각종 통리원장의 축사, 각 단체의 활동계획 발표, 공동발원문 낭독 및 헌공, 발원 찬탄의 합창순으로 진행돼 3·1절 분위기와 어울리면서 통일에 대한 염원을 불러일으켰다.

참가자들은 입제식이 끝난 후 '온겨레 손잡기 운동'에 동참, 광화문에서 덕수궁까지 인간띠를 이으며, 통일에 대한 서원을 다졌다. 김재경 기자

"원각사 앞 아파트공사 사찰환경 파괴한다"

7개 불교단체 성명발표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불교환경교육원 대한불교청년회 대학생불교연합회 전국불교운동연합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 등 7개 불교단체는 2월28일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구미 원각사 사찰환경과괴에 대한 제 불교단체의 입장'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아파트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와 정신적 고통, 종교활동을 방해한 것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불교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주택공사는 현재 신축중인 아파트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 사찰과 신도들이 입을 신행생활적 피해를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재개하라"고 주장했다. 김재경 기자

사찰 납골묘 주민반대로 '난항'

양산 동선사·천불사

사찰 납골묘가 설치허가를 받아놓고도 지역주민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정부의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납골묘지 설립 권장책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경남 양산 원동면 서룡리 동선사(주지 단공)는 지난해 7월 시로부터 납골당설치 허가를 받고 사찰내 극락전과 부도탑 건립을 거의 끝낸 상태나 최근 지역주민들의 시위로 잔여공사는 물론 운영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주민들은 사찰 납골당을 혐오시설로 판단, 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사찰 진입로를 콤바인과 트랙터 등으로 막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상태다.

양산 웅상읍 천불사(주지 도봉)도 지난해말 납골당 설치허가를 받고 계획을 진행중에 있으나, 일부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마을 일대의 교통소통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천불사측은 현재 사찰내 200여명의 무연고 노인이 수용돼 있는 실버타운이 있어, 이들 노인을 위해서라도 납골당 설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동선사와 천불사측은 "납골당을 혐오시설로 생각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라며 "사찰뿐만 아니라 시나 정부에서도 무언가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명우 기자

진각복지재단·연꽃마을

복지관 잇달아 수탁

진각종 진각복지재단과 연꽃마을이 2월25일과 17일 서울 도봉구와 고양시로부터 종합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을 각각 수탁했다.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성초)이 수탁한 도봉서원복지관은 연면적 1390평에 지하 2층 지상6층 규모로 어린이집과 동사무소가 복지관내에 설치돼 주민복지복합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 건물은 7월에 완공되며, 7월말~8월초쯤에 개관 예정이다.

진각복지재단은 이곳 도봉구 지역이 경제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 기관시설이 취약한 지역 특성에 맞게 가족복지사업, 재가복지사업 등 기본적인 프로그램 외에 열린정보센터, 24시간보육편의점, 지역단체육성지원사업 등의 특화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할 방침이다.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이 수탁한 노인복지회관은 일산의 호수공원내에 위치한 연건평 1500평 규모로 노인복지회관으로는 국내 최대규모며, 4월 중순 개관 예정이다.

연꽃마을은 상담사업, 기능회복사업, 평생사회교육사업, 주간보호사업, 고령자취업알선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장례서비스와 결혼식, 돌잔치, 회갑잔치 등을 유치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한명우 기자

태고종 보현도량 복지법인 설립추진

태고종 젊은 승가 모임인 보현도량(회장 법성)은 2월 26일 제1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복지법인 설립, 학술세미나 개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등 올 사업과 예산 4천만원을 확정했다.

보현도량은 지난해 실시했던 여름가족수련회를 연 2회로 확대해 실시키로 하고 도제양성을 목적으로 매년 지급해 오고 있는 동방대와 회원자녀 장학금 지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복지활동 강화를 위한 복지법인 설립도 추진해 나간다. 또한 사이버포교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21세기를 맞은 한국불교의 방향을 모색하고 경전연구를 통한 수행자상 정립을 위해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경숙 기자



현각스님 산속으로 다시 들어간 까닭

동안거를 마친 납자들이 다시 세상 속으로 내려왔다. 하지만 계룡산 신원사 국제선원에서 묵언, 참선으로 수행정진한 벽안의 납자 현각스님(36)은 지난 4일 다시 산으로 들어갔다. 계룡산 무상사로….

동안거 직전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열림원)를 펴내 장안의 화제를 모았던 현각스님이 세인들을 뒤로한 채 산속으로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수행자의 본분사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현각스님은 올해로 불교에 입문한지 꼭 10년 째이다. 지난 90년 불교에 귀의, 수행의 길로 들어섰다. 그리고 서울 화계사와 공주 신원사를 오가며 정진해왔다. 지난해에는 신사동 한국불교선학연구원 등에서 강의와 법문으로 대중과 함께 하기도 했다. 수행과 대중포교에 활발한 활동을 펼친 현각스님이 지난 3일 한국불교선학연구원에서 마지막 강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현각스님은 "이번 해제기간에는 외부 강연을 가능한 하지 않고 무상사에서 정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현각스님이 계룡사 무상사행을 결행하게 된 배경에는 은사 숭산스님(화계사 조실)의 특단의 조치란 후문이다. 숭산스님은 동안거 해제 대중공사에서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가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장기간 차지하고, 대중강의와 법문으로 자칫 풀릴지도 모를 현각스님의 수행정신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선학연구원에서 만난 현각스님은 "승산스님께서 맛있는 밥을 지으려면 뜸을 오래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밥의 뜸을 드리는 과정처럼 계룡산에서 쉼없는 가행정진을 할 생각이다"고 짧게 말했다. 김중근 기자

삼·부·농·산·은·슈·기·재·배·약·초·만·을·생·산·하·고·있·습·니·다.

97.11.6/99.9.2 MBC-TV '고향은 지금'
99.9.24 KBS-TV '6시 내고향'
99.7.10 SBS-TV '모닝와이드 방영'

자연은 거짓이 없습니다!

무병장수를 바라는 마음 황토삼백초에 의지하십시오 …



신묘장구대다라니 150만 독을 지송하고
찾아낸 약초 황토삼백초
7년을 정성들여 생산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대신주 위신력은 마른 나무 가지에 싹이나서 열매가 열리게하거늘 하물며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일체 환고는 이 다라니로 고치지 못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라니와 더불어 유기재배한 약초로 효과가 뛰어나도록 하였습니다.

■ 삼불초의 놀라운 성분들 ■

황 토삼백초에는 '수용성 탄닌' 플라본계 물질, 유효 미네랄, 필수 아미노산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피를 맑게하여 혈행을 돕고 모세혈관을 보호하며, 강력한 이뇨작용으로 체액순환과 해독작용을하고 위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또 장의 연동력으로 숙변 등 몸안의 노폐물을 신속히 제거하고 변비를 없애줍니다.

■ 이런분들께 좋습니다 ■

▶ 항상 머리가 개운치 않고, 의욕이 없으신분
▶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
▶ 속이 편치 않으신 분
▶ 통변이 시원치 못하신 분
▶ 피부미용과 여성질환으로 고민하시는 분
▶ 식수공해가 걱정되시는 분
▶ 팔다리가 아프신 분.



大悟居士
(김봉서 원장)

차나 승늉처럼 드시고 자주 많이 드셔도 좋습니다.
황토삼백초는 믿을 수 있습니다. 손님 접대나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삼 부 농 산
SAM BU Farrm
경남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 0598)945-0075~7 http://www.teafarm.com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秘)"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소 재
·팔 괘 : 고급나무 조각 목판 팔각형
·만다라 :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 격 :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흉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파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불자들간의 선물·생일선물·개업선물·집들이 선물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제5회 신행수기 당선작(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상)

선지식의 은혜

김 우 상 〈강원도 화천읍 수색대대 의무대〉

의예과 2학년 때의 일이다. 일상의 삶이 지루함과 끊임없는 번민의 연속이었다. 사회에 대한 부적응으로 연일 술과 애정을 찾아 허덕이는 방황의 연속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자기성장 프로그램에 참선반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참선반을 주관하는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며 신선함을 느꼈고, 미의 감각에도 새로운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도 생겨났다.

참선반에서는 1주일에 50분 참선과 10분 교수님의 법문이 있었으며 서로의 의문과 느낌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처음에는 참선을 마치고 나오면서 하늘에 떠있는 흰구름을 보며 "참 뜬 구름 같은 말씀만 하시네"하고 의문을 품으면서도 세상이 좀 더 맑고 신선하게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다.

처음으로 반가부좌로 앉으니까 무릎, 발목, 골반까지 통증이 와서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죽비를 받고 나면 마음에 알 수 없는 맑음과 기쁨이 샘솟았다. 막상 참선 시간전에는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도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심으로 참선반 한 학기를 무사히 마쳤다.

그해 겨울방학 동안 박선자 교수님의 주선으로 곡성 성륜사에서 약 10일 정도 생활하게 되었다. 주지 스님께서는 내게 너무도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수행자다운 맑은 얼굴과 정기어린 눈은 참다운 공부를 한다는 강한 자부심과 자존감 속에 깃든 힘과 청량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껏 여느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무척이나 해맑은 얼굴이었다.

나 역시도 의학도로서 강한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스님의 단호한 말씀과 부처님의 원만덕상을 보는 듯한 수려한 얼굴에서 그만 나자신이 초라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절 집에서의 생활은 단조로움과 신선함이 동시에 몰려 왔지만 속세에 대한 그리움으로 2주일을 예정하고 갔다가 10일째 되는 날 교수님께 먼저 하산해야겠다는 말을 남긴 채 다시 휘황 찬란한 속세로 돌아왔다. 세속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다시 마음 한구석에서는 탈속한 삶에 대한 그리움이 싹트는 것이었다. 수행을 하고픈 강한 열망이 샘솟았다.

본과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수업을 빼먹어 가며 참선반에 다니고 있던 어느 날 박선자 교수께서 청화 큰스님을 친견할 시간이 있는지를 물어왔다. 나는 대뜸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큰 스님을 친견하는 전날이었다. 품을 꾸는데 어린 동자의 모습이 보였다. 발가벗은 채로 나타났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동자의 모습이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었으며, 그 꿈을 통해서 무너지는 업식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다.

큰 스님께서 주석하시는 성륜사 조선당 토굴에 닿았을 때 나는 그만 감탄하고 말았다. 마치 극락세계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이런 곳에서 살면 마음이 맑아질 수 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큰 스님을 친견하는 방에는 부처님의 고행상이 봉안되어 있었다. 또 한 번의 경건함이 느껴졌다. 청화 큰스님의 모습은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자상하면서도 넘치는 자비심과 경건함을 동시에 느낄 수가 있었다.

아! 스님과의 만남은 내 인생 최고의 기쁨이었으며, 가장 큰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방석이 하나 모자랐는데 큰 스님께서는 자기는 편찮다며 방석을 신도에게 건네주었다. 진정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높이지 않으면서도 최고의 존경과 공경을 받을만한 인품이란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감동이 저절로 들었다.

> 큰스님 모습 떠올리기만 해도
> 모두 용서하고 수용하게 됐고
> 나와 더불어 하나임을 느꼈다

한 점 티없이 맑은 큰 스님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이 거짓없이 비쳐졌다. 자신의 진실에 눈뜨게 되었던 것이다. 친견 전날 꿈속에서 보았던 자신의 모습처럼 아무것도 가릴 것도 숨일 것도 없었다. 마치 모든 것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난 듯해 참회가 일었으며 동시에 축복과 감사의 마음이 들어 결국엔 환희 그 자체가 마음속에 가득 찼다.

30분이 넘도록 큰 스님께서 법문을 하셨는데 삼매에 오랫동안 머물면 전생도 환히 내다 볼 수 있으며 내생도 환히 볼 수 있다고 하셨다. 그것은 진정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임에도 자신이 그러한 신통을 한다는 우월감은 찾을 수가 없었으며, 당신이 보시는 안목이 진리에서 나오는 것임에도 그러한 상을 전혀 보이지 않으시는 점이 또 감동을 주었다.

상이 없는 모습이란 것이 바로 청화 스님 같은 모습이구나 하는 강렬한 인상을 받게 되었다.

친견을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 더 이상 있을 수 없었건만 나오는 길목까지 직접 배웅을 나오시는 스님의 모습에서 아낌없는 자상한 배려를 볼 수 있었다.

그러고는 곧 청화스님께서는 미국으로 건너가셨다. 금강선원에서 3년 결사를 마치고 돌아 오실 때까지 뵙지 못했는데 그 3년동안 아! 그리움의 의미를 나는 이해하게 되었다. 무수한 시인들이 노래한 그리움의 노래를 들으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그리움의 의미를 진실로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다. 청화 스님에 대한 그리움은 진리에 대한 그리움이며 스승에 대한 그리움이며 성자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푸른 하늘, 맑은 하늘을 볼 때마다 그속에 큰 스님의 모습이 어리고 마치 저 흰 구름사이에서 어느 때라도 큰 스님께서 나타날 것만 같은, 살아있는 그리움이었다.

그 친견 이후 나에게 변화가 왔다. '세세상행 보살도'를 실천하며 살겠다는 서원을 세우게 되었던 것이다. 성불의 그 날까지 큰 스님의 제자로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를 기원하기에 이르렀으며 큰 스님께서 홀쩍 열반에 드시기전에 큰 스님곁에서 행자생활이라고 마칠 수 있기를 발원하게 되었다. 청화 스님의 자애로우신 은혜가 나에게 영향을 끼쳐 나는 그동안의 모든 업장을 녹이고자 참회하고 또 참회했다.

아! 스님의 자비로우신 눈빛과 사랑이 아니었다면 내 어찌 감히 불법을 집자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

삼속에서 사소한 일들로 인해 들끓는 분노와 욕망이 생길 때면 그저 청화스님의 모습을 한 번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넉넉해지고 그러한 감정에서 벗어나게 됨을 느끼게 된다. 모두를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모두를 수용할 수 있게 됐으며 모두가 나와 더불어 하나임을 자신도 모르게 느끼게 되었다.

내 가슴에 구도의 불꽃을 피우신 스님은 나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정열을 꽃피워 주셨다. 문없는 문으로 인도하는 명쾌한 그 법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감미로운 양식이 되었다. 청화스님께서는 50년이 넘는 수행생활중 일종식(하루 한끼 먹는 것)과 오후불식을 생활화해 왔으며 눕지않는 장좌불와를 40년이 넘도록 수행해 오시면서 우리 불자들의 귀감이 되어 오셨다한다.

청화 큰스님과의 인연이 헛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그림 · 이준석

살아있는 法語, 살아있는 佛敎史料
이천만 불자의 참대변지, 수행의 길잡이 …

현대불교신문
1999년도 합본집 발간 (50부 한정판매)

'94 ~ '99년 디지털 합본집 CD도 함께드립니다.

1999년도 한해 동안 발행된 현대불교 신문의 '합본집'이 나왔습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시사불교와 이해하기 쉬운 교리, 큰스님 법문, 한국문화의 중추가 되는 불교문화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 불자님들에게는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사찰의 스님들께는 참다운 수행의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99년도 합본집' 제5호를 구입하시는 분들께는 '94년 창간호부터 1999년도 송년호까지 모든 기사와 보도사진이 수록되어 있는 '디지털 합본집 CD-ROM'을 증정합니다.

수록내용 : 1999년도 (201호~251호)
판 형 : 신문원형 그대로
가 격 : 1권 65,000원 (발송비 5,000원 포함 - 직접 구입시 발송비 제외)
입금구좌 :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023-25-0007-617 농협 053-01-227471 우체국 010041-0255243
문 의 :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737-8881(代), (02)737-0090(直)

인터넷 마하몰

불기 2544년 부처님 오신날에는
『사찰과 그 주변을 환히 밝히고 있는
마하 반야심경 봉축등을 만나십시오』

(02)732-1522(직)
(02)737-8881
인터넷 주문: http://www.mahamall.co.kr



마하 반야심경 봉축등은…

각종 행사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며 행사기간 내내 사찰과 그 주변을 밝게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 물에 젖지 않으며 견고함을 자랑합니다.
- 사용후 접은 상태에서 간편하게 보관이 되므로 운반, 보관이 간편합니다.
- 밝고, 다양한 색디자인과 단청문양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불도량의 장엄함을 느끼게 해 줍니다.
- 선명한 색상 오색으로 이어진 야간 점등 후 모습은 한국전통등으로써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 부처님의 교설을 열심히 공부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하는 불자들의 서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 주문전화 : 02)732-1522(직통)/737-8881(대표)
▶ 주문팩스 : 02)737-0697
▶ 판 매 원 : 마하몰

이 연등은 재가불자들의 구매용이 아닙니다.

마하 반야심경 봉축 조립등



<설치순서>
1. 연등의 윗부분을 조립한다.
2. 연등의 아랫부분을 조립한다.
3. 연등을 설치한다

■규격 : 폭28cm×높이28cm
■ 초꽂이 포함, 등걸이 철사 포함, 이름표 포함, 탁송비 별도
■ 가격 : 1,840원

※ 실용신안 번호 : 제 0160182호



〈이름표〉
비매 품 입니다.

마하 반야심경 봉축 접등



<설치순서>
1. 접힌 상태의 연등을 편다.
2. 내부에 접혀 있는 지지철봉을 누른다.
3. 연등을 설치한다.

■규격 : 폭28cm×높이28cm
■ 초꽂이 포함, 등걸이 철사 포함, 이름표 별도, 탁송비 별도
■ 가격 : 2,500원 (이름표 포함 2,600원)

※ 실용신안 번호 : 제 0179042호



〈이름표〉
비매 품 입니다.